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5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319 호

www.buddhanews.com



금주법구

은혜를 갚는 것은 그림자 몸 따르듯
이러히 행한다면 인간의 도리이고
원한을 푸는 것은 화로에 눈 녹듯이
이러히 행한다면 그 마음 고요하리.

-금오집-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사찰재정의 '투명성'

"수행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선가귀감)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돈이 생길 경우, 사찰에서 종사하는 재가자인 정인(淨人)에게 맡게 하라고 설하셨다. 돈을 만지는 것은 '위의와 사문의 법과 청정한 행과 수순하는 행이 아니어서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사찰의 재정사고가 이러한 계율을 무색케 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발생한 범어사의 국가보조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교계의 참회와 자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스님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조계종에서 공금횡령과 문화재 밀거래 등 반사회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등이 솔선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종무행정 전반의 현실을 검토해 대중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종무행정 쇄신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범어사내 청년승가모임도 15일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범어사 자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입, 범어사 집행부의 일괄 사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산문총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가단체들의 실망과 충격은 더욱 크다. 50여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7일 "이번 사건은 일선 사찰에서부터 종단,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등 문화재 국고보조와 교부를 둘러싼 모든 주체의 그릇된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재가연대는 '개혁을 위



한 종교NGO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종교단체의 기부금, 정부보조금 및 교부금 등에 대한 재정 공개운동을 범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5년간 불교계에서 일어난 재정사고는 굵직한 것만 해도 10여건. 그동안 사찰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재정 사고 처리에 대한 불자들의 여론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이며, 재가단체들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종단의 종합적인 종무행정 투명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조계종 '사찰문화재 보존과 도난방지 종합대책' 마련. 문화재 지키는 일을 넘어 성스러움을 고양시키는 일로 승화되기를. (3면)

◇대불련 출신 의료계 종사자 모임 '선재마을 의료회' 서울역 노숙자 무료 진료. 고통 나누기로 보살행 체현. (6면)

◇한국禪의 뿌리는 신라禪. 주체적 선사상 풍토 위에 중국 선종 수용, 산문선 형태로 독자적 발흥. (16면)

◇강진 백련사 '재가자 무문관' 수행. 최소한의 음식과 수면으로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다. (23면)

"문화재 예산 先배정" "성보도난 주지 징계"

조계종 불교문화재 보존 종합대책 발표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내 문화재교육 강화, 문화재사범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담은 '불교문화재 보존 및 도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무원 부·실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회견문을 통해 "최근 들어 불교문화재의 절도와 훼손, 해외 유출과 밀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전문화 되었으나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5% 미만"이라고 지적, 6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의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종합 대책'을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보냈다.

6가지 대책은 △종단 내 문화재 관련 교육 강화와 예산 우선 배정 △종단과 정부당국이 사찰 소장 문화재 실태 공동 조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사찰 박물관의 활성화 △도난 방지 시설 설치 △문화재청 단속반의 강화와 검·경의 문화재전담반 설치 등이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교문화재 보존 및 도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대스님은 특히 "종단 내 각종 교육과정에 반드시 문화재 관련 과목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예산 지침과 승인 과정에서 성보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증액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스님은 또 "성보를 잃어버린 사찰의 주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에 회부할 것"이라며 청원경찰 등 문화재 보존 전담 인력도 두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당국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잇따라 성보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망 미비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84~99년 사이 316건(년 평균 20건)의 성보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정성운 기자 swung@buddhapa.com



구인사 모내기 지난 16일 단양 구인사의 30여 스님들이 모내기를 하는 모습은 수행과 일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이곳에서는 논, 밭, 과수원 등 7만여 평의 농장을 스님들이 손수 가꾸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승가의 청규를 실천하고 있다.

단양 구인사=고영배 기자

원각사지 10층석탑 특별안전진단 실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탑골공원(제 354호) 성역화 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의 붕괴 우려가 제기돼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원각사탑은 현재 탑신부 6층 소재회상과 7층 원통회상 사이에 있는 2중 옥개석의 상대부가 탑신부에서 상당히 이탈되어 있고 동남향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어져 있다. 또 탑의 하중을 떠받치는 4개의 지대석 가운데 하나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라앉아 있다.

서울시는 15일 원각사지 10층석탑의 붕괴위험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시립박물관 발굴팀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상주키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정밀 안전진단반을 구성, 원각사지 10층석탑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각사지 10층석탑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는 92년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조만간 서울시청을 방문해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앞서 원각사에 대한 역사적 규명작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日 역사교과서 시정 공동노력"

한·일 불교대회 '선언문'

2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한 한·일 두 나라 불교대표들은 15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법요식과 '불교의 효사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나라 불교대표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처해진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양국 불교도는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 불교도는 또 공동선언문에서 △가족윤리를 확립하여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고 부모는 자식을 불자로 키워 나가며, 가족의 화합을 사회로 넓혀나가 서로 믿고 협조하는 불국토 실현에 기여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노력한다 △석존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은 국가나 정치를 초월한 보편의 가르침이며, 세계와 인류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석한 두 나라 대표 50명은 16일 김대중 대통령 초청 간담회 참석, 보문사 참배, 진각종 천태종 초청 조찬 만찬 등의 일정을 보냈다. 김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일 두 나라의 불교지도자들이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전자불전 학술대회 25·26일 동국대서

세계전자불전학회(약칭 EBTI)의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5~26일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동국대 개교 95주년 기념을 겸한 이번 학술대회는 '불전전산화에서의 국제협력'이란 주제 아래 6개국 17명의 학자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를 주관하는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대장경 전산화 작업에서의 경험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역경원과 전자불전연구소는 한글대장경 318권 가운데 1차로 30권을 연말까지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녹차향 그윽 윤사월 3寺순례

5월: 쌍계사 · 칠불사 · 국사암



윤사월을 맞아 자신의 업장을 씻고 공덕 쌓기를 발원하는 삼사(三寺)순례와 차문화 축제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나라 차 시배지인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비와 이 절의 창건주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 47호), 대웅전(보물 제 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또 한번 불을 지펴 놓으면 49일 동안이나 온기가 식지 않았다는 아자방(亞字房)으로 유명한 천년 고찰 칠불사도 참배합니다. 국사암 진감선사 부도비(보물 제380호) 앞에서 처음 열리는 '다례제'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차를 직접 만드는 제다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이번 문화기행에서 3사순례의 선업쌓기와 더불어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5월 26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살아생전 부모님께 전통삼베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孝의 실천입니다.





큰일을 당하고 다시 허둥지둥 장의사에 급하게 맡기는 수의(壽衣)가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곱곱하게 따져가며 제대로 된 수의(壽衣)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아니라 최고(最高)의 효도(孝道)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말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祈願)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획- 놓치지 마십시오.

전화주 100분에게 광중수의와 삼베 이불보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안동삼베 특품이상)

품 명	구 성	재 질	가 격	백화점가격
삼베 二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550,000원	600,000원
삼베 一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이상 제거한 후 장섬유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798,000원	900,000원
삼베 特品	남 20종, 여18종	대마 80% 본사수의로 안동포 규격을 기준으로 제조 엄선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150,000원	1,320,000원
수지 特品	남 20종, 여18종	대마 100% 원사를 배품로 제작한 고급 수직 제품.	1,450,000원	1,187,000원
안동포 七세	남 20종, 여18종	순수삼베 자연사 100%(국산)를 재래식으로 제조 자연 염료인 치자염색로 염색된 최상의 상품	3,950,000원	4,200,000원

- 남자 - 도포 후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모포끈, 대게, 허리띠, 무명, 오낭, 면모, 광건, 탁발의,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평개 원삼띠, 면모, 버선, 오낭, 탁발이, 면포 (총 16종)

윤달 (윤사월 5.23 ~ 6.20)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불자님 특별할인가격] [L백화점 판매가격]

※ 카드 6개월 무이자, 택배 가능

제조원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 본사 / 공장 경북안동시 서후면 귀천리 439-1

판매원 TM 泰明商社 |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사 설

성보보존 정부 적극 나서라

문화재는 후손들의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이를 관리, 보존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문화재를 통해 우리 시대는 학술, 미학적 관점에서 선인들의 예지를 배우는 일을 맡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은 또 그들의 안목에서 문화재를 연구 감상하며 삶의 지평을 넓혀나갈 것이다. 문화재는 지나온 시간과 공간 속의 삶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유·무형의 텍스트이다.

언제부터인지 문화재가 돈으로 둔갑했다. 문화재 도난범들의 조직이 마약 조직 이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성보들이 도난범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불상의 복장물까지 털이의 대상이 된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지난 16일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문화재 보존 및 도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잇따르는 불교문화재 도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종합 대책에는 △종단 내 문화재 교육 강화와 예산 우선 배정 △종단과 정부당국이 사찰 소장 문화재 실태 공동 조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사찰 박물관의 활성화 △도난 방지 시설 설치 △문화재청 단속반의 강화와 검·경의 문화재전담반 설치 등 6가지를 담았다. 이와는 별도로 조계종은 문화재를 도난 당한 주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사찰마다 방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종합 대책에는 문화재 교육 강화와 예산의 우선 배정 등 조계종의 자구 노력을 담은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실태 조사와 법망 미비의 강화이다. 특히 실태 조사의 실시는 문화재 정책의 기본 자료인 만큼 시급하다. 문화재 도난범들은 훔친 후 공소시효가 지나면 판매에 나선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조직화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도난 문화재 회수율이 5% 미만이라니, 이는 완전범죄에 가깝다. 검·경의 전담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이다.

'대승교화종단' 역할 기대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주요 불교종단인 태고종과 진각종이 총무원장과 통리원장의 취임식을 성대히 치렀다. 태고종의 경우 지난 3개월여 극심한 내분을 겪고 난 뒤라 새 원장의 취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각별했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총무원장인 만큼 무엇보다 찢겨진 종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갈등을 완전 해소시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었을 것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대정사는 취임사에서 종단 화합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단의 체질 개선과 제도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라 취임 일성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종단의 모든 제도와 조직을,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그에 걸맞는 포교에 나설 수 있도록 과감히 개혁하고 개선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정신문명과 가치관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행자상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종단의 개혁이나 발전적인 개선은 구호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종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제적이고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반드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복지활동의 확대, 청소년 포교와 인재 양성, 환경 등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시급한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수행풍토 조성에 관심을 갖고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한다.

혜초 원장은 풍부한 경륜과 원만한 덕을 갖추어 종단 내외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고, 효암 원장 역시 강한 추진력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만큼, 두 원장이 종단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장병 46% "입대후 불교입문"

포교사단 1850명 설문… "법회 프로그램 개발 시급"

군 불자의 80.5%가 법회참석 후 생활태도와 인관관계 종교관 등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고 응답했다. 또 군 입대 후 불교에 입문한 군 장병이 45.6%에 이르며, 제대 후에도 불교신행을 계속할 계획(72.2%)이며, 포교에 나서겠다는 응답도 48.3%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이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직접 관리하는 56개 법당에 나오는 군불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한 군 장병 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 불자의 경우 장병의 82.1%, 하사관의 96.7%가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했다고 응답해 신병훈련소에 대한 포교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입문 이유로는 가족·친지의 권유(60.3%), 군부대의 1인1종교 정책(27.2%)등의 순이며, 법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군 생활에 도움(22%), 불교를 알수 있는 좋은 기회(20.7%), 입대전 불교활동 영향(20.7%), 타종교보다 좋다고 여겨서(13.6%), 불교에 대한 호기심(12.1%)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군 법회 참여도는 장병의 62.8%가 월 2회 이상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49.4%가 수계를 받은 반면 50.6%는 수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병들은 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도·수행(42.2%), 상담(16.4%), 불교문화 및 교양(14.9%) 순으로 선호했다. 군 법회 운영과 관련해 30분(34.8%)동안 생활법문(44.4%)위주로 법문 해줬으면 한다고 응답했다. 또 법회에서 받고 싶은 선물로는 합장주 등 불교용품(60.5%), 불교도서(15.2%), 법당에서 찍은 사진(7.6%)등이라고 응답했다.

군법회의 개선 방향으로는 법회 프로그램개발(44.4%), 법회 홍보(22.2%) 대중 공양(18.8%), 법회 전담자(11.7%)등이며, 국방부 등 소속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48.4%), 군 법사 등 인력 지원(22.1%), 정책 지원(17.5%), 행정 지원(8.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교사단 하영태국장은 "군 입대 전 장병들의 62%가 대학생이고, 군 생활의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를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로 귀결된다"며 "군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종단과 포교사단, 군 법당 인근 사찰, 신행단체들이 포교네트웍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종 포교사단은 26일 오후4시 서울 봉은사에서 군 포교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군 포교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진각종 제26대 효암통리원장 취임식이 17일 서울총인원에서 개최됐다.

"참여·화합으로 밀교 중흥"

진각종 효암통리원장 취임식… 1천여명 참석

진각종 제 26대 효암 통리원장 취임식이 17일 서울 총인원에서 각해 진각종 총인을 비롯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이날 취임식은 삼귀명, 헌화정공, 발원문 봉독, 제25대 성초 통리원장 이임사, 제26대 효암 통리원장의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암 새 통리원장은 취임사에서 "대승적 삶과 밀교중흥을 위해 종단을 참여와 화합, 회향의 구조로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전제하고 "신교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신교도가 각급 단위에서 주체로 나서는 참여시스템을 개발 실행하고, 포교 교육 복지 영역을 서로 네트워크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겠으며 종단 기획실을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관계설정과 더불어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종책들을 검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박준영 청와대불자회장, 김중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함종한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 등은 각각 축사로써 효암 통리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진각종의 도약을 기원했다. 한편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도 축하메시지를 보내 진각종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군 포교는 즐거워

정화회의 총무원장 부존재소 취하

종회의원 자격소는 계류

정화개혁회의의 정영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무원장자격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를 15일 취하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와 관련, "부당한 소송으로 야기된 불법적인 종권 침해와 총무원장 자격에 대한 법정공방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소위 정화개혁회의에 가담했던 종도들은 즉각 참회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영스님은 99년 12월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2월 2일 서울지법 민사17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중앙종회의원 자격상실 확인청구 소송은 1, 2심에서 모두 정화개혁회의측이 패했으나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정성운 기자

"멸빈징계스님 사면 복권"

조계종 전국신도회 건의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9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종단의 각종 분규 이후 멸빈·징계된 스님들의 사면 복권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신도회는 건의문을 통해 "종단분규로 역대 종단 간부를 지낸 스님과 역대 신도회 소임자들이 상처를 받았었다"며 "불교의 장래를 생각하여 화합과 포용으로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신도회는 이날 30명의 발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설법시연대회를 개최했다. 김원우기자

"새만금 간척 중지촉구"

조계종 본사주지련·승가대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15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하여 자연환경과 국익을 위하여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심사숙고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7대종교 사형제폐지 토론회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7대 교단은 내달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토론회 및 문화제를 개최한다.

1부 토론회와 2부 문화제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기찬 변호사가 '사형,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과 정대철 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에 앞서 전직 교도관의 사형수에 관한 증언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사형제도 폐지의 종교적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가수 안치환씨의 공연으로 시작되는 문화제는 사형수가 남긴 편지 낭독과 피해자 가족이야기, 김수환 추기경의 '내가 본 사형제도' 발표, 불교계의 사형수들에 대한 영가 천도재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종교계는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채택한다. (02)734-6401.

김재경기자

"부처님이 성상담 한다면"

봉선사서 세미나

상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상담에 대한 불교적인 접근 방법을 조망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은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성상담, 바로 보고 바로 받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처님이 성상담을 하신다면'(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경전에 나타난 性(박경준, 동국대 교수)등의 강연과 상담 사례 발표 조별 토론 (홍옥근, 자비의전화 상담원), 성상담 바로 받기 토론 (윤경혜, YMCA 책임상담원)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紫微垣과 大院君

紫微垣과 大院君 韓國의 爲政者에게 告함

新羅의 元曉聖師도 義湘祖師와 함께 中國으로 佛教遊學하고자 唐津의 內浦港口로 乘船하기 爲해 가든 途中 紫微垣을 發見하고 祖國의 民族的 矜持를 갖고 忽然히 回程 하였다는 說이 있는가 하면 唐의 風水宗匠인 一行禪師와 杜思忠도 紫微垣을 보고 歸國하여 언젠가는 新羅땅에서 世界를 統一하는 天子가 出現할 것이라고 豫言하고 記錄은 禁忌하였다. 또 高麗初 風水의 鼻祖인 道詵國師와 朝鮮의 無學國師도 紫微垣을 보고 將次 우리나라가 世界의 宗主國이 될 것이라고 秘傳하였다. 朝鮮末의 興宣大院君이 鄭萬仁禪師에게 紫微垣의 圖得을 懇請하였으나 不可理由로서 첫째 封建王朝體制가 崩壞하는 時代에 可用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대의 所有가 아니니 後日 有德君子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斷乎히 拒絶하였다. 그리고 只今의 德山땅에 當代君王之地를 點穴하여 그의 父親南延君을 遷墓케 하였다. 그리하여 一年後에 命福(고종황제)을 出生하였고 十一年만에 이르러 世子冊封과 同時 攝政 大院君이 되었다.

그 後 萬仁禪師는 紫微垣 山圖의 一幅을 大院君에게 傳한 다음 곧 바로 海印寺를 거쳐 紫霞島로 晦名蹈跡하였다. 大院君은 이것을 刺繡하여 居室에 걸어두고 世界風水界에 있어 最上의 絶倫이라고 感嘆하였다 한다. 오늘까지 규장각에 所藏되었다는 說이 있다. 이 紫微垣 天子之地를 韓國正統風水大家인 哲山 丁世源明師께서 五十四年間 踏山끝에 마침내 機緣을 통하여 發見하였다. 이것은 우리 韓國이 國運隆昌할 時節因緣이 到來한 것이며 아울러 南北統一은 勿論 韓民族의 世界宗主化 時代가 開幕될 것을 豫告하는 瑞兆로 確信하는 바이다.

辛巳年 五月 十五日

韓國正統風水學會 會員一同 白

H·P 011-747-5035, 017-290-1289

목어

죽음부른 기숙학원



우리나라에 서구적이랄까 근대적이랄까, 아무튼 새로운 형태의 교육장이 들어선 것은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였다. 서당 대신 학교라는 이름으로 민족사에 등장한 학교는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다.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교육의 연관관계를 없애버린 점이다.

학교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3위일체의 교육'이 말로만이지 실제로는 지금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구식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부모들이 모르는 내용을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학습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습지도가 될 수 없었고, 부모들의 광범위한 모임인 사회 또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입으로는 3위일체를 읊어대지만 실제로는 일체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가정과 사회와 관련성이 적은 교육을 하다보니 전인교육을 할 수 없었고, 산업화 과정의 경제,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그 기능이란 것도 사회와의 연관성이 없어서 직장에서는 우수한 학습능력(?)이 인정된 사람을 뽑아서 재교육을 시켜야만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교육인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육에 발맞춰 가는 것이 특수학급, 특별학원 등의 시설이다. 이번에 경기도 광주의 특별학원에서 화재로 변을 당한 학생들은 바로 그런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들이다. 그런데도 불이 난 방에 갇혀 있던 친구들을 구하느라 자신은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소식을 접하고는 인간의 숭고함을 느낀다. 아미타부처님의 무한 광명, 무한 생명이 함께 하길 빈다.

학교 교육에 관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진다는 것을 교육 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인가.

법현(종단협의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잇단 도난·훼손… '지키자' 강한 다짐

조계종 성보보존대책 '배경과 내용'

16일 발표한 '사찰문화재 보존과 도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계종 총무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지는 정대 총무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보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찰에 있다. 앞으로는 성보를 잃어버린 사찰의 주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도난문화재 회수율 5% 미만
비지정 문화재 실태파악 시급
문화재 사찰 경비인력 확충

배경 조계종 총무원이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담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에는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의 도난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84년부터 99년 6월까지 불교문화재 도난건수는 316건 453점에 달한다. 99년과 지난해에만 모두 30건 57점의 불교문화재가 도난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4.8%가 비지정문화재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계 법령 미비 등으로 회수율은 5%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불상이나 불화 정도만 파악됐을 뿐 복장유물의 경우 도난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대규모 문화재밀매단 사건 이후에도 이 달 초 파주 보광사와 경주 주사암 등에서 탱화와 복장유물이 털리는 등 비지정 불교문화재 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말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불교문화재 도난에 강력 대처를 지시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종합대책 발표의 계기가 됐다.

보존대책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의 실태파악이다. 96년부터 매년 2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여온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사찰 소장 문화재 8만여 건 중 3만5천여 건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월정사 본·말사 29개 사찰의 문화재 조사에서는 현재 지정된 38건 외에도 28건이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한 번도 전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작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불교문화재 조사비 5억 원이 올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강원지역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2006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비지정 불교문화재의 경우 5~7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도난문화재 은닉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조항 신설, 선의취득 배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건립됐거나 건립중인 23개 성보박물관 활성화 지원 대책과 불상 복장유물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

도난방지책 조계종 총무원은 '방범·방화 업무규정 및 성보도난 방지 시스템 설계지침 개요'를 통해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사찰에 자동 경보시설 설치와 화상감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354개 사찰에 대해 3년 계획으로 방범시스템 설치를 추진한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경비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청원경찰을 두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올 6월부터 10월까지 조계종 산하 전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 주지 방범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행 2명뿐인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반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에 문화재전담반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은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불교문화재 공동일제조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월정사 말사인 미륵암에서 탑 실측조사를 하고 있는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의 모습.

모든 사찰 6개월이내 방범·방화시설 의무화

조계종, 입법예고 - 6월 시행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방범·방화업무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범·방화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찰은 자동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성보도난 및 화재사고가 발생시 책임자는 중과실 또는 고의로 징계에 회부한다. 징계 회부는 승려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47조 17호, 48조 11호, 51조 7호)

총무원 교구본사의 관리 감독 강화

중앙종무기관의 장과 교구본사 및 사찰의 주지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방범·방화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방범·방화 관리자의 임면 등의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모든 사찰의 경보 시설 설치 의무화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전통사찰 공사찰을 포함한 모든 사찰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범경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가군 사찰(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관람료사찰)은 화상감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총무원은 이른 시일 안에 총무원의 검증을 받은 업체 또는 기기를 선정하고, 경보시설의 설치는 이들 업체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벌칙 강화

이 규정과 설계기준에 의한 관할 감독기관의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통보받고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찰의 주지는 직무유기 등으로 진계에 회부할 수 있다. 또 방범·방화 조치를 게을리 하여 성보 도난 및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승려법에 따르면, 성보를 도난당한 사찰의 주지에게는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친환경적 사찰 만들자"

범불교환경단체 준비위 '토론회'



◇17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생명사상과 환경운동의 모색' 토론회.

설악산과 지리산을 잇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과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달 26일 출범예정인 범불교환경단체는 어떤 생명운동을 펼치게 될까.

이 단체는 '지리산살리기 댐 백지화 범불교연대'에 참여했던 50여개의 불교환경단체를 비롯해 각 지역의 환경·시민단체와 사찰이 모두 참여한다. 지역에 근거를 두는 풀뿌리 조직을 지향하고 있어 도내 사찰들도 주변 환경보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1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불교생명사상과 환경운동의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활동방향을 집중 논의하고, 전국의 사찰환경 네트워크를 구성해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문제에 대응하고 불교환경이념 정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지방자치시대이후 불교는 가장 큰 환경적 피해자로 등장하면서 사찰의 환경적 대응과 조직적인 환경운동의 필요성이 고조되었다"면서, "불교 환경운동은 사찰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성보와 가람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환경운동의 한계를 뜰과하고,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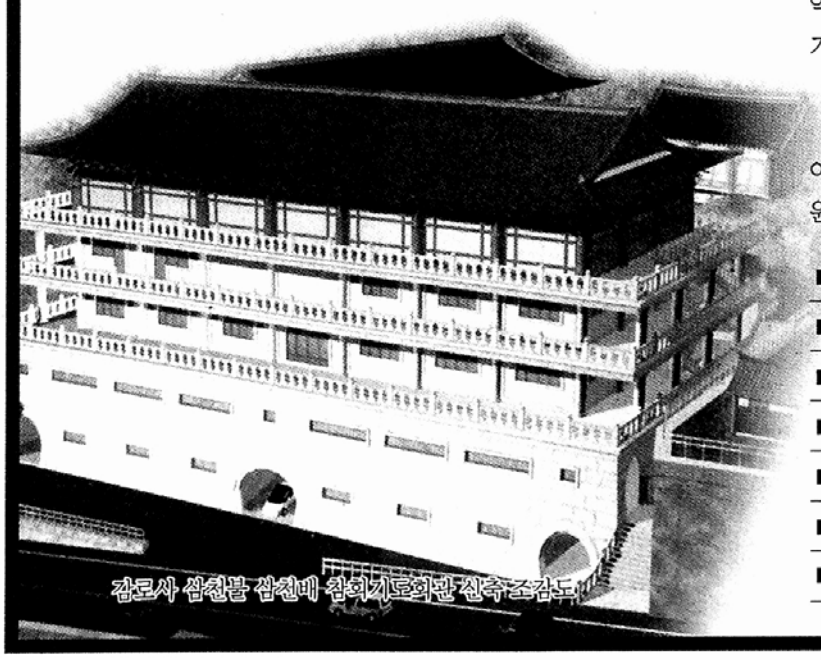
유 국장은 '백두대간 불교 생명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 △산과 숲을 지키는 사찰 네트워크 구성 △친환경적 사찰을 만들기 위한 '사찰의제 21' 작성 △타종교 및 단체간의 연대활동 △불교 환경정보센터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치 △각종 불사 및 개발과 훼손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은 "불교 환경운동은 생명의 불성을 살리는 운동이자 깨달음의 시작"이라며, "사찰마다 일회용품 안쓰기, 분리 수거, 무공해 비누 쓰기 등 지역 환경단체와 연대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관 신축 원만성취발원 천일기도에 들어가며

감로사 제1차 관음백일기도 봉행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관 신축조감도

당 감로사에서는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회관 신축을 오래전부터 발원하여 오다가 이제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착공에 즈음하여 원만건축과 국태민안 및 특히 신도님의 가정마다 소원성취와 만사형통을 위하여 백일기도를 10번 하면 천일기도가 됩니다.

이에 제1차 백일기도를 5월 25일(음. 윤 4월 3일)에 입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동안 미루어 오다가 삼천부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 발원하게 되었사오니 많이 동참하시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삼천배 참회기도 회관 불사가 원만성취되어 누구나 함께 참회기도를 하여 개개인이 성불하시기 바라며 권선합니다.

- 제1차 백일기도 입재 : 2001년 5월 25일 (음. 윤. 4월 3일) 오전 10시
- 제1차 백일기도 회향 및 제2차 백일기도 입재 : 2001년 9월 1일 (음. 7월 14일) 오전 10시
- 입재 법문: 지관 큰스님 (가산불교문화원 원장, 전 동국대학교 총장)
- 백일기도 1인당 동참금 : 10만원 (지참물 : 공양미, 과일, 초, 꽃, 약간씩)
- 기도 동참시간 : 새벽 4시, 사시(10시), 저녁 6시
- 영가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동참계좌 : 조흥은행 409-04-472968 (예금주 :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주지 혜 총 합장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전화 (051)809-0926, 팩스 803-0188

일주문



제5회 모악축제 열어

도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북지부장 스님은 20일 금산사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5회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청송 모범감호자 위로

청산 영주 고경사 주지는 7일 경북 청송감호소의 가족이 없는 모범감호자들을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방송 임직원 연수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은 12~13일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임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했다.



'박물관인 상' 시상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제4회 '자랑스런 박물관인 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산불교회관 개관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종로구 수송동 동산불교회관 개관식을 거행한다. (02)732-1206



대불청 사무실이전 개원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은 수송동 수성빌딩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 하고 17일 개원법회를 가졌다. (02)738-3385



교육부 장관상 받아

이종희 진각종 탑주유치원 원감은 유아교육 발전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 15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태고종 포교원장 자월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 스님은 포교원장에 윤자월스님(왼쪽), 연수원장에 김지족스님을 임명했다. 자월스님은 1944년 生으로 65년 금산사에서 현수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태고종 사회부장 · 총무부장, 태고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태고원 이사,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지족스님은 1937년 生으로 54년 상주 남장사에서 화엄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태고종 동부분원장, 총무원 사정부장 사회부장등을 역임하고 현재 강동구 대흥사 주지로 있다.

"참나 알면 모든게 자유롭다"

대행스님 동국대 정각원 초청 법문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이 18일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 스님)의 고승초청법회에 법사로 참석, '죽어야 나를 보리라'는 주제로 법문했다(사진).

평소 정각원 법당에서 법회를 여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강당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정각원장 법산 스님, 송석구 총장을 비롯해 교수 · 교직원 · 학생 등이 대거 참석해 중강당 복도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법회에서 대행 스님은 먼저 '불교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가' 등 불자들이 흔히 질문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법문을 시작했다.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법회에서 스님은 자기의 주인공을 찾는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자주 당부했다. 스님은 "이 육체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은 우주를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자 불성이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행정진하면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러니 주인공에 맡겨야 한다"며 우주와 생명의 근본인 참나를 깨달음으로써 생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스님은 '물질의 근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민태진(화학과) 교수의 질문에, "부처님 법으로는 모두 다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묘법이다"고 말했다.

지난 93년부터 매달 실시해 오고 있는 정각원 고승초청법회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스님들이 한번이상 법문을 했을 정도로 고승법회 중심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회에서 비구니 스님이 법문한 것은 대행스님이 처음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스님 뜻 기려 교육사업 힘쓸터"

청담 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스님



청담장학문화재단이 지난 4월 초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초대 이사장은 도선사 전 주지 동광스님(충주 자혜방생원 원장)이 맡았다.

동광스님은 "청담스님의 뜻을 받들어 교육, 포교, 사상 재조명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진행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재단의 기금을 현재의 5억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일에 문도들의 뜻을 모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담스님 탄신 100년을 맞는 올 10월(또는 11월 초) 기념음악회를 열고 청담스님 관련 논문집도 펴낼 계획이다.

청담문화재단은 △청소년 대상의 장학사업과 불교문화 수련회 △출판을 통한 포교 활동 △청담문도회 소속 스님들의 교육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청담불교사상연구원과 기념관 설립도 추진한다. 청담문화재단에는 혜성 · 현성 · 법화 · 묘엄 스님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신부님 목탁치고 스님 염불



15일 미 대사관 앞에서는 이색 시위가 벌어졌다. 불평등한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과 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정책(MD)을 규탄하는 '나홀로 시위 릴레이'에 진관스님이 염불을 외우고, 스님으로부터 목탁치는 법을 배운 문규현 신부가 목탁을 치는 장면이 연출 된 것.

두 성직자는 이어 제20차 반미연대집회에 참석해 양민학살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지역불자 교육도량 목표"

인천불교회관 건립 나선 일지스님



"불교세가 미약한 인천지역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인천 전법도량 지정 이후 4년간 끌어온 인천불교회관 건립 원력을 세우고 14일 포교원에 사재 4억원과 불교회관 설계도를 제출한 일지스님(50 · 부평 마하연포교원 주지).

스님은 "93년부터 동인천 능인사와 부평 마하연포교원에서 교양대학을 운영하며, 지역불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인천불교회관의 건립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절감했다"며 "재정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의 힘을 모아 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0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교회관 건립불사에 나서는 스님은 "먼저 불교회관과 신행단체 사무실, 대법당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불교회관을 완공한 뒤 두층을 더 올려 어린이집과 불자예식장도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지스님은 79년 강진 옥련사에서 경선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87년 운문사 승가대학 93년 중앙승가대 95년 동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역 첫 불교 어린이집 세웠으면"



강진불교신도회 방철수 회장

"2002년까지 강진 최초의 어린이집과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12일 전남 강진불교신도회 제3대 회장에 선임된 방철수(47 · 강진불교대 운영위원장) 해강전력 대표는 "강진군내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20여 어린이집이 있지만 불교계는 한 곳도 없다"면서 "새싹 불자를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 건축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불교 포교를 위해 불교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법성종 덕암 초대 총무원장 취임식

대한불교 법성종 초대 총무원장 덕암스님의 취임식이 15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봉행됐다. 조동종 종정 지명스님, 하순봉 한나라당부총재 등 5백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덕암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의 기반을 튼튼히 해 불교중흥에 이바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성종은 전국에 110여개 사암을 두고 있으며 지난 99년 창종됐다.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 상량식

관음종 총본산 서울 묘각사 신축 법당 상량식이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 스님, 다니겐쇼스님(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등 일본불교 지도자 스님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6일 봉행됐다. 연건평 450평 지상 3층으로 세워지는 새 법당 묘각사는 6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범주 스님, 노숙자 후원금 1천만원 전달

범주스님(달마선원장)은 15일 조계종 사회부를 방문, 사회국장 혜림스님에게 노숙자를 위한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연 범주스님 서예전시회에서 얻은 수익금이다. 범주스님은 노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교 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입학식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는 11일 6층 강당에서 제1기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과정 입학식을 거행했다. 전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 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이사장 정여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을 비롯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선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불교지도자 상을 정립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처님 꽃 친견 및 삼사 성지순례 법회
(운봉산 백운사 아미타부처님 몸에 핀 꽃 친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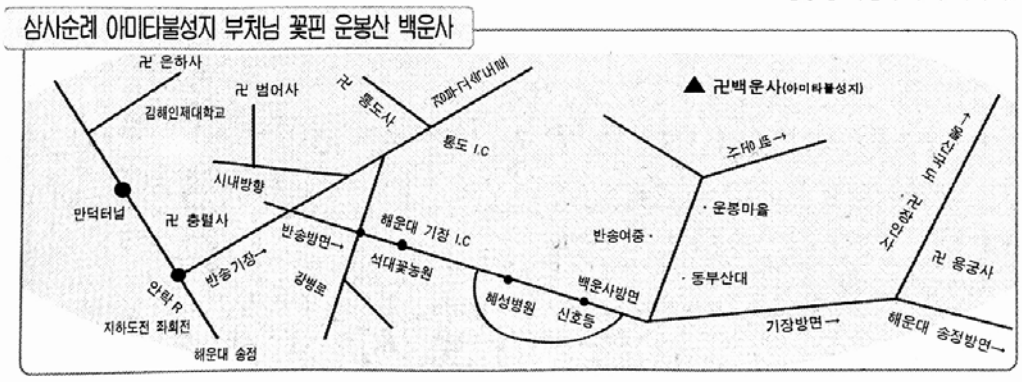
경진년(경진년) 섣달 보름날 오후(밤)12시 가량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넋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뼉치며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빛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에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금공양을 올려야 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보살님 한단부분에 개금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선,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금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금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환하게 빛쳐오므로 발견하게 되었다. 개금불사를 추진해야 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화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신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바라고, 국가의 전륜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삶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 합시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합장

삼사순례 아미타불성지 부처님 꽃핀 운봉산 백운사



※ 대형차량(버스)은 동부산대 입구에서 하차하십시오.(백운사 봉고사 운행 이용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 운 사** TEL 051-542-4630

선 무 도 여 름 수 련 회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1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1주, 2주, 1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단체 위탁연수)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다도, 한국무용)
- 동 참 금 : 학생 (1일 - 2만 5천원, 1달 - 60만원) 일반 (1일 - 3만원, 1달 - 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 746-0172

〈단체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없이 입산 불가〉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1천 5백년 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자연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일 과 표

4시 - 기상, 예불 (불참시 3천배	참회 및 접대중이 1일 금식)
5시 - 좌선	14시 -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 (학생)
6시 - 조깅, 등산	16시 - 운력(농장 채소 가꾸기, 청소등)
7시 - 아침공양 (발우 공양)	17시 - 휴식, 산책 (행선)
9시 - 오전 수련	18시 - 저녁 공양
11시 -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 - 예불 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13시 - 독서와 사색	19시 30분 - 저녁 수련(일반인)
	21시 - 점호 및 취침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선무도협회 대금강문 선무도대학
☎ 054)744-1689 홈페이지 golgulsa.com sunmud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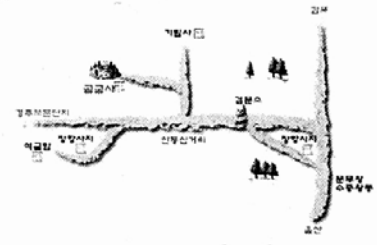
윤달 삼사 순례는 아미타불이 계신곳으로





골굴사는 1천5백년전 신라시대에 마애아미타불(보물 581호)과 12처 석굴이 조성되었으며 인도의 아잔타와 중국 돈황의 축소판이라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석굴사원 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천오백년 미소가 중생들의 삼세업장을 소멸하고 극락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거리에 지장기도로 유명한 기림사와 오어사, 동해의 문무대왕 수중릉과 감은사지, 석굴암 등은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내에 있는 선무도 대학과 수련모습을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자비 베풀고 신심 다지고

PC통신 불교동호회 오프라인 활동 강화

나우누리 불우환자 돕기 사찰 바자
유 불 동 사찰참배 · 등지마을 봉사
하 불 동 철야정진후 구치소 위문

PC통신 불교동호회들이 온(On) 라인은 물론 오프(Off) 라인에서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나우누리, 유니텔, 하이텔 등 상용통신망에서 활동해 온 불교동호회들이 전국모임을 갖고 바자회나 위문법회를 열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 마을'(대표시샵 정재평)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려운 환자 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조계사 경내에서 펼친다. 지난해 12월부터 회원들의 애장품을 기증 받으며 바자회 물품을 모아 온 나우누리 불교등호회는 이날 수익금 전액을 박창민(6세) 군의 의안 교체 수술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 나라'(대표시샵 오기석)는 26일, 27일 경주 남산에서 전국모임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용장사, 칠불암 등을 참배하며 신심을 다질 계획이다. 부처님 나라의 봉사반은 29일 안산 둥지마을과 송암동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락, 공양, 청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한다. 또한 참선반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강남포교원에서 참선방을 운영하고 있고, 교리반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 동국대 불교학과 조용길 교수를 초청해 '아함경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샵 이성모) 강원모임은 5일, 6일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하고, 극락선원장 명정스님의 참선 지도와 부산 주례구치소 경비대원을 위문법회의 시간을 갖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하이텔 불교동호회의 부산 및 경상남북도 모임인 부경법회 회원들도 참여해 서로의 신심을 다졌다. 서울경기 모임은 13일 조계종 25교구 본사인 봉선사에서 야외법회를, 전라모임인 백제모임도 13일 해남 대둔사에서 정기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또한 충청모임도 18일 대전지역 전법도량인 백제불교회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의 제등행렬에 처음 참가한 나우누리 · 유니텔 불교동호회 모습.

이성모 대표시샵은 "오프라인 상의 활동은 인터넷 열풍으로 위축되고 있는 PC통신에서 불교동호회의 신행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이라며 PC통신 불교동호회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불어닥친 인터넷 열풍은 PC통신 이용자수를 반감시켰는데, 이로 인해 불교동호회의 회원 수 역시 약 20~30% 정도 감소됐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탐방 의정부 운전자 불자회

'장애인 손발' 수송 서비스

98년 창립…회원 4배 부쩍
사찰행사땐 교통정리

올해로 창립 3년째를 맞는 의정부운전자불자회(회장 류중채, 이하 '의정부운불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약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열성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행단체이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불자 30여 명이 모여 창립한 의정부운불련은 IMF 당시 회원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현재 회원 12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는 의정부 지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택시 3부제의 특성상 의정부운불련은 매월 마지막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의정부 포교원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애경사 돕기, 성지순례 등을 통해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의정부운불련은 자비 실천에도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 소재 사찰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교통질서 지키기, 손님에게 친절하기 등으로 참 불자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108대의 택시에 연등을 달고 행사 진행을 돕는 등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98년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의정부운불련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콜 서비스(031-876-7070)는 물론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병원까지 무료 수송도 해주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에는 '자비의 징검다리'라는 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나들이 행사도 가지고 있다.

최근 동두천, 일산, 구리 등 경기도 일원에 운불련 창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류중채 회장은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r@buddhapia.com



◇의정부운전자불자회는 지난 1일 108대의 회원 택시를 연등으로 꾸미고 의정부지역 제등행렬에 동참했다.

우리 모임에선

불자가수회 소년가장돕기



대한불자가수회(회장 장미화)는 13일 경기도 안산 서원호텔에서 소년 · 소녀가장 돕기 디너쇼를 열고, 안산 시청과 경찰서에서 추천한 양미화(경일고 1년), 김학균(원곡중 1년) 등 소년 · 소녀가장 5명에게 각각 일금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미화, 송대관, 김흥국, 김혜연, 남강수, 한명수 등 회원 가수 8명이 출연했다.

우리는선우 장애인 후원



우리는선우(이사장 박광서)는 13일 서울 명성여고 교정에서 제8회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주몽재활원, 유락사회복지관 등에서 나온 도우미와 장애인 4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게임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사불자련 임원수련

전국에서 모인 교사불자연합회 임원 100여 명이 신심을 다지며 청소년 포교의 원력을 함께 세웠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지난달 14일, 15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임원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상운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청소년과 포교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마련됐다.

농협불교회 원명스님 초청

농협불교회(회장 정용근)는 17일 서울 서대문 본부 대강당에서 5월 정기법회를 개최했다. 원명스님(조계사 재무부장)이 법문한 이번 법회에는 서울 지역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행자부 금산사 정기법회

행정자치부 불심회(회장 하재춘)는 18일 오후 7시 북한산 금산사에서 정기법회를 개최했다.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법안스님(금산사 주지)은 '공직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법문했다.



◇63빌딩 수족관을 관람하고 있는 백전초등학교 및 용소 분교 어린이들 모습.

꿈실은 벽지 초등생 서울나들이

청량리 기관차법우회 40여명 초청 견학

"와, 강치다!", "그림책에서 봤던 물 속에 사는 강아지야."

10일 오후 3시 여의도 63빌딩 수족관은 강원도 벽지 어린이 40여 명의 탄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 초청으로 서울 나들이에 나선 강원도 정선 백전 초등학교와 용소 분교 어린이들이 이 곳을 찾은 것이다.

아이들은 법우회의 '꿈과 희망을 실은 사랑의 열차' 행사에 초청돼 9일 오후 1시 524열차 편으로 청량리에 도착했다. 이날 '기관차 실물' 견학을 마치고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해 동물들에게 손을 흔들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벽지 어린이들의 서울 나들이는 청와대, 경복궁, 방송국, 남산타워, 전쟁기념관, 서울 종로 대각사 등을 돌아보며 12일까지 계속됐다.

이번 행사는 철도청, 청량리 기관차 승무사무소, 한국불교금강선원의 후원으로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가 마련했다.

오종욱 기자

인도 보드가야서 봉사활동

JTS 7월8일~22일…집짓고 나무심어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는 오는 7월 8일부터 22일까지 13박14일간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 보드가야 근교 둥게스와리 마을에서 국제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JTS는 인도 현민부락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집짓기, 동네 꼬마들 돌보고 씻겨주기, 망고나무 및 바나나나무 심기 등의 활동을 벌이기 위해 31일까지 해외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청년, 대학생 80여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3만원, 항공료는 90만원이며 현지 숙식 및 체류비는 무료다. (02)587-8756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게시판

알림

▲온라인 '왕따 상담실' 운영=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온라인 '왕따 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개설된 이 홈페이지는 친구 · 학교 · 이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다. 주소는 'http://www.cyberwangdda.or.kr'이다.

▲백제불교회관 홈페이지 개설=조계종 대전지역 전법도량 백제불교회관은 1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가상공간에서 대전지역 신행 및 직장 · 직능단체들의 활동의 토대가 될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cafe.daum.net/baekje/'이다.

강좌

▲김재일법사 기초교리=동산반야회는 6월 13일부터 3개월 과정의 불교교리 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이 강좌에는 '삼보설', '연기설' 등 총 13개 과목이 개설됐다. 매 강좌는 회장 김재일 법사의 강의로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02)732-1207

▲최고지도자 아카데미=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는 제1기 부산불교 최고지도자 아카데미를 연다.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부산불교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될 이번 아카데미는 '포교방법론', '설법론' 등 총 22 강좌로 구성됐다. (051)853-2021

모집

▲부모역할 수강생=목동청소년수련관은 '부모역할훈련'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소년 문제 예방과 자녀 이해를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8주간 진행된다.(02)2646-8341

▲이미용 봉사자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용 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미용 봉사는 주 1~2회 실시된다.(02)385-1351

▲해울학교 수강생=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해울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60세 이상 노인이면 수강 가능한 해울학교는 한글, 산수교실 등 14개 교실로 운영된다. 강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일간 진행된다.(031)455-0551

인터넷 회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동산 불교회관 개관 기념

육바라밀 대법회 · 수계식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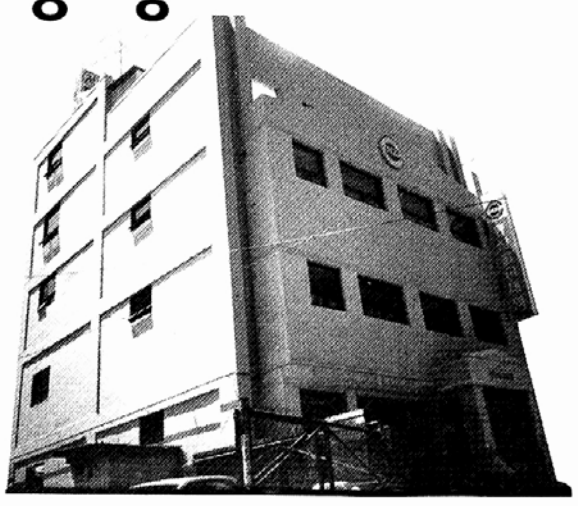
무진장큰스님

현대사회는 물신주의 쾌락주의의 만연으로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가치가 붕괴되고 가정과 학교가 파괴되고 있으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은 본연의 길에서 벗어나 탈선과 과소비 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 계각층에서 집단적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건전사회 · 정도사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회관 개관에 즈음하여 이 혼탁한 사회를 맑히고, 국민모두가 보살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대 가르침인 육바라밀 실천이 요구되는 이때에 한국불교에 큰 지도자를 모시고 육바라밀 대 법회와 실천을 다짐하는 수계식을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청화큰스님

일 시	내 용	법 사
6월 3일(일) 오후 2시	보시 바라밀	정락큰스님(용주사 주지)
4일(월) 오후 2시	지계 바라밀	박완일 법사(전 전국신도회장)
5일(화) 오후 2시	인욕 바라밀	월운 큰스님(봉선사 조실)
6일(수) 오후 2시	정진 바라밀	한정섭 법사(금강선원장)
8일(금) 오후 2시	선정 바라밀	인환큰스님(전 동국대교수)
9일(토) 오후 2시	지혜 바라밀	무진장큰스님(전 포교원장)
10일(일) 오전 11시	육바라밀 서원의 날 (수계식)	청화큰스님(성륜사 조실)



동산불교회관 개관식 : 5월 24일(목) 오전 11시

그 동안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을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 어른들과 동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회가 그 동안 꾸준히 전개해온 불교회관의 꿈을 실현하여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기치를 드높이며 시민을 위한 불교로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조계사 입구)
TEL : 02-732-1206~8/ FAX : 02-732-1207

노숙자 지친 몸과 마음 정성껏 치료

신행현장 선재의료회 서울역 봉사

노숙자들의 좋은 벗이 됨으로써 보리를 이루겠다고 원을 세운 사람들. 선재마을 의료회(회장 강경구)는 매주 수요일 저녁,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서울역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그들의 진료는 단순한 진료가 아니다. 바로 몸이 아픈 수많은 세간의 부처님들에게 모든 정성을 바침으로써 보리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수행의 한 방편이다.

16일 저녁 8시 30분. 선재마을의료회의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삶에 지친 노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연이어 들어온다. 1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꽉 들어찬 환자와 봉사자들이 뒤엉킨 속에서 약사인 최영옥 보살이 약봉지를 받아들고 나가려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약 복용법에 대해 이해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할아버지, 이 약은 점심때 먹고요. v자로 표시한 약은 꼭 저녁에 먹어야 해요. 바꿔서 먹으면 효과가 없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이날 의료봉사에 참여한 선재마을의료회 회원은 의사 2명, 약사 2명, 간호사 3명 그리고 서울역 무료진료소 운영회원 3명이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불교학생회 회원 3명과 서울간호대 학생 2명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99년 4월, IMF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사람들의 마음이 나락으로 가라앉았을 때 대불련 출신 의사인 강경구 양재수 김경현 씨가 주축이 돼 "불자로서 '보살행' '의료행' '지역행'을 하자"고 마음들이 모아지면서 선재마을의료회(www.senjae.com)가 창립됐다. 회원은 의사 36명, 치과의사 27명, 약사 3명, 간호사 40명, 한의사 2명, 도우미 및 임원 15명, 진료지원 학생 7명.

선재마을의료회는 창립 이후 강남 봉은사에 진료소를 개설하고 매주 일요일 봉은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극빈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모두 90차례에 걸쳐 외국인 5천여명 등 총 1만여명을 무료 치료했다.

매주 수요일 무료진료
일요일엔 봉은사서
99년4월 봉사 시작
의사등 회원 130여명

여기에다 올해 4월 4일부터는 서울역에도 노숙자 무료진료소를 개원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3시간동안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총 200여명의 서울역 노숙자를 진료했다. 서울역 노숙자진료소에는 재진환자가 30%이상을 차지할 만큼 노숙자들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가 운영하는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노숙자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고있다.

노숙자 장진권씨(77세)는 "타종교에서도 다른 날 서울역에서 의료봉사를 하지만 불교계에서 하는 이곳에서 치료받고 싶어 저녁도 굶고 왔다"며 "이곳에 올 때마다 불교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집에 돌아가면 절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노숙자를 간이 침대에 눕혀 놓고 진료를 한 뒤 꼼꼼하게 병에 대한 상담까지 곁들이던 문동규거사(상계동 문동규내과 원장)는 "하루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상계동에서 서울역까지 시간에 맞춰 와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심으로 환자를 돌보니 마음이 편하고 흐뭇하다"고 말했다.

김종화거사(대림동 김종화이비인후과 원장)도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고 답한다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강진희(서울간호대 2년)양은 "진료현장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운 곳을 찾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재마을의료회 서울역 노숙자무료진료소 운영을 총책임지는 장범중 · 송미기부부는 "서울역 무료진료소는 개인들을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중생 구제법 중 하나이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역 400여명의 노숙자들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하루살이로 살라

우리들 모두는 수행자다. 세속의 인연을 떨쳐버리지는 않았다 해도 삶의 목표를 진화에 두는 한 우리는 모두 수행자다. 아니, 세속에 발이 묶여 도무지 도(道)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해도 삶이 곧 진화냐 퇴화냐의 갈림길일진대 우리 모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수행자일 수 밖에 없다.

수행자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왜냐 하면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밭에 뿌린 마음의 씨앗은 영겁을 두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내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과보가 돌아 올 것이고 게으른 마음을 심으면 보잘것 없는 결과가 돌아올 것이며,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 순간인들 방심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매 순간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씨앗, 가장 질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 있는 동안에 괴로운 일은 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고 오로지 즐거운 일, 흡족한 과보는 내 것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물론 그것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라도 가능한 일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순간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선행이고 참회이면 된다. 지금 여기가 그대로 수행처면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하루살이'로 산다. 하루살이라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찰나주의 · 향락주의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식의 삶을 산다. 지금 여기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이 산다.

수행자들과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 점에서 다르다. 우리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생각하고 내일에 희망을 건다. 내일이면 사정이 더 좋아지겠지, 오늘은 여건이 적당치 않으니 내일을 기약하자 · 는 식에 더 익숙하다.

그러나 내일은 없다. 오늘이 있을 뿐이다. 내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결과로서 내일이지, 오늘과 무관한 내일은 없다. 고로 다가올 모든 내일은 오늘 속에 있다. 오늘 최선을 다 하면 최선의 내일이 그 속에 있고, 오늘 방일하면 흐트러진 내일이 또 그 속에 있을 뿐이다. 수행자는 그래서 하루살이로 산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범죄없는 불국토 만들기'
경찰포교 체계화 필요



성인스님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피라."

〈중아함경〉에서는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이 필수적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법에 따라 치안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여년전부터 경승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경찰포교는, 경찰관들의 신행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각급 유치장의 유치인 교화 등으로 이어져 깨달음의 사회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사업과 지역내 불우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통해 우범자와 비행청소년을 계도하면서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승단 창립 14주년 계기
15만 경찰 부처님품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15만 경찰관들을 부처님품으로, 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자비 · 보살행으로 인도하는 경승들의 활동은 민생안전과 사회질서 구현에 많은 이바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경승 출범 당시 가졌던 원력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몇명의 스님들이 어떤 자격으로 경승위촉을 받았는지, 경승들이 경찰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경승단 차원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승에 대한 교육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일부 경승들은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경승이라는 명함에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 포교의 대원력은 사라지고 일부 경승들은 포교능력과 관리업무능력을 상실해 경찰포교가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선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경승단은 창립 14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20년전 경찰포교에 대한 초발심을 상기하면서, 경승단을 창단한 그때 그 원력으로 새로운 전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종단과 불자들은 무관심에서 벗어나 경승활동을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경찰포교 조직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폭력과 범죄가 없는 사회, 걱정과 불안이 없는 사회, 따뜻한 인간미와 정이 넘치는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 경승들도 맑고 깨끗한 사회, 희망이 가득찬 나라를 이루는데 이바지해야할 과제가 어깨위에 지워져 있다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을 건너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인도하면 뒤따르는 많은 소들이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듯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스님들이 전륜성왕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웃들이 온갖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온 세상의 낱낱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량겁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충만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체 하지 않으리라.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도 그 일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듯이,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이어받아, 직접 자비의 실천행을 펼쳐봅시다.

신행 캘린더

5월 23일 (수)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불교방송 신행상담실을 진행하는 지묵스님을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02)719-1855

5월 24일 (목)

■조계사 신중기도 철야법회=조계사는 오후 8시부터 25일 새벽 4시까지 대웅전에서 신중기도 철야법회를 봉행한다.(02)735-3724

5월 25일 (금)

■대전지역불자언론인회 창립법회=대전지역불자언론인회는 오후 7시 백제불교회관에서 장곡스님(백제불교회관 관장, 갑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창립법회를 개최한다.(042)483-8214

5월 26일 (토)

■불기협 가족체육대회=한국불교기자협회는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농장 야구장에서 춘계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2)722-4162

■유니텔 불교동호회 전국모임=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 나라는 경주 남산에서 전국모임을 개최하고, 용장사, 칠불암 등 경주 남산 일대 성지순례를 갖는다.(02)3479-4508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보조사상연구원은 오후 1시 동국대 제1세미나실에서 제36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02)733-5335

■(사)맑고향기롭게 선(禪) 수련회=(사)맑고향기롭게는 오후 3시부터 27일 오후3시까지 서울 길상사에서 선 수련회를 갖는다.(02)741-4696

■군포교워크숍=조계종 포교사단은 오후 4시 서울 봉은사에서 군포교 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7-7588

5월 27일 (일)

■진감선사 다례재=13교구 본사 쌍계사는 오전 10시 진감선사 부도 앞에서 진감선사 다례재를 봉행한다. (055)883-19015

5월 29일 (화)

■능인선원 동작구청가정법회=능인선원은 오전 10시 30분 동작 국립묘지에서 동작구 총가정 법회를 봉행한다.(02)847-9462

■동국대 춘계법회=동국대는 오후 4시 중강당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직지사 조실)을 계사로 모시고 춘계법회를 봉행한다. (02)2260-3114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충구포(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박태원 교수의 37

불교로 보는 인생

'교육의 길' 제대로 가고있나

가르치는 입장에 선 지 벌써 6년째로 접어든다. 강사 생활을 합하면 10년도 훨씬 넘는 교육 경력이지만, 책임 있는 역할을 의식하고 교육에 임한 것은 울산대 철학과에 소속되고부터이니 그렇게 된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자들의 소중한 정성이 새삼 안겨온다. 그 정성 받아내는 내 표정이 이제는 제법 능숙하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웃음을 흘린다. 나는 교육의 길을 얼마나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일까.

대학원 박사 과정 시절, 처음 강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듯 하여 그 의욕 과잉이 학기 내내 나를 흥분시켰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한 설익은 지식들에 의욕 하나로 열정을 담았다. 적어도 그 순수한 열정만은 전달되었던 것 같다. 학기말 시험답안지와 리포트에는 고무적인 추신들이 적혀 있었다. 자기 도취에 젖어 열악한 대학강사의 현실은 조금도 의식되지 않았다. 인생에 대한 철학적 해안들과 나의 생각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실로 황홀하였다. 그 첫 학기의 열정은 초발심의 순수와 의욕을 가득 담고 있었다.

초발심의 순수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법인가. 다음 학기부터 벌써 매너리즘의 악취가 슬슬 풍기기 시작했다. 과도한 열정 뒤의 허탈 비슷한 무력감도 느꼈다. 어느 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다. 교육은 독백이 아닌 대화. 학생이 선생을 있게 하고 선생이 학생을 세우는 연기(緣起) 속에서, 선생과 학생은 상대 존재를 가능케 하며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다. 학생은 선생에게서 눈을 틔우고 선생 역시 학생을 통해 자신을 보며 또 배운다. 교육현장은 그렇게 관계의 한 몸이다. 그러나 나는 지나치게 나에게 몰두하고 있었다. 강의의 주역은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에게 학생들은 나의 모노드라마와 독백을 보며 감동의 갈채를 보내야 할 관객으로 밀려나 있었다. 반복되는 일인칭 연극에다가 신선한 열정을 계속 퍼붓기란 어려운 법. 그런 모노드라마의 순수와 열정은 첫 회 공연으로 바래기 마련이다. 교육 매너리즘의 원천은 교육의 연기적 실상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 있었다.

6년 전, 소속감과 책임감이 선명해진 입장이 되어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교육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생각에 잠겼다. 나의 학생 경험을 반추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포착되었다. 성숙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들은 한결 같이 제도권 밖에서 만났다. 제도 교육이 제공한 스승 인연들도 분명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은혜이며 훌륭한 스승들이었지만, 마음 깊이 각인되고 존재를 뒤흔드는 은사 인연들은 제도권 교단 밖에서 뵐 수 있었다.

제도권 교단 인연들은 한결같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인간'으로 보였다. 항상 '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미숙한 나를 내려다보는 다른 세계 사람들'로 여겨져 감히 진솔한 인간적 대화를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성의 스승, 그 분들에게서는 그런 벽이 없었다. 나이의 고하를 떠나 언제나 같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었다. 함께 걸으며 도란도란 삶을 이야기하는 길동무로 느껴졌다. 자연스러운 권위가 그래서 빛났고 깊이 존경할 수 있었다. 제도권 사제 관계는 자칫 권력 질서를 반영하곤 하지만, 그 분들에게서는 조금도 권력의 체취를 맡을 수 없었다. 인간, 나아가 생명이라는 보편성 앞에 그 분들은 활짝 열려 있었다.

'언제나 인간으로 만나리라. 지식의 권력적 속성과 유혹을 떨쳐 버리리라. 교조의 권좌를 외면해 버린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리라. 모든 권력적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불법의 공능을 교육 현장에서 검증해 보리라.'

교수 사회에 들어서며 이렇게 초발심을 다시 가다듬었다. 그러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길동무로 다가오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이 솟아올랐다. 성실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대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교육 독백아닌 대화
선생과 학생 '길동무'

▩ 울산대 철학과 교수

언행 살피고 죄 참회하는 수행

참불자의 길 자자 · 포살

일정한 날을 정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의식인 자자(自恣)와 포살(布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갈등과 불화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자자와 포살은 더없이 필요한, 자기를 점검하는 수행법이다. 〈대지도론〉 제13권을 보면 "성심(誠心)으로 참회해 몸과 입, 마음을 청정히 하며 팔계(八戒)를 받아 행하는 것을 포살이라 한다. 재가 신도가 육재일(六齋日)에 팔재계(八齋戒)를 받아 지니는 것을 포살이라 한다"고 해, 재가 신도가 한달에 6일 동안만이라도 팔재계를 지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볼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포살법회에 참여하거나 주재하면 일상은 물론 신행생활에 도움이 클 것이라게 포살법회를 하고 주재하는 수행자들의 조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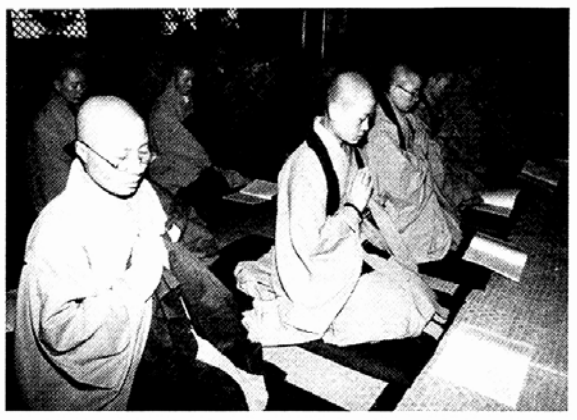
조계사 재무 원명 스님은 "승속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부처님전에 반성하고 참회할 일은 수없이 많이 생긴다"며 "일정한 날을 정해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살피는 참회의식은 건강한 신행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수행방편"이라고 포살법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님은 또 "포살법회는 사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열 수 있다"며 "일정한 날을 정해 가족 구성원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신심고취는 물론 가정 화목에도 큰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포살 법회를 적극 권했다.

포살을 하는 방법은 원래 포살당이나 혹은 도량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계율에 능한 스님이 250계(戒)의 조문집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의 한 조목을 3번씩 읽으면 계율을 어긴 자가 다른 스님들에게 고백 참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 사찰에서 주로 음력 보름에 포살 법회를 열어 참여하는 재가불자들이 수계받을 때 서약했던 오계(五戒)를 독송하고 자신의 수행생활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참조〉.

지속적 자기점검 가능
가족 포살법회 바람직

포살법회가 열리는 사찰

사 찰	시 간	전화번호
조계사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02) 732-2183
불광사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02) 413-6060
봉은사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30분	(02)511-6070
법안정사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02)_653-4888
법주사	매월 음력 30일 오전 10시	(043) 543-3615
혜원정사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051)866-7771
정토법당	수시	(054)772-1950



◇한달에 두 번씩 모여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포살 법회. 사진은 조계사에서 열린 포살법회 모습.

안거가 끝날 때 치르는 의식인 자자는 스님들이 각자 스스로 안거기간중에 자신에게 범계(犯戒)의 허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지적해 달라고 동료 스님들에게 청하는 의식이다. 자자 의식의 진행은 차례가 된 사람이 대중 앞에 합장하고 나서 "여러분, 저의 행위와 언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만약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지적할 것이 없으면 대중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도반들 간에 허물을 서로 지적해 주고, 지적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승가 본연의 청정성을 유지하자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자자 의식은 목련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자의 날에 청정한 대중을 공양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했다는 목련구모의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불교 시대부터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수행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⑭ 부추밀에 대한 답서(3)

선은 생사없는 청정심을 깨닫는 것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편지에 말씀하시길,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녕되이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사람이 자기의 귀를 막고 크게 소리치면서 남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처럼 스스로 장애를 만드는 일일뿐입니다. 만약 생사심(生死心)이 부수어지지 않으면, 매 순간 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아직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겠습니까? 〈열반경〉에서 '광액(廣額)이란 백정은 소 잡는 칼을 놓자 바로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그가 어찌 고요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해왔겠으며, 그가 어찌 초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대가 이것을 본다면 분명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그는 옛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오늘날 사람은 이런 역량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뛰어남을 믿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짓입니다. 우리 선종(禪宗)에서는 초보자냐, 오래 공부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고참이나 선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참으로 고요함을 바란다면 반드시 생사심을 부수어야 합니다. 애써 공부하지 않아도 생사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신 고요함이란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스님의 글 가운데에는 선을 언급하면서, "밖으로 경계에 따라가지 않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한다"라거나 "마음이 마른 나무나 돌 같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이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모두 방편의 말이므로 문자그대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 방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그렇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경계를 따라 마음을 헐떡이는 것이다. 그것은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나누어 취사선택하는 분별심이기 때문이다.

번잡한 세간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 고요히 앉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것이 바로 선공부의 효과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대체로 이러한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고요하고 한가함의 즐거움에 빠져 그것을 탐닉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 견해도 짓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생로병사(生老病死)나 흥망성쇠(興亡盛衰)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현실로 닥쳐오면, 그들의 고요함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다름없는 고통을 당하고 만다. 그 까닭은 이들의 공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선이란 어떤 특정한 경계에 머물러서 그것을 즐겨 취하고 그와 다른 것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선은 그렇게 사량분별하고 취사간택하는 생사심의 실상(實相)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사심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요,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마음이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제 좋아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은 마음을 닦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오염되는 짓이다. 이런 식의 공부는 아무리 오래 하여도 집착만 키울 뿐이다.

실재로는 아무리 잡념이 많고 아무리 집착이 심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마음 그 자체는 아무 잡념도 없고 아무 집착도 없는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잡념이나 집착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은 실재하는 것으로 되어서 번뇌를 만들어내지만, 마음의 실상을 알면 잡념이나 집착은 다만 마음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허깨비일 뿐이고 그저 늘 변함없이 깨끗한 마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선의 공부란 사량분별하고 취사선택하는 생사심을 버리고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사심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생사심이 본래 생사(生死) 없는 청정심(淸淨心)임을 깨닫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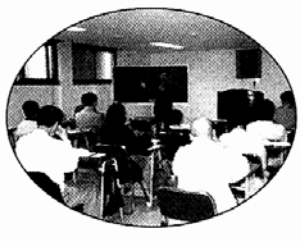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입학안내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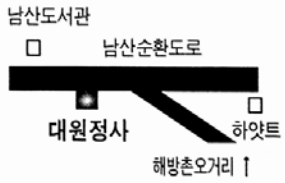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최봉수교수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숱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어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를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이렇게 들었다

스승과 제자

"사자상승 정신 되새기자"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 받드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이요, 둘째는 존경해 봉사함이요, 셋째는 존중해 기대함이요, 넷째는 가르침을 바르게 따름이요, 다섯째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잘 수지해 잊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중심경>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업시간에 연로한 동료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을 나무라던 교사가 학생들 10여명으로부터 팔이 비틀리고 넘어진 채 마구 짓밟혔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진상조사를 했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학교측은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쉬쉬했지만 폭행 당한 교사는 폭행을 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이를 부인한 학생들의 태도를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워 사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교사를 짓밟았다는 것은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라지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서울시내 536개 초등학교 중 216개교가 이날 휴교를 했다. 이유는 촌지를 둘러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승의 날 휴교가 올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99년과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교장들이 모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휴교를 한 바 있다.

교사들에게는 생일이나 마찬가지인 스승의 날에 우리 교사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며 우울한 하루를 보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조차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사미위의경〉에 "제자가 스승을 모시고 갈 때에는 발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을 받들겠다는 자세를 나타냄이다. 제자는 마땅히 스승 앞에서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스승의 꾸짖음에 대꾸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교권추락, 교실붕괴, 교육위기로 진단되는 오늘날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특히 교권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한 번 추락한 권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의 백년대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스승에서 제자로 진리의 법이 이어질 때 이를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 한다. 스승의 권위와 제자의 존경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자상승'의 정신을 가다듬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와 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우리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한명우 기자

왜 사람들은 '친구'에 열광하나

물자 세상보기

압제적 폭력 굴복하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통쾌함을 맛보았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 · 정치학
당대비평 편집위원

가난과 고통 속의 아이들을 미화한 '천국의 아이들'보다 짠 점수를 준 평론가에 섭섭했다. 별 두개 반이라니! 여전히 관제 미학이 스며든 대종상에서도 '친구'는 '하루'에 비하면 거의 집짝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대중은 친구를 찾는다. 육백만이 친구를 보러 갔다. 쉬리라는 '일부 일처제' 물고기를 앞지르고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섰다. 왜 사람들은 친구에 열광하는 걸까? 다시 한번 우정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줘서? 아니면 우정의 야비함과 덧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혹자는 복고 열풍이라 한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환상이야 항상 있는 현상 아닌가?

복고주의는 매년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해석이다. 20여년 전에도 그 말을 따갑게 들은 적이 있다. 퇴행적 정서라고 남들이 비난하건 말건 자고로 나이든 자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대해 미련을 품고 과거를 미화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뉴런세포는 절대로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현재까지의 우여곡절과 현재 갖고 있는 가치관 및 욕망이 과거를 재구성하고 걸러낸다. 사실 남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 사항인지도 모른다.

나는 다른 자리에서, 친구 열광을, 성평등주의 대세에 밀려 포복하고 있었던 가부장적 정서를 자극하고 그것을 무대 위로 끌어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했다.

네 명의 사나이들이 펼치는 우정의 세계에서 완전히 여성은 배제되어 있다. 그 흔하디 흔한 섹스 장면도 볼 수 없다. (영화 속의 비디오로 잠깐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그것은 순수한 남성성의 분출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남성적인 영화를 본적이 있는가? 남자들은 우정을 위해서 혹은 우정의 배반을 위해서 섹스도 거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수한' 남성영화에 여성이, 아줌마들까지 열광한 이유는? 아마도 여성성이라는 차별적 젠더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조폭들의 원시적 폭력의 분출과 금기 없는 욕설은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왜 10대 (사실은 입장 불가 대상이지만) 20대 젊은이들까지 흥분하는가? 내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준석과 동수가 교사의 부당한 폭력과 폭언에 대항하여 대드는 장면, 트로피로 가득찬 복도의 진열장을 몽둥이로 때려부수는 장면이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잘 치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위선에 저항하지 못하고 적당히 눈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교사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압제적 폭력에 굴복하며 비겁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인들은 이 장면에서 통쾌감을 맛보았다. '결손가정'에서 자라온 이들이, 아버지의 특이한 직업 때문에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이들이 학교 안의 폭력에 정면으로 저항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열 린 마 당

21세기 문명의 갈등과 화해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문명사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1세기 문명사회의 갈등과 화해'를 주제로 11일 열린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발표회는 문명간의 충돌이나 민족적 혹은 국지적 갈등 국면의 해소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 즉 남북통일과 종교간 갈등이 이 날의 초점이었다. '달라이 라마의 평화사상'(고형일 교수), '종교간의 갈등과 화해'(김진 박사), '남북통일문제와 불교'(법륜스님) 등 3개 주제발표를 요약했다.

"평화만이 평화창조 가능"



고형일 〈전남대교수 · 교육학〉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북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체로 진보적 지식인들이 평화의 외적인 조건에 눈을 돌린 데 비해 보수적 지식인들은 당위론과 국수주의, 폐쇄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왔다. 중도적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조망하는 입장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평화를 위한 내적, 정신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달라이 라마의 평화사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4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120만 명의 티베트인이 죽임을 당하고 세계문화유산인 불교가 파괴되었으며 청정구역이 핵실험의 대상이 되고 만 상황에서도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대한 비폭력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독립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비폭력주의를 주장한다. 즉 평화만이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달라이 라마의 평화사상은 전쟁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뿐 아니라 모든 중생을 돕는다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평화사상은 티베트 불교의 핵심인 '중도'에 기초하고 있다. 중도란 연기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현상사물들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파악한다. 평화도 그 씨앗이 뿌려지고 길러져야만 달성될 수 있는데, 달라이 라마는 그 씨앗으로 개인의 내적 · 정신적 각성 즉 특히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구인들이 평화를 전적으로 외적인 요인으로만 보는 시각을 교정해 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방지와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무장뿐만 아니라 수행자적 자세를 갖춘 지식인상이 신중히 탐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웃종교 인정할때 화해"



김 진 〈크리스찬 아카데미 선임연구원〉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문명의 흐름을 종교문명의 만남과 갈등을 중심으로 바라본 이후 세계 지성인들 사이에서 현 세계문명의 흐름을 '종교'라는 코드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종교간의 갈등은 단순히 기성화된 종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종교인과 그 종교의 내적인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종교현상이다.

이러한 종교간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그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재다. 이웃 종교들에 대한 무지가 종교간의 갈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부재는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고 또 귀결되기도 한다. 현상적으로 볼 때 종교간 갈등의 바탕에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단정지어버리는 오류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교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갖는 종교인의 공통된 정체성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각 종교의 다양한 모습을 다름으로 인정하되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 정체성에 대한 신뢰 속에 일치를 향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간의 우정을 형성해야 하고 또 공동의 실천적인 활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종교상황을 돌아볼 때 외국의 경우처럼 큰 규모의 폭력과 비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종교간 갈등의 씨앗들이 발아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는 화해의 활동을 어느 특정 종교나 종교지도자들의 행동영역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적인 종교인의 삶의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치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종교간 갈등의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하나의 평화운동이기도 하다.

"불교엔 통일의 지혜 있다"



법륜 스님 〈좋은벗들 이사장〉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단순한 과거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현재적 과제다. 이런 시대에 불교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을까?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던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태생에 의해 귀천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신분평등을 주장하셨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함으로써 남자에 종속되어 살 수 밖에 없는 당시에 여성에게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신라의 고승들도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삼국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몸소 앞장 섰다. 또한 원효는 승려의 지위마저 버리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통일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민중의 아픔을 치유하셨다. 용성과 만해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삼일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시고 갖가지 고통을 겪으셨고 또한 경전을 번역하고 포교당을 내고 유신론을 쓰면서 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셨다.

이렇듯 불교는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다. 근본불교의 연기론과 중도사상 그리고 대승불교의 공사상, 선불교의 견성성불, 원효의 화쟁 사상 등은 오늘 우리에게 갈등의 근원을 꿰뚫어 보고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다. 일체의 어둠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뒤쳐진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는 사상적으로 평화운동, 역사적 전통으로는 민족운동을 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불교의 장점을 잘 살려서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 가장 앞장선다면 민주화의 시대에 다 하지 못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일시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다. 종단은 행정적 뒷받침 외에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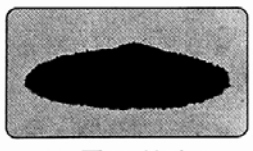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 ~ 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 ~ 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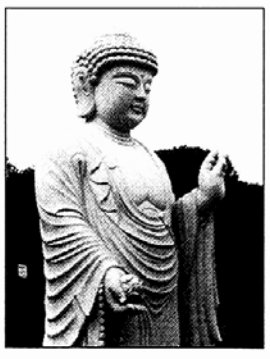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금주 : 김남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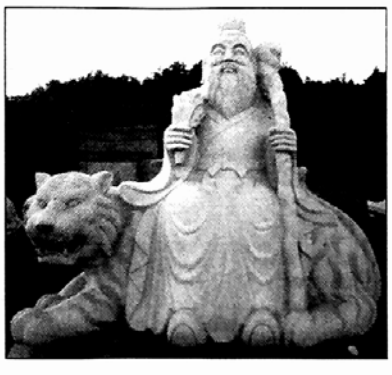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사·부·대·중

나무심기와 포교



혜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지난 식목일, 땅 냄새도 맡고 나무도 심을 겸해서 파주에 갔다. 몇 년 동안 이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지역 특성을 모르고 무조건 비싸고 좋다고 생각되는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나무의 절반 이상이 한겨울을 지나고 나니 죽어버리는 것 아닌가.

아무리 뿌리가 건실하고 잎이 무성해도 토질에 맞지 않으면 나무가 살지 못함을 깨달았다. 무성한 숲과 갖가지 꽃이 만발하리라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나무를 죽게 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인내가 필요함을 느꼈다. 뿌리가 튼실하게 땅에 박혔는지, 줄기는 부실하지 않은지 살펴야 하고, 증세에 따라 거름을 주든지 가지치기를 해주든지 하는 손길이 미쳐야 한다. 나무도 그러할진데, 하루에도 수십번씩 변화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인간관계야 오죽하겠는가.

시골 가서 농사를(주말농장) 지으려면 땅과 농기구만 있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농사짓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주민들과 사귀는 일이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기준에서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충돌 내지는 내내 섭섭하게 지내게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 말의 뜻을 새삼 새겼다.

여하튼 시골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도회지 사람이라고 무조건 멀리하면 두터운 벽이 생긴다. 주민들과 자주 만나 얘기하고 그 지역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인내를 가져야만 서울과 시골이란 거리감이 줄어들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디 가든 사람 사는 곳인데 배타성만 있겠는가. 얼마나 서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좋은 이웃이 되지 않겠는가.

포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나무처럼 무작정 심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그 지역과 이웃 그리고 타종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 곳에 맞는 포교를 서서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 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고 충돌 없이 이웃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융화할 수 있다. 토양에 맞는 나무라야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목탁소리

전통문화 파괴 안된다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조계사가 현재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 지어지고 있는 70m 높이의 삼성생명 수송동 사옥과 관련, 외벽을 전면 유리로 장식하는 문제와 15~16층의 일부를 축소해 건축하는 방안을 최근 삼성생명 측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16일 조계사를 방문한 수송동 사옥 건설 담당 실무최고책임자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경열 상무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은 미룬 채 "조계사가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다"고만 답해, 결과에 따라서는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계사가 외벽의 유리 장식과 조계사 방향의 15~16층 일부축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건물이 설계대로 들어설 경우 조계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신행생활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대웅전과 신축건물과의 거리는 불과 56m 밖에 안돼 현재의 설계대로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계사 대웅전은 이 건물에 막혀 위압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돼 사찰의 기능을 크게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리 외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조계사 인근은 인사동-운현궁-창경궁에 이르는 전통문화지역이 '문화벨트'로 지정돼 문화재 보존과 시민 녹지공원 조성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조계사 바로 옆 옛 우정총국 자리를 시민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조계사를 축으로 수송공원과 옛 우정총국을 잇는 공원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현대식 외장이 전통문화와 어울릴 리 없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조계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삼성측이 조계사의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통문화를 훼손하는 일만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조계사만의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되풀이되는 오류로부터의 해탈

최근 수행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활구참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17일 열렸다. 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 교수)이 연 뉴욕주립대학 박성배 교수 초청강연회. 불교대학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다향관 세미나실을 가득 메워 수행법과 화두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30여년 동안 미국에서 불교학을 강의,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원효학회 미국본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진리와 스승에 대한 100%의 존경, 즉 철저한 자기부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라고 진단하고 "활구는 난파(難破)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의 강연문 요약.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 특강
'활구참선, 무엇이 문제인가'

고려 중엽의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이 지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은 간화선(看話禪)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다룬 한국 최초의 선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논문이다. 이 글의 말미에서 지눌 스님은 다음과 같은 뼈아픈 '세상 한탄'을 털어놓는다. "모두들 참선한다고 야단이지만, 활구 참선(活句 參禪)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한탄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활구 참선'이란 말은 '살아 있는 참선'이라는 뜻으로 '죽어 있는 참선'이란 뜻의 '사구(死句) 참선'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말이다. 임제종의 근본정신을 따르면, 참선하는 사람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산 참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임제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산 참선'은 외면당하고, 썩은 환부와 같은 '죽은 참선'이 점점 더 만연하고 있는가.

> 활구는 난파의 현장
> 그것이 없으면 사구
> 활구 자체가 난파

불교를 해탈의 종교라고 한다면, 그 해탈은 윤회, 즉 되풀이되는 오류로부터의 해탈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참선이란 바로 윤회의 되풀이와 다를 바가 없다. 참선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참선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참선하는 이들을 보면 이것저것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지치면 졸고, 그러다가 잠이 깨면 또 다시 상념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참선은 바로 죽은 참선이다.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았을 것이다. 선주 선장 설계자 그리고 이 배를 탄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배는 폭풍우에 난파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 또는 문제를 알고 있으며 대책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난파당해야 한다. 활구는 난파의 현장이다. 그것이 없으면 사구이다. 활구 자체가 난파이다.

왜 사람들은 윤회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선승들의 대안은 바로 활구 참선이다. 그들은 윤회의 근본원인을 산 참선과 죽은 참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윤회의 근본원인을 인간의식의 부자유에서 본 것 같다. 인간의식의 부자유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틀과 맞물려 있다. 언어의 틀은 의식의 틀과 항상 맞물려 있다. 언어의 분석적인 성격과 이분법적인 경향은 그대로 인간의식의 분석적이고 이분법적인 경향과 맞물려 있으며, 이것은 또한 인간의 가치관 성립과 신념 체계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박성배 교수

1933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62~69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77년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교수 부임, 한국학과 주임 역임. 뉴욕주립대 '한국학연구총서' '한국사상' 편집인. 97년부터 동국대 석좌교수, 국제원효학회 미국본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원효 전서의 영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저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서술적 목록' '불교의 믿음과 깨침의 관계 연구'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론' '체용의 논리' 등이 있다.

선승들은 말길이 끊어지고, 뜻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툭툭 끊어지는 것이 곧 활구 참선이라고 한다. 참선을 한다면서 말길, 뜻길, 마음길이 뚜렷하다면 그것은 참선이 아니다. 사람들은 왜 참선을 한답시고 앉았으면서도 활구 참선이 아니라 사구 참선을 하게 되는가. 화두의 의미를 캐기 때문이다. 의미를 캐고 있는 한 말길이 생기기 마련이다. 말길이 생긴다는 것은 곧 자기의 업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신문이나 잡지에 자주 나타나는 화두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라는 말과 천양지판으로 다르다. 눈을 씻고 보아도 활구 참선하는 이는 보이지 않고, 천하가 사구만을 불들고 있다. 모두가 말길과 뜻길과 마음의 길에 사로잡혀 있다. 있는 것은 연장뿐이고, 즉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끊어짐이 없이는 깨침도 없다. 사구는 화두가 아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화두 없는 시대이다. 난파가 없기 때문이다. 활구 참선의 종교적 성격과 신앙적 차원이 사라지고 말았다.

활구 참선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제일 먼저 화두가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방법이랄지, 자성을 깨치고 무상대도를 성취하는 길이라는 생각에는 이미 의식의 분열이 있다. 현재와 미래가 분열되고, 화두와 일상이 분열된다.

> 시대맞는 화두 운운
> 지적사색 산물일뿐
> 여일한 선은 '몸참선'

요즘 일부 선학자들이 옛날 화두는 새 시대에 맞지 않으니 새 시대에 맞는 새 화두를 개발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도 모두가 화두를 방법으로 보고 하는 소리들이다. 한마디로 화두를 방법으로 보는 것은 지적 사색의 산물일 뿐이다. 화두를 어떤 목적 성취의 방법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화두 참선에서 종교적인 성격을 실종시켰다.

여일한 참선은 '몸 참선'이다. 겉모습을 꾸미고, 속으론 의미를 찾으며, 몰랐던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반짝거리는 참선은 '몸짓 참선'이다. 이러한 '몸짓 참선'은 겉보기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몸 참선'을 할 때 참선은 종교적인 성격을 되찾게 되고, 화두는 사구가 아니라 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악 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의 "어디서 온 물건인가"라는 물음을 8년 동안이나 붙잡고 씨름했다. 진리와 스승에 대한 100%의 존경, 이는 곧 철저한 자기부정이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7일 열린 박성배교수 초청 '활구 참선, 무엇인가' 주제의 특별강연회.

통도사 삼신불탱화 조성
석채시주 동참 안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보물 제1042호인 대광명전 후불탱화를
석채물감을 사용한 전통기법으로 조성하여
천년 후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채색시주를 동참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탱화조성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선근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동참방법 : 석채물감 10g 기준
동 참 금 : 10만원
접 수 처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전
문의전화 : 055)382-1001, 384-0010

* 접수된 물감은 탱화조성에 직접 사용되며, 다라니가 인쇄된 배접지에는 축원문을 기록하여 탱화 조성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불사 동참자 1,000분에 한하여 자신이 시주한 석채가 담긴 순은 옴자메달을 드립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신허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통도사성보박물관
무료참배 안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상 괘불을 친견할 수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윤사월에 적멸보궁을 참배하고자 하는 신도단체에 한하여
박물관을 무료 개방코자 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 간 : 2001년 5월 23일~6월 20일(윤달 한달간)
참배기간 : 오전 8시~오후 6시
대 상 : 전국 사찰 및 신도단체
문의전화 : 055)382-1001, 384-0010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 최첨단 유물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사찰과 불자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문화재를 기증·기탁받습니다.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⑨

이번 호부터는 세 번째 도리천궁(忉利天宮) 법회에 참여하기로 한다. 약찬게의 '六六六四及與三'의 세번째 '六'에 해당한다. 따라서 6품(제13 승수미산정품부터 제18 명법품까지)이 여기에 속한다. 첫째 승수미산정(품昇須彌山頂品)을 보면서 이런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수미산 꼭대기는 사바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뜻한다. 바로 하늘사람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화엄에서는 설법 장소가 지상만이 아니다. 도리천궁과 야마천궁을 비롯하여 도솔천, 타화자재천궁에서도 설법을 한다. 인간과 천상을 비롯한 삼계의 모든 중생이 청중인 셈이다.

제13 승수미산정품이다. "그때에 여래의 위신력으로 시방 일체 세계 낱낱의 4천하 염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여래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셨는데 각기 보살 용이 비를 내리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현생에 항상 조심하고 선정을 닦아야 다음 생에 즐거움이 충만한 천상세계에 나는 줄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갠지스강의 넘치는 물은 하늘이 인간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축복으로 알고 항하(恒河)를 신앙의 상징으로 이해하여, 아무리 어렵더라도 평생에 한 번은 항하에 가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모든 신앙과 예술, 문화가 여기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모두가 항상 직접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靡不自謂恒對於佛)고 믿는 것은 불교 신앙의 기본이 될 것이며, 과거 부처님의 수행도량이었다는 정신을 되살리는 데 불교인이 모범이 되어야 하리라. 덧붙여서 하늘과 강이 이처럼 친근한 종교는 환경문제에 가장 솔선하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며,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나라가 아닌 온누리가 부처님도량이 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후손에게 훌륭한 전통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佛從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인용한 부분은 처음과 마지막 게송을 소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부처님이 좌정하시니 그 곳이 가장 길상한 곳이 되었다는 말이다. 길지명당(吉地明堂)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살면 그 곳이 가장 좋은 곳이 된다는 뜻이리라. 그래서 신라인들은 황룡사를 창건하면서 7곳의 명당(七處伽藍地)을 정하고 이곳이 과거불인 가섭부처님께서 도를 닦으시던 길지라 하면서 신라인들의 마음 속에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던 것이다.(遺事권3 迦葉佛宴坐石)

불교의 세계관에서 하늘은 우리 인간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기독교에서처럼 중생을 지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들은 천상 음악으로 이해하였고, 먹구름이 모여 큰비를 내리면 천상과 인간을 오가는

누구나 늘 부처님 대하고 있어

가섭불 道 닦던 이땅 불국토로 가꾸자

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스스로 이르되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노라고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靡不自謂恒對於佛) / 그 때에 세존께서 일체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不離一切菩提樹下 而上昇須彌山)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셨다."

여기서 모든 중생은 모두가 자신이 바로 부처님을 늘 친견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점과 세존은 항상 중생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온갖 곳에 모습을 나투시어 설법을 하신다는 점이다. 게송을 보자.

"기-섭여래께서는 큰 자비를 구족하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고로 이 곳이 가장 길상하나이다(迦葉如來具大悲 諸吉祥中最無上 彼佛從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 연등여래께서는 크신 광명을 가지셨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고로 이 곳이 가장 길상하나이다(然燈如來大光明 諸吉祥中最無上 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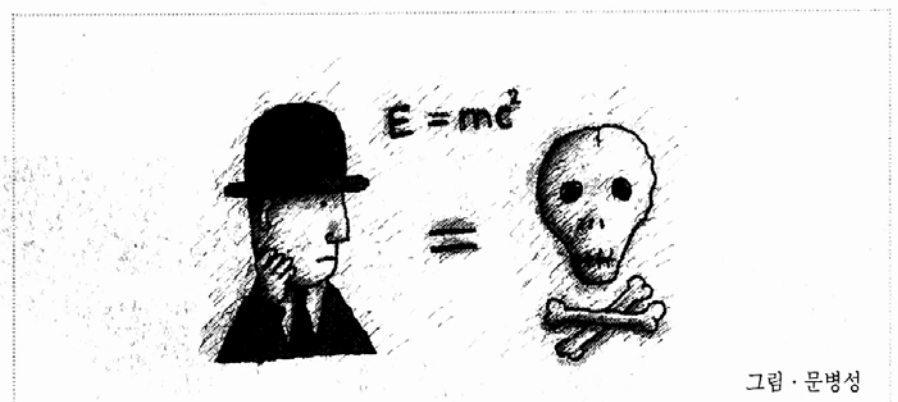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불생불멸 부증불감을 입증

불교와 과학 〈28〉

아인슈타인의 $E = mc^2$ 이라는 자연법칙의 공식이 있음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 공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물질과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등가여서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간이 찾아낸 최고의 자연법칙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활자로 찍혀 있는 마침표 하나에만 은하계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수의 양성자가 들어 있는데, $E = mc^2$ 아인슈타인 공식에 의하면 그런 양성자 하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이 200 MeV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현대불교신문 한 장의 질량은 어림잡아 전 세계 인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물론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고도로 불안정한 상태의 우라늄이나 플로토니움 같이 질량값이 큰 원자만이 아인슈타인 공식을 현실에서 응용하는데 쓰일 수 있다.

$E = mc^2$

질량-에너지는 하나
모습 바뀔뿐 총합 일정

그런데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이 흥미롭다. $E = mc^2$ 아인슈타인 공식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를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법칙이라고 말한다. 질량과 에너지는 하나이고 가시적인 물질과 비가시적인 에너지가 하나라는 뜻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200년 전에 이미 화학자인 라부아지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것이다.

라부아지에는 20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을 금속의 녹이 나는 실험 관찰에 몰두하면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 그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녹이 슬기 이전의 금속과 녹이 난 후의 금속의 질량을 정밀한 저울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녹이 스는 현상은 금속 산화현상으로서 일종의 화학반응이다. 금속이 녹이 슬면 슬수록 그 원래의 금속의 질량은 당연히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녹이 슬면서 나오는 산화열을 고려하고, 녹의 질량 그리고 남아 있는 금속의 질량을 합하면 원래의 금속 질량과 같다는 실험값을 얻어내었다. 결국 화학반응 이전과 반응과정 이후의 전체 질량의 값은 같다는 결론을 라부아지에는 내렸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라부아지에의 생각을 이어 받았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체계를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폐쇄된 체계가 아니라 광대한 우주 영역에 펼쳐 놓았다.

에너지 보존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새로이 생성되는 것이 없이, 그 전체 총량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물질 체계에서 물질이 없어졌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 체계로 옮겨진 것일 뿐이며, 새로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체계에서 전이해 온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 전이과정에서 물질이 전이되어지는 그러한 물질 형태는 가시적이고 부피를 지닌 질량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형태를 띄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말한다. 그때 에너지 총량이 보존되는 체계는 국지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주 총합적인 전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 총합적인 전체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 체계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말하고 있지만 전체 우주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생성되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

장작이 타고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원래의 장작과 장작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과 재 그리고 남은 숯의 에너지를 합하면 원래 장작의 잠재 에너지 값과 같은 것이다. 그 화력하던 황제의 몸도 죽지 않는 것이 없으며, 죽으면 썩을 뿐이다. 사람이 죽어 썩고 나면 그 사람은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원래 에너지의 값과 썩으면서 생긴 산화열, 그리고 그 살을 파먹은 벌레와 곰팡이의 신진대사 에너지 등을 모두 합하면 원래의 사람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썩고, (요구르트가) 발효하고, (식혜가) 삭고, (메주가) 뜨고, 곰팡이 나고, 녹슬고, 불에 타며, 화학적인 산화반응에, $E = mc^2$ 의 과정을 통해 핵분열 하는 등등은 모두 같은 자연의 현상이며 단지 산화하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물론 핵분열 과정은 좁은 의미의 산화과정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폐쇄계에서 일어날 때 물질이 전환되거나 소멸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전환과 소멸은 단지 에너지의 전이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에너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물질 세계는 생성되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 단지 다양한 물질의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 우주 연극의 배우들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는 극장 객석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생성과 소멸에서 오는 인간의 집착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chiak.sangj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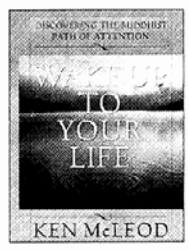
"불교, 삶 이끄는 나침반" 禪·법문집 베스트 셀러

지구촌 불교 / 美 서점가 불서 열풍

미국인들이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나 정신영역 계발을 다룬 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이버 서점인 아마존닷컴(amazon.com)에 따르면 불교를 주제로 참다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책들이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미래의 삶에 대한 통찰력 9가지를 제시, 물질문명보다 정신문화를 위에 둬야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인 달라이 라마의 〈현대의 윤리(Ethics in a Modern World) · 사진 위〉의 경우 지난해 말 발표된 이래 60여 만 부가 팔리면서 줄곧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켄 멕로드의 〈삶을 깨워라(Wake Up to Your Life) · 사진 아래〉 역시 비소설 부문의 베스트셀러다. 멕로드 씨는 이 책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여성불자의 경험담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겪었던 인생의 의미를 독자들의 가슴에 전해주고 있다.





'현대의 윤리' '선입문서' 60~70만부 팔려
물질문명 선도하는 정신문명 관심 반영

이런 책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카렌 암스트롱의 〈부처님(Buddha)〉, 소갈 린포체의 〈티베트인들의 삶과 죽음의 책(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 등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들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중 삼발라 출판사에서 올 초에 펴낸 〈부처님〉은 불교 관련 서적으로는 드물게 짧은 기간에 무려 10만 부나 팔렸다. 또 불자로서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적은 나탈리 골드버그의 〈멀고도 고요한 고속도로(Long Quiet Highway)〉도 7만 부나 팔리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의 선승 스즈키가 1972년에 발표했던 〈선입문서(Zen Mind Beginner's Mind)〉도 지금까지 70만 부나 팔렸으며, 최근 들어서는 판매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 절판된 불교 서적들이 다시 출판되고 있다. 1938년에 발표되었던 〈불교도 바이블(A Buddhist Bible)〉이라는 책도 지난 3월에 다시 찍었으며 오는 10월에는 유명작가 앨런 와츠의 〈선을 말함(Talking Zen)〉이 웨더힐 출판사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아마존닷컴 측은 "정신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불리는 이런 변화는 21세기의 초입에서 환경문제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이 이성과 물질을 앞세우는 서구문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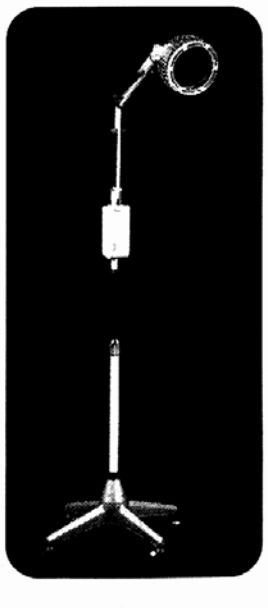
불교 관련 책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삶의 지혜를 얻겠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나오지만 종교적인 단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각종 통계를 보면 지난 80년 이후 세계에서 불교단체의 성장세가 가장 높았던 지역도 미국 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불교관련서적 못지않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비주의 분야의 책들로는 〈5개의 복음(The Five Gospels)〉, 잭 스퐁 주교의 〈부활, 신화나 현실(Resurrection, Myth or Reality)〉등을 꼽을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행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료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성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증상별)

1.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2.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뇨장애자
5.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관지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6.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요실금, 습진, 무좀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7.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제증상)
8. 고질적인 치질 · 치루 ·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9.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겸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 미국F.D.A에서 특정 자기파(특정자기파)치료기 인정 (K875052)
■ 유고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 ISO (9001) 획득

金賞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 각종자료 - 무료 우송함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대표전화 : 주,야 02)522-2464 / H.P: 011)9742-2550

100% 순수 토종 오가피

학명ACANTHOPANAX(아칸토파낙스) :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久服卽, 經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한 오가피

100% 순수 토종오가피를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진실하게 공급합니다.

거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100% 토종진품(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
■ 토종오가피 국내최대용량 110ml × 60포 (한박스)
■ 농장직영 국내최저가격 ₩150,000 (한달분)

서북토종오가피 농장 직영
오가피건강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080-700-5700 02)444-4194

※ 100% 순수토종오가피는 귀하의 모든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3천 3백 3십 3배

(제 4회 철야 특별 기도 정진)

상근기도 못되면서 신심도 없으면서 자력수행 하는 것은
험난한 망망대해를 헤엄치며 건너려는 어리석은 짓과 같으니
3333배 금강의 배를 타고
9999회 감사의 노를 저어
제 7 말라야식인 에고의 업장을 깨버리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가득한 대자유 부처님 참마음으로 가봅시다.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이며 절을 500만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괄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 저녁 7시~9시까지 2시간동안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을 2시간만 배우면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108배하는 기본으로 가볍게 3333배 정진에 도전하십시오. 7~80세 노인도 어린이도 끝까지 정진한 불자가 많으며 설악산 봉정암을 하루 한번에 갔다올 수 있는 힘이 누구나 생깁니다. 가슴이 열리고 단전히 뚫리고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는 신비로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 일 시 2001. 5. 26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7시
■ 준 비 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백만불자 108배 만일철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 하차 전화 요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천연의 빛깔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움. 천연 염색이 가진 최고의 미덕이다.



◇천연염색은 햇빛 바람 손놀림 등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이뤄진다.

천연염색

'자연의 빛깔'을 그대로 입는다

흑 백 적 청 황 '色 다양'

생활한복 · 황토내의 '대중화'

자연계의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빛깔들이 숨어있다. 전통염색은 그 갖가지 자연의 빛깔들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천연 염색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도리를 경험할 수 있다.

오랜 옛날 염색은 인간의 안위를 위한 주술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염색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종교적 또는 민족적 상징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이용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인공 합성 염료가 만들어지기까지 인간은 식물과 동물 또는 흙으로부터 아름다운 색소를 구하며,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삶의 지혜를 이어왔다.

천연 염색은 햇빛 바람 손놀림 등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빛깔을 만들어 간다. 염액의 농도와 횟수에 따라 그 빛깔도 달라진다. 염액에 담근 하얀 천에 천천히 색이 배어들며 새로운 색으로 깨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염색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태어난 천연의 색은 전혀 낯설지 않은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다. 자연스러움이 주는 즐거움. 천연염색이 가진 최고의 미덕이다.

오늘날의 염색은 과거와 달리 우리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특히 한약재를 이용한 전통 염색은 항균효과 등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도 한다. 전통 염색을 응용한 생활한복 등이 널리 선보이고, 어린이와 노인, 피부질환자를 위한 황토내의 등 전통 염색을 이용한 대중적인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통 염색의 재료인 염료는 색에 따라 몇가지로 분류하는데,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오방색(흑백적청황)을 중심으로 나누어진다. 적색계열은 홍화 · 꼭두서니 · 소방목, 청색계열은 쪽 · 닭의장풀 · 쥐똥나무, 흑색계열은 대나무잎 · 버드나무가지 · 진달래 가지 태운 숯 · 먹 · 흑토, 그 외 자색계열은 오배자 · 자초 · 오디 · 포도, 갈색계열은 도토리 · 상수리 · 밤 · 호도 등에서 나온다.

매염제로는 월장, 조반, 명반, 백반, 구연산, 녹반, 청반, 석회, 막걸리, 식초, 현미초, 오미자초, 오매초, 술, 단술, 미음, 아교, 콩즙, 잿물 등이 있다. 잿물의 재료로는 볏짚, 찰벼, 명아주, 콩깍지, 메밀대, 홍화대, 폭대,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뽕나무, 소나무, 다북쑥, 따복대 등이 사용되었다. 요즘은 천연의 매염제와 성분이 같은 화학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염색은 일제시대와 6.25전쟁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며 그 맥이 단절되는 듯 했으나, 최근 우리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전통 염색은 쪽물 들이기처럼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활용범위가 넓다. 쑥, 양파, 무, 배추, 봉숭아 등의 재료를 이용해 면 종류의 셔츠나 광목, 명주 등 천연섬유에 직접 자연의 색을 물들여 보자.

글=이은자 기자 eljee@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쑥 봄이면 산과 들에 지천으로 돋아나는 쑥도 천연염색의 재료다. 봄에 생 쑥을 뜯어다가 집에서 염색을 하거나, 그 쑥을 말려두었다가 해도 된다. 마른 쑥은 한약방에서도 구할 수 있다. 솥에다 쑥을 담고 쑥분량의 2배정도 넉넉히 물을 붓고 끓여 고운 체에 거른다. 다색성 염료인 쑥은 매염제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화학 매염제인 염화일철을 넣으면 고운 회색이, 초산크롬을 넣으면 녹색이 나온다.

봉숭아 어린 시절 손톱을 물들였던 봉숭아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이 봉숭아도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염료다. 봄에 봉숭아를 심어, 가을에 꽃대가 만발하면 뿌리채 홉아 봉숭아의 양과 같은 분량으로 물을 붓고 끓인다. 끓인 염료를 고운 체로 거른 다음 매염제

염색체험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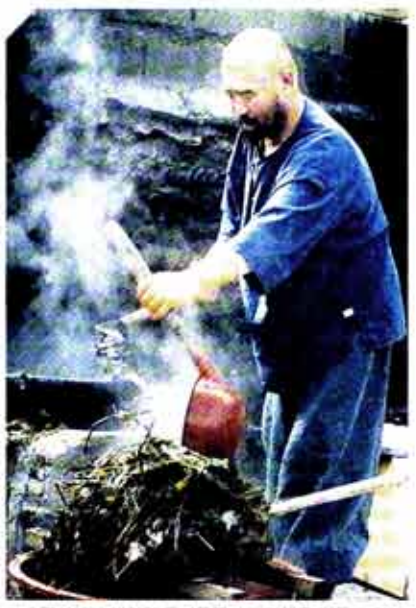
양파 삶으면 노란색
포도 끓이면 보라색

로 주석산을 넣어 속옷 등을 물들이면 누런 황금색이 된다. 봉숭아로 염색한 옷은 알레르기 피부를 가진 이들에게 특히 좋다. 봉숭아는 천연섬유 뿐 아니라 화학섬유에도 염색이 잘 되는 염료다.

양파 조리할 때 벗겨 놓은 양파 껍질을 따로 모아서 물을 넣어 끓이거나, 양파를 통째 삶아서 거른 후 매염제로 알루미늄을 넣고 염색하면 양파색 그대로의 노란색이 나온다. 면이나 실크에 염색해 스카프 등 패션 소품으로 사용하면 좋다.

무 · 배추 무와 배추로도 고운 빛깔을 낼 수 있다. 무와 배추를 솥에 넣고, 매염제로 알루미늄을 적당히 넣어 푹 삶는다. 우러난 염액에 면, 마 등을 넣어 염색하면 고운 옥색이 배어난다.

포도 여름철의 대표적 과일인 포도를 가지고 염색이 가능하다. 먹고 남은 포도껍질을 비닐봉지에 모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적당량이 되면 물을 붓고 끓인다. 끓인 물에 명반을 넣어 염색하면 보라색이 나온다.



◇햇산에서 채취한 등나무줄기로 염액을 만들고 있는 무산스님.



◇석회는 굴 껍질등을 태워 만든 매염제다.



◇쪽은 봄에 씨를 뿌려 7월말~8월초 거두어 염료로 쓴다.

40여년간 전통염색 연구 무산스님

"'마하승기율'서 불교염색법 배웠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철저히 수행의 입장에서 설하신 부처님은 맑은 바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옷을 해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선승은 쪽색, 율승은 홍색, 염불승은 황색을 즐겨 입었습니다."

40여년간 우리 전통 천연염색을 연구하며, 그 맥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는 경주 해회선원 무산스님.

스님이 처음 염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초 나주 불회사에서 생활할 무렵이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전통 염색을 이어오던 윤병영 선생에게 어렵사리 염색하는 법을 배웠다. 그후 스님은 우리 전통 천연 염색은 곧 〈마하승기율〉에 나타난 불교의 염색법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등 갖가지 염색법을 배우고 익히며 전통 염색을 재현해 냈다.

"1967년 내가 〈뿌리깊은 나무〉에 전통 염색에 대한 글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만큼 전통 염색분야는 불모지였습니다. 10년쯤 지난 후에 한 대학교수가 염색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연락을 해왔지요. 최근들어서야 전통 천연염색에 대한 갖가지 강좌와 전시회가 열리지만 당시만 해도 모두들 전통 천연염색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염색을 위해 스님은 밭에서 직접 쪽을 키운다. 나머지 염색재료는 산이나 들에서 채취하거나 한약방에서 구한다. 스님은 최근 전통염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염색기계를 발명해 특허까지 받았다. 또한 매주 일요일 해회선원에서 우리 전통 염색법을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죽순 김두부찜



조선의 구원병으로 온 명나라 대장 이여송의 행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1차로 파견된 명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에 크게 대패한 뒤 2차 지원군을 인솔하고 의주성 외곽에 진을 친 이여송은, 선조의 관상이 일국의 왕의 기상에 크게 못미쳐 불쌍한 백성들만 피흘리게 할 상이라며 전투를 치르지 않고 있었다. 초조한 조선의 대신들은 이여송의 비위를 맞추느라 온갖 수모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여송이 말했다. "내가 전쟁을 하려면, 용의 피로 지은 밥을 남양의 오죽(烏竹)으로 만든 젓가락으로 먹어야만 하오."

이 말에 도승지 이항복이 "내가 책임지고 한나절 안에 해결하리다. 그러나 장군의 부하중에 정동지와 조지현이라는 장군 때문에 장차 큰 일을 그르칠 것이니 대책을 세워주시오."

이 말에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큰소리 치던 이여송은 내심, 조선에 인물이 많음에 당황했다. 1592년, 4월 30일 왕의 행렬이 임진강을 넘으면서 율곡 선생이 임진란을 대비해 지었던 화석정을 태우자, 그 현판 아래서 무명보자기로 싼 꾸러미 하나가 떨어졌다. 보자기에는 '위급할 때 살피라'는 구절이 쓰여있었다. 열어보니 오죽 대나무젓가락 1벌과 백마혈(白馬血)이라는 석자가 쓰여있고 그 밑에 북청에서 귀양살던 보우라고 쓰여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우 스님은 임진란 때 이항복으로 하여금 오죽젓가락으로 이여송을 움직이게 해 나라와 백성을 구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 약선식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배변 기능강화…당뇨병에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죽순150g, 불린 표고버섯 60g, 유부 10장, 자고(비트) 150g, 밀가루10g, 오향분 0.3g, 땅콩기름 300g,생강 10g, 간장 10g, 유채기름10g

요리법 ① 죽순을 채썰고, 표고버섯은 3㎝ 정도로 썬다. ② 비트의 껍질을 벗겨 씻고 5㎜ 두께로 썬다. ③ 생강은 채쳐놓고 유부를 데쳐 길이 8㎝ 폭 3㎝로 썬다. ④ 밀가루에 물과 간장을 넣고 풀처럼 만든 뒤, 중화냄비를 센 불에 올려 유채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 죽순, 비트의 순으로 볶아 간장과 오향분을 넣어 섞는다. ⑤ 유부껍질을 펴서 위 재료를 조금씩 싼 다음, 그 끝을 ④의 밀가루풀로 붙인다. ⑥ 중화냄비에 땅콩기름을 붓고 120도에서 ④의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다.

효능 ① 배변 기능의 강화, 당뇨병, 황달 증상, 후두염, 결막염에 효험.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㉜

嗚呼 衆生之所以往來者 六途也
오호 중생지소이왕래자 육도야
鬼神沈幽 愁之苦 鳥獸懼狻之悲
귀신침유 수지고 조수회홀왈지비
修羅方瞋 諸天正樂
수라방진 제천정락
可以整心慮趣菩提者
가이정심려취보리자
唯人道能爲耳 人而不爲 吾未
유인도능위이 인이불위 오미
如之何也矣 知訥衰閑大乘
여지하야의 지눌낭열대승
歷觀了義乘經論所說 無有一法
역관료의승경론소설 무유일법
不歸三學之門 無有一佛 不藉三學而
불귀삼학지문 무유일불 부자삼학이
成道也
성도야

아아, 중생들이 오가는 곳은 육도(六道)이다. 귀신은 어두운 곳에서 근심하는 괴로움이 있고, 새와 짐승은 잡힐까봐 날고 도망가는 슬픔이 있고, 아수라는 성을 내고, 제천(諸天)은 한창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을 정돈하여 보리로 나아갈 이는 오직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저번에 대승경전을 열람하면서 '요의승'의 경론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한 법도 삼학(三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었고, 어떠한 부처도 삼학에 의지하지 않고는 성불하는 법이 없었다.

楞嚴經云 過去諸如來 斯門已成就
능엄경운 과거제여래 사문이성취
現在諸菩薩 今各入圓明 未來修學人
현재제보살 금각입원명 미래수학인
當依如是法 是故我鞮
당의여시법 시고아배
今結佳期 預伸密誓
금결가기 예신밀서
當修梵行則仰慕眞風 不生自屈
당수범행즉앙모진풍 불생자굴
以戒定慧 資薰身心 損之又損
이계정혜 자훈신심 손지우손
水邊林下 長養聖胎 看月色而逍遙
수변임하 장양성태 간월색이소요
聽川溪而自在 縱橫放曠 逐處消時
청천계이자재 종횡방광 축처소시
猶縱浪之虛舟 若凌空之遨猨形容於
유종랑지허주 약능공지일핵 현형용어
寰宇 潛幽蹙於法界 應機有感
환우 잠유영어법계 응기유감
適然無準矣 予之所慕 意在斯焉
적연무준의 여지소모 의재사언
若修道人 捨名入山 不修此行
약수도인 사명입산 불수차행
詐現威儀
사현위의
誑惑信心檀越則不如求名利富貴
광혹신심단월즉불여구명리부귀
貪着酒色 身心荒迷 虛過一生
탐착주색 신심황미 허과일생

〈능엄경〉에도 '과거 모든 부처님도 이 문에서 성취하였고, 현재의 모든 보살도 지금 원만하고 밝은 데로 들었으며, 미래의 수학하는 사람도 이 법을 의지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기약을 맺고, 미리 비밀한 서약을 펴서 깨끗한 행을 닦으면서 참되고 바른 유풍(遺風)을 우러러 사모하여 스스로 물러서지 않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써 몸과 마음을 닦아 번뇌를 덜고 또 덜어서 물가나 숲 속에서 성인이 될 씨앗을 기르면서 달빛을 보며 소요하고, 냇물 소리를 들으며 자재하여 종횡으로 걸림이 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마치 물결 따라 가는 빈배와 같고 허공을 나는 새와 같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몸은 우주에 나타내되 그윽한 마음은 법계에 잠기게 하고, 얽매인 기준이 없이 인연 따라 감응할 것이니, 내가 바라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일 수도하는 사람이 명리를 버리고 입산해서 이러한 수행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형상만 나타내어 신심 있는 신도를 속이고 산다면 그것은 차라리 명리와 부귀를 바라고 주색에 빠져서 신심이 혼미하여 헛되이 일생을 보내는 것만도 못하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삼학 의지하지 않고 성불 불가능
사람만이 보리로 나아갈 수 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보경스님

유성 보광명사 회주

"苦를 樂으로 여길줄 알아야죠"



◇보경스님은 늘 작업복 차림이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수행자의 근본도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기자가 찾아간 날에도 스님은 배나무를 솎아주고 있었다.

5월의 햇살이 그토록 싱그럽게 느껴진 적도 없었다. 시원스런 바람이 간간이 불면서 피부에 쏟아진 햇살을 지워버리곤 했지만 눈에 비친 계절의 싱그러움은 지우지 못했다. 햇살도, 바람도 다 자연의 이치대로 오가는 것뿐이니, 그 이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뿐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와 자연이 다를 바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 넘는 생각이 든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대전 유성의 한 작은 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보광명사에 들어서자 정원처럼 펼쳐진 법당 앞마당이 시원스런 자태를 뽐내고 있다.

보경스님은 세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스님이다. 한암스님의 제자로 선과 교를 두루 겸비했으며, 돌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한문실력을 갖춘 선지식이다. 그러나 격식과 권위를 싫어하시는 탓에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신다. 스님은 스스로 부처님 법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고 탐하겠느냐며 평생 수행을 강조해 오신 분이기도 하다.

스님 만나 뵙기를 청하기 위해 종무소에 들어섰을 때 한 스님이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제사를 지내러 오든 안 오든 상관없지만 여기에 오는 진짜 이유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신도가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하자, 스님은 다시 말씀을 이었다.

"진짜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제사를 지내든 기도를 하든 그게 다른 사람 일이겠습니까."

보광명사에는 여느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양어장이 있다. 수십 마리의 잉어들이 살이 올라 퉁퉁한 게 탐스러울 정도다. 양어장 앞 벤치에 스님과 나란히 앉아 있자니 푸근한 느낌이 와 닿았다.

"스님, 아까 종무소에서 신도 분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잉어들은 내가 이곳에 올 때 함께 왔으니까 내 도반이나 마찬가지요. 나도 살이 찌고, 저 놈들도 살이 쪘으니, 이곳 공기가 좋긴 좋은가 봐요."

동문서답이다. 종무소에서 첫눈에 보경스님임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코끝에 걸쳐있는 안경, 범상한 느낌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함. 그 유명한 한암스님이 아끼시던 제자라는 인상은 느끼기 힘들었다.

"잉어들이 왜 살찌는지 아시는가?"

잘 먹어서 그렇다는 대답을 구하는 질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달리 떠오르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섣불리 말문을 열었다가는 '우매한 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꼭 닫아버렸다.

"저 녀석들은 주는 대로 아주 잘 먹어요. 먹을 거 제때 먹고, 양어장 물이 오염되지 않으니 근심거리가 없어 살찌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힘든 거지."

평범한 진리. 예상 밖의 답이었다. 스님께서는 분명히 평범한 진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이 과연 평범할 수 있는 것인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이었다.

마음자리 찾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 반성하고 또 반성

"아까 그 신도는 절에도 잘 나오는 아주 착실한 신도예요. 그런데 요즘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자꾸 재를 지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살피지 않고 부처님께 기댄다고 해봐야 무엇을 얻겠습니까. 어떤 일이 잘 안되면 그 이유를 살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간단하고도 상식적인 이치인데 그걸 몰라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처님께 빈다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경스님께서는 불자들의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우려와 함께 경책을 내리고 계셨다.

"불교 신도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불교라는 것이 일체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수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도들은 별로 없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사업 잘되게 해달라.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집안에 우환 없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는 생각만 했지,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자들이 별로 없어요."

외람된 질문을 던졌다. "스님께서도 신도들에게 재를 지내주시지 않습니까."

"재를 기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복일 수도 있고 수행일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나는 신도들을 믿고 기다립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무작정 재를 지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인연을 맺어서 불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신도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진짜 자기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요, 불교입니다"

보경스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출가한 이유도 사실은 한문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어렸을 때 다니던 서당의 훈장어른이 일본 순사에게 불잡혀 가는 바람에 서당이 문을 닫게 되자 보경스님은 공부를 계속 하게 해주겠다는 숙부의 말에 이끌려 숙부의 집으로 갔지만 숙부도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숙부의 소개를 받고 찾아간 곳이 수덕사였다. 하지만 수덕사는 글공부를 시켜주는 곳이 아니었다. 당시 수덕사 입승이었던 강월스님의 소개

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살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끈 '나'의 창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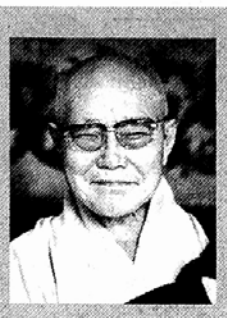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보경스님은?

선-교 능통한 선지식
한암스님 18년간 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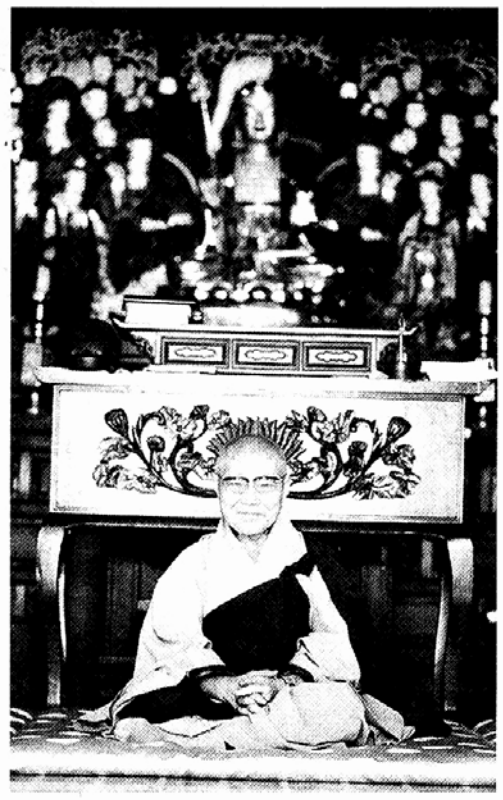
보경스님은 선교에 두루 능통한 선지식으로 통한다. 근세의 대 선지식인 한암스님을 18년 간이나 모시고 산 스님답게 계율에 철저하고 경전과 한문에도 능하다.

스님은 1919년 4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1934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 입산했으며, 1935년 월정사에서 탄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42년 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51년에는 삼척 영은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94년부터 보광명사에서 회주로 계신다.

스님의 성격이나 취향은 엄격한 수행정신과는 정반대다. 권위의식이 없고 평등한 심성으로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항상 웃는 표정이어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준다. 하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든 호되게 꾸지람을 내린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40년 이상 보경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탄허불교문화재단 김회순 위원장은 보경스님을 일컬어 '아름다운 스님'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기본도리를 중시하고, 한국불교의 앞날을 염려하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전했다.

스님은 평소 공부하며 많은 저술을 했으나, 출판을 하자는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처님과 한평생 살았으면 됐지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출판을 거절하는 이유다.



◇보경스님은 단 하루도 참선과 경전공부를 거르지 않는다. 불자들에게는 항상 '진짜 자기'를 찾으라고 강조한다.

로 오다산 상원사에 가게 됐고 한암스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그때만 해도 세상에 불평이 많았어요. 있는 집 자식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득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 주신 분이 바로 스승인 한암스님이셨습니다. 어느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높은 대로 바다는 깊은 대로 평등한 것이다. 오리의 다리는 짧은 대로 평등한 것이고 황새의 다리는 긴대로 평등한 것이다.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면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불평을 하게 된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황새의 다리를 잘라 붙일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요. 나는 그 순간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평등한 것이라.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하며 산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부귀빈천으로만 본다면 어찌 평등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달랐다. 왜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하느냐는 것이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 육도가 모두 평등합니다. 왜 평등합니까. 모든 것이 업따라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만 하면 그 업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있는 대로 봐야 하고, 거기에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불평해야 할 것은 내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광명사에는 양어장 외에 과수원과 밭이 있는 것이 독특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고추, 콩, 상추, 아욱,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었고, 배나무와 호두나무도 있었다. 스님은 겨울철만 빼고는 늘 이곳에서 산다. 요즘에는 배나무를 솎아주고, 고추 심는 일 때문에 낮시간을 거의 전부 이곳에서 보내다시피 하고 계셨다. 세속 나이로 83세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스님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50년이 넘게 실천해오고 있다. 1951년 삼척 영은사 주지 때부터 스님은 한시도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늘 작업복 차림이다. 원래 격식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수행자의 본래 모습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이젠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수행이 힘들다고 안하면 그게 어디 수행자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지혜는 고(苦)도 낙(樂)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예요. 힘들다고 푸념만 한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늘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참선을 근본으로 삼는 것도 자기를 열고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苦)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이예요. 나의 스승이신 한암스님께서는 늘 제자인 탄허스님과 학문적인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두 분은 사제지간이면서도 학문적 주장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분 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배웠습니다."

"힘들다" 푸념만 하면 무엇을 얻겠어요

생각을 열어 놓아야 자기 바로보기 가능

보경스님은 지금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새벽예불을 올리고 법당 안에 마련돼 있는 두 스승의 영정에 매일같이 향 공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밭일과 함께 참선과 경전공부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종무도 손수 보신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일이지만 스님은 피로는 느끼지 않으신단다. 항상 생각을 가다듬으면 피로도 그만큼 덜 느끼는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 다만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해요. 〈초발심자경문〉에 지범개차(持犯開遮)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계율을 잘 지키되, 지키고, 못 지키고, 방편으로 삼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못 지킨다는 것은 계율을 어긴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 범하는 것이라면 어찌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의 말씀 끝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다. "악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선입니까"

"선악의 중심은 모름지기 자기에게 있어요. 선한 마음이 악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을 선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과보는 그대로 남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들려주실 말씀 한 마디를 부탁드렸더니 스님께서는 요청대로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극락에 간다고 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문득 사방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향기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싱그러움과 푸름이 묻어나는 것 같다. 새가 향기로운 소리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듣는 것인가. 보경스님을 뵌 탓일까. 고추를 심어야 한다며 발길을 돌린 150 센티미터도 채 안될 것 같은 단구의 보경스님이 왜 그리 크게 느껴졌을까.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정원스님 (3)

80년대 초 문경 김용사에서 도반들과 함께 정원스님을 모시고 산 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할 뜻을 세웠다. 전국 사찰 중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 찾던 중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김용사를 1순위로 점찍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우연찮게 김용사 주지가 교체되었다. 그래서 정원스님을 김용사 주지로 모시고 영진, 정각, 순민 스님 등과 내가 주축이 되고 우리와 뜻을 함께 했던 스님들 10여 명이 모여 원대한 뜻을 세웠다. 스님께서는 청소년 포교만이 미래 한국불교를 담보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우선 2만여 평의 토지를 우리가 직접 경작하기로 하였다. 백장청규를 규범으로 하여 낮에는 들에 나가 일하는 것으로 정진을 삼고 밤에는 좌선정진을 하였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상시 개설하여 전국각지에서 온 수련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했다.

한해 농사를 끝내고 나서 우리는 단순한 농사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만여 평의 농토와 그 주변산지에 호두와 대추 나무를 심기로 했다. 그해 가을부터 겨울동안 나무심을 구덩이를 3m 간격의 바둑판 모양으로 한자 깊이씩 미리 팠다. 다음해 봄에 호두와 대추 나무

낮엔 일하고 밤엔 좌선정진
말로는 매몰차도 속깊은 정

를 심었다. 스님께서는 가끔씩 해이해지려하는 우리들을 불같이 꾸짖으셨다. 새벽예불이라도 한번 빠지는 날에는 불벼락이 났다. 젊은 놈들이 스스로 세운 원력을 못 견뎌하는 것은 신심이 없는 탓이라며 당신이 먼저 앞장섰다. 휴식시간에 치라며 탁구대를 사오기도 했다. 일도 같이 했지만 운동도 같이 했다. 젊은 시절 테니스선수였던 스님은 탁구도 선수 수준이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운동할 때의 자상하고 인정스러움은 잘못을 꾸짖고 지적할 때와는 너무 달랐다.

그러던 어느날 사단이 났다. 스님께서 대중가운데 한 명이 담배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이전부터 담배냄새가 난다며 몇 차례 불은 적이 있었다. 다들 그렇지 않다며 숨기고 있었는데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다. 수행자가 담배 하나 끊지 못하면서 무슨 청소년 교화를 하느냐며 당장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불같은 성화가 계속되었다. 할 일 없어 주리가 틀리는 것들이나 늙어서 심심해지면 피우는 것이 담배인데, 출가 수행하는 놈이 생돈 없애며 건강 해치고 냄새 피우는 짓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것이다. 그 도반도 만만치가 않았다. 아직은 끊을 생각이 없으며 또한 그일 때문에 나갈 생각도 없다고 맞섰다.

급기야 담배문제로 대중공사를 하게되었다. 대중공사란 스님들이 전래적으로 하는 독특한 의사결정 방법이다. 원칙적인 법이나 계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상황에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이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흔히 작용하게된다. 즉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원칙적인 법이나 윤리관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담배문제로 대중공사를 하게된 우리는 몇 시간동안을 옥신각신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수련원 설립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주요역할을 하는 대중이 빠지게되면 본래 목적한 우리의 취지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도반스님을 이 상황에서 내보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전체대중들이 며칠 동안만 담배를 다 같이 피우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다보면 더 이상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하여 주지스님께서도 탓하지 안 할 것이고 이 문제는 개인문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대중공사의 결론은 며칠 동안만 모든 대중이 담배를 피우기로 결



정 났다. 소위 무모한 집단 투쟁이었다. 스님께서는 그날 이후부터 더이상 탓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오는 신도들에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잔머리를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야한다, 멍해진 머리를 순간적으로 돌리게 하는 각성효과가 확실히 있다, 우리 절 젊은 스님들도 모두 담배를 피우면서부터 머리가 비상해졌다고 했다. 우리는 완전한 KO패를 당했다.

그 무렵 신흥사사태로 인해 종단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져 비상종단이 출범하게됐다. 그 여파로 우리도 불가피하게 김용사에서 나오게되었다. 3년 동안 대중들이 땀으로 일구던 수련원 설립의 꿈도 함께 깨졌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사망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스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부덕으로 모처럼 젊은 원력들이 결사하여 종단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기회를 잃었다며 지금도 아쉬워하신다. 수행자는 세인들의 귀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항상 단정하고 깔끔해야한다고 늘 강조하시는 스님. 누군가 병이 나서 누워있는 것을 보면 "거저 신심 없고 어름한 것들이 병나지야 신심있고 부지런하면 어드래서 병날 시간이 있갔어"하고, 말로는 매몰차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속 깊은 인정으로 감싸주시는 분이다. ▩정취암 주지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범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자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 장정: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연구원

발레로 만나는 호법신장

포교 무용극 '사천왕'

30·3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손재현 무용단 두번째 작품

서양의 대표적인 무용인 발레를 방편으로 동양 사상의 정수인 불교의 세계로 인도하는 독특한 창작 포교 무용극 '사천왕'이 30일과 3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동국대 체육교육과 손재현 교수가 이끄는 손재현 무용단이 준비한 포교 무용극 '사천왕'은 지난 1999년 에밀레종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넋의 소리'에 이은 손교수의 두 번째 포교 무용 작품이다.

손교수는 "불교의 호법신장인 사천왕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사찰의 입구에서 혹은 그림을 통해 접해본 가장 대중적이고도 독창적인 캐릭터여서 작품의 소재로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었다"면서 "외관상의 모습 때문에 무서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천왕의 이미지를 벗어나,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천왕의 의미와 역할을 이번 무용극에서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교 무용극 '사천왕'은 석불을 조각하며 '달래'와의 사랑을 키워가는 '일심'과 옛사랑인 '달래'를 되찾기 위해 질투심에 사로잡힌 농부 '솔봉'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어리석음과 욕망, 탐욕으로 얻은 결과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극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국천·광목천·증장천·다문천의 사천왕은 순간 순간 나타나 이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통 발레의 기본 위에 사천왕과 주인공들의 내면이 얼굴표정과 아크로바틱적인 몸놀림의 현대적 창작무로 표현된다.

대본은 동국대 예술대학장 김흥우 교수가 맡았는데 연극학과 신영섭 교수가 연출을, 이동훈교수가 조명과 무대를 맡는 등 조계종립 동국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참여했다는 점도 이번 포교 무용극 '사천왕'의 특징이다.

특히 이번 무용극은 공연시작 30분 전부터 극장 로비를 천왕문으로 삼아 사천왕 분장을 한 공연자가 서서 관객들을 맞이하고, 극의 시작과 함께 사천왕이 관객들을 유도하는 등 여느 공연과는 색다른 이벤트적 요소도 가미하게 된다. 이같은 시도를 통해 공연 내내 석불이 서 있는 무대를 중심으로 극장 그대로가 불국토로 장엄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손교수의 계획이다. (02)2260-3420)

이은자 기자 eleee@buddhapia.com



◇포교 무용극 '사천왕'은 정통발레의 기본 위에 사천왕과 주인공들의 내면이 얼굴표정과 아크로바틱적인 몸놀림의 현대적 창작무로 표현된다.

이만희 작-강영걸 연출

'피고지고 피고지고' 27일까지 국립극장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등 수편의 연극을 함께하며 연극계의 명콤비로 이름난 극작가 이만희씨와 연출가 강영걸씨가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의 2001년도 버전을 27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인생의 패잔병들인 세 명의 늙은 도굴범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 연극은 앞서의 공연에서 삭제 됐던 부분을 살리는 등 작품의 원형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저마다 도박, 사기, 절도, 밀수 등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세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신라의 보물이 묻혀 있다는 돈황의 절터를 찾아 도굴에 나선다. 오로지 보물을 발견하겠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프로젝트명은 공교롭게도 신라 고승 혜초스님의 순례기 〈왕오천축국전〉에서 따온 '신왕오천축국전'이다. 보물을 찾으려는 세 노인의 모습을 통해 인간 욕망의 질긴 뿌리를 기다림의 미학으로 풀어내면서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93년 초연 때부터 각각 왕오, 천축, 국전 역을 맡았던 이문수(52세), 김재건(54세), 오영수씨(57세)가 한층 성숙하고 깊어진 몸짓으로 인생 패잔병인 세 노인들의 덧없는 꿈을 연기한다. (02)2274-3507



◇부처님이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상계숙티'. 양 옆의 당간지주는 부처님이 계시던 자리임을 나타낸다.

부처님 고행 현장 '렌즈에 담았다'

포영 스님 '카일라스 사진전'
불일미술관 6월 4일까지

부처님의 6년 고행현장을 렌즈에 담은 '포영스님의 카일라스 사진전'이 22일~6월 4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히말라야 산맥 너머 티베트 고원의 서남부에 우뚝 솟은 카일라스산은 부처님이 6년간 고행했던 신비의 설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티베트에 불교를 최초로 전한 수행자 파드마삼바바와 미라레빠도 이곳에 머물며 수행했다고 전한다. 포영스님은 10여년동안 오지 중의 오지인 카일라스 산을 오르내리며, 그 옛날 수행자들의 체취가 배인 곳곳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한 자리, 부처님의 발자국이라 전해 오는 암석의 흔적, 티베트 고원의 정경, 성스러운 자비의 호수 마팜윰초와 카일라스산의 정상 등을 영상언어로 보여준다. (02)733-5591

추사학파 빼어난 솜씨 '구경'

간송미술관 27일까지
'추사와 그 학파전'

27일까지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열리는 '추사와 그 학파전'은 위대한 예술가이자 학자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와 그 제자들이 남긴 작품들을 통해 19세기 조선을 새롭게 일군 지식인들의 예술세계와 시대정신을 기리고 있다.

형식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전통화법에서 대담하게 탈피해 파격적으로 그 본질만을 표현하려는 절제된 회화 정신을 추구했던 추사의 회화운동은 조선성리학을 바탕으로 꽃피워 온 진경풍속화풍에 대한 도전이었다. 추사가 평생 벗을 삼았던 이재 권돈인, 매화를 사랑했던 우봉 조희룡, 화풍이 간결 담박했던 북산 김수철, 초상화를 잘 그렸던 희원 이한철, 청조문인화풍과 전통적인 조선고유화풍을 더불어 갖춘 혜산 유숙, 나이 삼십이 넘어 추사댁 사랑에 머물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던 소치 허유, 추사가 가장 아꼈던 제자로 스물아홉에 요절한 고람 전기 등 20여 추사학파의 작품 120여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혜산 유숙의 '오수삼매(午睡三昧)'

간송미술관이 71년 가을 첫 전시 이후, 60회를 맞이하는 이번 정기기획전 '추사와 학파'전에서는 그림이 곧 글씨이고, 글씨가 곧 그림이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02)762-0442

이은자 기자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단순 소박한 천불(千佛) 천탑(千塔)을 운주사 계곡에 배치함으로써 '산은 산, 물은 물'의 경지에 다다른 그 디자이너는 도대체 누구였던가? '무표정한 표정'을 지닌 돌미륵을 통해 물질계와 정신계를 아우르는 무심(無心)의 지극한 성스러움을 드러낼 줄 알았던 그들은 누구였을까? 단순한 선과 형태로 그렇게 천진무구한 자화상을 표현해낸 그들은 누구였던가? 돌덩이 속에 숨어있던 불성(佛性)을 발견하고 나머지 부분을 툭툭 깎아낼 줄 알았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평생을 연마하여 죽기 며칠 전에야 겨우 봉은사 '판전(板殿)'의 수수하고 졸박(拙樸)한 동심체(童心體) 글씨를 구사할 수 있었던 추사(秋史)의 지고한 예술적 경지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그들은 누구였던가?

민중의 삶에 뿌리를 내린 운주사의 천불 천탑이야말로, 민속예술의 제의적(祭儀的) 성격과 형식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룩한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꿰뚫어본 사람이 있다. 일반 미술사학자들이 '못난이 돌부처'요 '동냥치 거지탑'이라고 폄하하여 부를 때, 그것들이 실은 '가장 잘생기고 성스러운 미륵부처님'이며, '가장 원숙한 기교가 발휘된 명작 석물(石物)'인 점을 밝혀낸 것이다. 그 점을 누구보다 깊이 '보아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함부르크 미술대학의 요헨 힐트만 교수이다. 그는 1986년 전남대학교 미술대학에 교환교수로 왔다가 화순의 천불천탑을 보고 깊이 매료되어 연구한 결과, 〈미륵-한국의 성스러운 돌들〉이란 책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펴냈다.

송수권 '운주사 韻'(2)

예술적 경지 익으면 익을수록 단순해진다

앞서 추사의 경우에서처럼, 예술적 경지는 익으면 익을수록 단순해진다. 그 단순함 속에 대교약졸(大巧若拙)의 미학적 힘이 분출되는 것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선(禪)풍의 패션이나 인테리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운주사 계곡을 설계한 그 디자이너도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었을 게다. 불립문자란 '문자가 소용없다'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다 터득해버려 이제 더 이상 문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아름다움'이란 문제의식에 사로잡힌 예술가는 그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마음이 성숙해진다. 성숙한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자유스런 마음은 단순미에 끌리게 마련이다. 그 마음은 그대로 손끝을 통해 대상에 묻어난다. '인생'은 문제의식, 즉 화두를 가져야 성숙해진다. 문제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문제 많은 인생이다. 문제에 몰두하여 마음이 익으면, 어느 순간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때가 온다. 성숙해진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특정한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인격이 성숙해질 때 저절로 풀리게 된다.

구상(具象)-뚜렷한 형상이 길어지면 추상(抽象)-상이 지워짐이 되고, 의미(文)가 길어지면 소리(呪)에 이른다. 운주사의 돌미륵 앞에 서면, 망국의 한을 시심(詩心)으로 승화시켜 예토(穢土)에 용화세계를 건설한 어느 순수한 인격체들과 마주선 듯한 느낌이 든다. 생명력과 사랑이 넘치는 용화세계가 예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수분흡수와 발산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탄허스님의 '영가집' 출간

동국대 강의 현대적으로 풀어



탄허(1913~1983) 스님이 지난 72년 겨울 동국대 대학선원(정각원)에서 동국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가집 특강' 이 30여 년 만에 도서출판 교림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포항 운흥사판을 저본으로 하고 있는 이 〈영가집〉은 탄허 스님이 동국대 강의를 토대로 지난 80년대에 직접 쓴 원고를, 스님의 제자들이 현대인들이 보기 쉽게 풀었고, 목차와 연표도 새롭게 추가했다.

평생 〈영가집〉을 공부한 전강 스님이 탄허 스님의 동국대 강의를 듣고 "젊은 탄허만큼 공부하지 못했다"며 강의 후에 만나 맞절을 했다는 짧은 일화는 탄허 스님의 〈영가집〉 강의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영가집〉은 '선종영가집' 또는 '영가선종집' 이라고도 하는데 육조 혜능 스님의 5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영가 현각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선정 수행의 과정을 담고 있다. 값 1만 5천원.

김중근 기자



20년째 사랑받는 불교입문서

현암사 '알기쉬운…' 시리즈

현암사가 지난 76년부터 출간한 '알기 쉬운 불교' 시리즈는 20여 년 가까이 불교입문서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잃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장정과 편집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출판문화에서 독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점에서 현암사의 〈불교개론〉 〈아함경〉 〈화엄경〉 〈열반경〉 〈반야 · 유마경〉 등 6권의 '알기 쉬운 불교' 시리즈 개정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불교의 기본에서부터 주요경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리즈는 70~80년대의 독자들이 즐겨 읽었던 책이 세대를 이어 요즘의 젊은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상업성을 배제할 수 없는 출판시장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불황 타개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값 각권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수좌와 여대생의 사랑과 구도

'꿈' 김성동 장편소설



김성동 씨가 새 장편 소설 〈꿈〉(창작과비평사)을 냈다. 불교소설로는 〈만다라〉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 능현이 고교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자퇴한 후 입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0년 가까이 정진하던 능현에게 한 여대생이 나타난다. 명문여대 미대 3학년인 그녀는 젊은 수좌 능현을 문학의 길로 이끈 후 사라진다. 그리고 그녀가 3년 만에 다시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반야는 그의 공양주를 해 준다며 능현을 따라 토굴로 가면서 두 남녀의 달콤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한 사람 마음이 세상 바꾼다

'평화의 씨앗' 술락 시바락사 지음

종교는 사회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간여해야 하는가. 이른바 '참여불교'의 현실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실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불교에 든든한 안내자의 구실을 해 줄 책이 나왔다. <평화의 씨앗>(정토)이 바로 그 책이다.

지은이는 1933년 태국에서 태어나 사회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술락 시바락사. 사원학교에서 전통교육을 배운 그의 사상은 철저히 불교적이다. 현재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불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는, 세계참여불교연대를 설립하여 불교의 가르침으로 세상 바꾸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NGO운동가다.



空 · 연기사상 통해 현대사회 문제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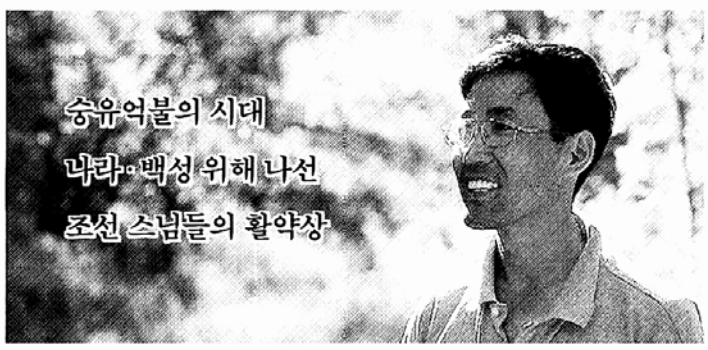
이 책은 지은이가 펼치고 있는 참여불교운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하는 이유와 대안을 담고 있다. 그가 말하는 세상 바꾸기의 시작은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랑과 분노 등 다양한 씨앗을 평화의 씨앗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 사람 한사람의 평화의 씨앗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행복의 씨앗이란 것이 지은이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평화의 씨앗을 싹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지은이는 인간사의 고통과 사회적 부조리의 극복 가능성을 개인적 깨달음과 사회적 변혁에서 찾는다.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은 탐욕 · 분노 · 어리석음 등 삼독(三毒)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은 사회적 변혁과 함께 해야 한다. 사회변혁이 인간 변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은이의 이 같은 논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씨앗을 틔우느냐에 따라 사회변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 사회변혁 즉 세상의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싹틔운 평화로운 마음의 결집인 셈이다.

지은이는 불교 수행의 기본인 선정 수행을 통해 심성을 개발한다면 탐진치에서 벗어나 보편적 자비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의 고통 해소 방법은 전통불교의 연속선상에 있다. 따라서 그의 사람 바꾸기 방법에 전제된 세계관은 공(空)과 연기(緣起)의 불교적 세계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의 불교적 세계관이 무조건적 전통 추종은 아니다. 불교를 현대사회에 맞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비롯해 무아와 열반, 연기, 오계를 현대 사회이론으로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불교적 개념들을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지침으로 삼아 세상 바꾸기를 시도한다.

이 책에서 얻는 또 하나의 배움은 지은이가 개발의 광기에 대한 저항의 힘을 자신의 태생적 전통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나라인 태국에서 서구의 가치에 무작정 빠져들기보다는 전통을 깊이 돌이켜보면서 전통과 서구문명의 바람직한 부분을 함께 받아들이는 중도의 길을 지혜롭게 찾고자 하는 지은이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이재운 장편 '당취' 완간

조선 시대 중기 유림들의 극악한 훼불 속에서 불법을 지키려 했던 스님들의 몸부림을 담은 장편 소설 〈당취〉(명상, 전5권)가 완간됐다. 지은이는 〈소설 토정비결〉로 널리 알려진 이재운(44) 씨.

"조선시대 중기, 스님들은 툭하면 잡혀가 길을 닦고, 성벽을 쌓고, 관원들의 허드렛일에 동원되었다. 심지어 비구니들은 양반의 노리개로, 첩으로 잡혀갔다. 그런 스님들이 오직 살기 위해 조직한 것이 비밀결사 당취(黨聚)였으며 승병의 근간이 됐다." 지은이는 호법신장으로서 조선 불교를 지켜낸 당취를 소설화한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이 소설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전후로 활약한 승병과 그 배후가 된 '당취' 라는 비밀 결사체의 활동상을 그린 작품이다. 숭유억불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사회에서 불교는 사대부와 정권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는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당취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 성불을 포기하고 사대부와 관에 응징의 몽둥이를 들게 된다. 하지만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격한 당쟁을 치르고 있었으며 우유부단한 임금(선조)은 궁녀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 무렵 오랜 전국 시대를 거쳐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은 대륙정복의 야욕을 드러낸다. 조선 곳곳에서는 강산을 염탐하기 위한 일본 첩자들이 들어와 관청의 무기고와 대감 집의 안방까지 뒤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당취 뿐이었다. 그들은 토정 이지함이 남긴 비기에 따라 휴정 · 유정스님의 지휘하에 환난에 빠진 조선과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일어선다.

이 소설은 이러한 당취들의 울분과 활약을 흥미진진하게 그리면서 왕조 창업의 이상을 잃어버린 채 당쟁과 향락으로 얼룩진 조선 중기 사회의 모순과 민초들의 고통을 치열하게 드러낸 역사소설이다. 값 각권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티베트의 지혜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실제적인 척도를 제공할 것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울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지혜〉(민음사)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 책은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파드마 삼바바의 〈티베트 사자〉를 알기 쉽게 설명함은 물론 불교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책 속에는 티베트 불교가 인간이 죽은 후 거치게 된다는 바르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죽음과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 임사(臨死)체험에 관한 보고, 일상 생활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 소개돼 있다. 이외에도 헌신적인 삶이 어떻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주는지,



헌신적인 자세로 살면 평온한 죽음 맞아 美·英 등 23개국 번역

그것이 어떻게 가족들을 비롯하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는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스승으로 꼽히는 소갈 린포체. 그는 어린 시절 티베트의 고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중국군에 의해 티베트가 붕괴된 후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1974년부터 일반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쓴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3개국에서 번역돼 2백 만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세계인들에게 두루 읽히고 있는 〈티베트의 지혜〉에는 일반인들이 좀처럼 다가서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의 세계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우리가 죽음을 미리 준비할 때 일어나는 것과 대비하지 않을 때 닥치는 것의 차이를 이책은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이러한 생사관은 티베트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다.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삶을 통해 죽는 순간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게 이책의 경고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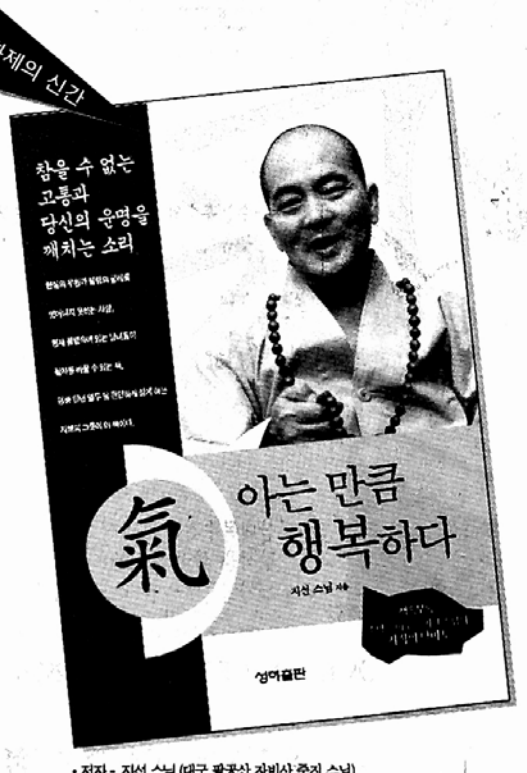
책방 역시 아름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2	물 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서 옹	다른세상
3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5	성철스님과 모과동자	정 찬 주	현대문화어린이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7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	서 병 후	화 두
8	온 세상은 한송이 꽃	무 심	현 암 사
9	지장경 강의	무 비	불 광
10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다스텝 닷컴

도서 안내 : (02)737-0695

성하출판 영업부 (02)2273-4452

화제의 신간



• 저자 - 지선 스님 (대구 팔공산 자비사 주지 스님)
• 신국판 · 276페이지 정가 9,000원
• 책속 부록 : 기적을 일으키는 지선스님의 신비의 달마도

가족의 우환, 결혼 생활, 사업의 성패, 미래의 전망등
갖가지 인생문제 해답을 이책에서 얻는다!

"살아있는 에너지, 우리 몸엔 氣가 있다"

21세기,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4차원의 정신세계 기(氣)' .질병과 고통 등의 갖가지 인생문제의 해답을
氣 전문가 지선 스님에게서 얻는다. '좋은 기' 를 받느냐 '나쁜 기' 를 받느냐에 따라 무병장수 할 수도 단명병사 할 수도 있다.
좋은 기를 얻는 방법만 터득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 '노력과 성공은 정비례한다' ,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는 등의 좋은 금언이 많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씀이고, 4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우선은 '기' 의 영향으로 인간 삶의 행 · 불행, 인간사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본다.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고통, 무병장수와 단명병사 등 인간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이 '좋은 기' 와 '나쁜 기' 의 영향으로 그 첫째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이 전개하는 논리와 현실적 사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기의 작용으로 행복한 인생의 촉진제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의 우환과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밝은 미래의 인생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 미래에 큰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현재 불행속에 있는 남녀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책,평생 일년 열두 달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지혜의 그릇이 바로 이 책이다.

기(氣)아는 만큼 행복하다

지선 스님의 기(氣) 강의 전국 강타!
• 한국정신과학회 세미나
(2001년 3월 28일 대전 KAIST강당)
• MBC-TV 아카데미 출연
(2001년 5월 4일 안동 MBC-TV 방송국)

"한국선 정체성 찾는다"

한국선학회 8개년 계획 수립
'신라선 재조명' 첫 학술세미나

"도의국사 선전래 전후 독자적 모습 띄었다"
"신라말 선사상 설명 선교일치로 불가능"

한국불교의 주류를 형성해온 선의 역사를 앞으로 8년에 걸쳐 시대별로 재조명할 학술대회가 첫 걸음을 떼어놓았다. 특정시기의 선에 대해 살펴보는 세미나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장기적 계획아래 시대별로 그 역사와 사상체계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한국선의 정체성을 찾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선학회는 "8년간에 걸쳐 한국선을 개괄 · 정리하는 한편 이후 한국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스님 · 학자 12명 기조발제

세미나 첫 해인 올해는 한국선의 출발인 신라시대의 선을 점검했다. 학국선학회가 지난 18~1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국선이란 무엇인가-신라시대를 중심으로'는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나말려초의 한국선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국 대학의 선불교 관련 연구자와 스님 등 12명이 기조발제에 나섰다. 한국선학회 회장 현각 스님의 '신라선의 역사적 의의'에 이어 이종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선종 전래 이전의 신라의 선'을, 차차석 동국대 BK21 연구원이 '남종선의 초전자 도의선사의 사상과 그 연원 탐구', 고영섭 동국대 강사는 '신라말 선문화의 형태와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방룡 영산원불교대 교수가 '신라말 제산문의 선사상',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 인경 스님이 '신라말 교종교단과 선종의 제문제', 조범환 서강대 박물관 학예연구원이 '신라말 유학자의 선종불교 인식', 고려대 이덕진 강사가 '신라말 동리산문에 대한 연구', 한기문 상주대 교수가 '신라말 선종사원의 형성과 구조', 임병권 대전대 교수가 '선어록에 나타난 신라선사',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가 〈조당집〉 신라 선사 기록 부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821년 도의국사에 의해 선이 전래된 전후의 역사, 특히 신라선의 성격에 모아졌다. 현각 스님은 "우리 나라는 중국과 달리 자발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선법을 수용하면서 독자적 모습을 띠어갔다"고 말했다. 이종철 교수는 원효의 말년 저작으로 보이는 〈금강삼매경론〉을 바탕으로 중국 선종이 통일신라 흐기에 별다른 마찰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 교수는 "진선(眞禪)이란 표현을 통해 원효 당시에 이미 선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종을 받아들일 만한 사상적 풍토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8년에 걸쳐 한국선을 집중 논의할 한국선학회의 학술세미나가 18~19일 동국대서 열렸다.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신라선의 성격을 규명하는 자리인 만큼 상식의 게으름에 대한 학문적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인경 스님은 "신라말의 선사상은 결코 송대의 불립문자나 교외별전의 사상이 아니다. 또한 선교일치에 관한 어떤 논의도 발견되지 않아 신라말의 선사상을 선교일치로 설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방룡 교수도 "고려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산선문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다보니 신라말 여러 산문의 사실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또 산문별 선승들의 사상을 밝히는데 있어 지나치게 법맥에만 집착함으로써 선승들의 사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기존 연구를 비판했다.

법맥과 관련하여 이덕진 씨는 동리산문의 대표적 선사이며 우리 나라 풍수지리설의 원조로 받들어지는 선각국사 도선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도선은 동리산문 문도가 아니며 나아가 그 실재가 의심스럽다. 설령 실존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인물이지 동리산문 계열의 인물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오류 수정 · 검색기능 강화
'고려대장경 2001' 나왔다

통합대장경 시안도

지난해 12월 세계 첫 한문 디지털대장경인 '고려대장경 2000'을 선보인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5개월만에 디지털대장경 '고려대장경2001'을 내놨다. 고려대장경2001은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대장경의 오류를 수정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4일 오후 2시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시연회를 통해 발표됐다.

시연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고려대장경2001은 운영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속도를 개선했다는 점 외에도 검색결과의 저장 · 편집 · 인쇄 기능이 추가됐고, '한자자전'과 '불교용어사전' 등이 들어있다. 특히 검색의 경우 기존에 권 · 품 · 경판이나 경전의 이름으로 검색된 것과는 달리 주제 및 조건에 따른 상세 검색도 가능해졌다.

고려대장경연구소 허인섭 학술부장은 "고려대장경2001은 설치는 물론 운영의 안정성과 그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번 시연회에서 통합대장경의 시안도 발표됐다. 통합대장경이란 컴퓨터 상에서 한글, 한문, 범어, 영어, 일어 등 다언어 경전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대장경을 말한다. 시안에 따르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법화경〉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우선 서술 · 인용 · 게송 부분으로 분석해 인터넷 문서로 가공했다.

기본 텍스트 중에는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펴낸 선역본대장경 시리즈의 〈우리말 법화경〉이 포함돼, 통합대장경 제작 과정에서 북한의 대장경이 남한의 기술로 전산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 시안을 25일부터 동국대에서 열리는 2001 전자불전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번 시연회에서 문자정보 입력 중심의 전산화에서 불교문화재와 같은 이미지 정보에 대한 전산화나 불교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14일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 2001' 시연회 모습.



정신문화硏
'향토문화전자대전' DB개발

중앙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돼 온 지방의 향토문화를 집대성한 '인터넷 백과사전' 편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최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전국 256개 지역의 향토문화를 조사, 연구하여 인터넷을 통해 백과사전식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시험용으로 경북 문경시, 전남 장성군, 경기 성남시, 인천 강화군 등 4개 지역의 문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aks.ac.kr/hyangto)에 올려놓았다.

한국향토…'는 각 지방의 역사, 지리, 자연뿐 아니라 문화유산과 구비문학, 정치, 경제,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전체 9개 분야로 나눠 삶의 터전(자연과 지리), 삶의 내력(지방의 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과 이야기(구비전승과 어문학),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 삶의 틀(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삶의 내용(종교와 문화)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제어 검색, 멀티미디어 검색, 분류별 검색이 가능하며 동영상 자료와 음향 자료, 사진 자료도 얻을 수 있다.

정문연 한국학 정보센터 박동준 전산정보팀장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외에서도 우리의 향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중국 불교학연구 전망밝다"

中 정부 지원 활발
학자 · 연구소 증가세

차차석 박사 논문발표



동시대 중국불교학의 흐름과 전망을 진단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 · 사진)는 〈한국불교학〉 28집에 발표한 논문 '개혁 개방 후 당대 중국불교학의 흐름과 전망'에서 "중국 불교학계에서 재가 중심의 종교연구소와 승가 중심의 불학원 등이 설립돼 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30~40대 소장 학자들이 불교학 논저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불교학의 전망은 밝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나 불학원에서 발간한 〈중국종교연감〉(1996년), 〈불교연구〉(1997년), 〈중국종교연구연간〉(2000년) 등 최근 중국불교학의 동향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차 씨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불교의 회통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여러 민족 간의 화합의 방편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불교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씨는 이 같은 변화의 계기로 중국정부가 80년대 이후 실시한 사찰 재산 보호 정책을 들었다. 이렇게 다져진 사원경제의 내실은 중국 불교계 자체적으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41회의 국제학술대회를 열 수 있었던 힘이 됐고, 현재 대만과 일본의 불교학계와 공동으로 정례 학술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중국의 불교학계가 발전했다는 게 차 씨의 설명이다. 또한 차 씨는 대만과 홍콩 자본을 기반으로 수많은 학술서적과 불경, 논서 등이 간행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백화체로 풀어 쓴 대중서적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외에도 차 씨는 논문을 통해 임계유, 조박초, 갈조왕, 홍수표, 양증문 등 중국의 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는 학자들과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 불학원 등 30여 개의 연구 단체들을 조명하고 그 성과를 정리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문화재단신

'한국의 세계유산' 발간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및 불국사, 경주역사지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 문화재를 소개한 홍보 리플렛이 나왔다. 문화재청이 제작한 〈한국의 세계유산〉은 우리 나라에서 등록한 7건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사진과 설명,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가는 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금강산, 고구려벽화고분군 등 북한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유산 잠정목록(예비) 7건도 수록했다.

'문화재연감 2001' 나와

문화재청은 200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 사업, 조사연구 현황 등 문화재 행정 전반에 걸친 자료를 종합한 〈문화재연감 2001〉을 최근 펴냈다. 문화재연감에는 문화재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유형문화재의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보존 · 전승, 7대 문화유적 종합정비 등을 비롯해 남북교류 추진 등 새롭게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내용을 담았다.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격월간 참여불교 창간호(2001년 5,6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권력 현주소는 어디에…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창간기획 좌담 교단자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기획연재
• 국가권력과 종교
•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서



논단
• 재가종무원, 전문직인가 부목인가
• 포교를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특별기고
• 동국대 불교학부 원로- 중진 교수님께 드리는 고언
• 불교회관 이렇게 짓자

교계초점
• 업글없는 말, 괴문서 현상

손혁재의 세상읽기
• 남북화해시대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종교 내적인 자기 정화의
기운이 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입니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종교성인들이 보여준 삶의 길은
탐욕을 벗어난 자유의 삶이었으며, 투와 명예를
벗어 던진 청빈과 겸양의 삶이었으며,
만 생명의 고통을 벗게하려 일평생 길 위에서
쉼이 없었던 정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교단은 교단을 만드신 처음 그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르침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형건축물의 어두운 방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스스로의 깨침과 함께 고통의 현장을 돌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창간특집
-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의 사회적 역할
-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 여부 문제에 대하여
- 권불유학 되살아나는가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gate.net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연간 구독료 2만5천원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생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읍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의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분명. 四柱로는 간단히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하였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니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다본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애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흔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문슨 방인지, 지로 될 수 있는 방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가 순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알아 알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點心을 먹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流布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색용지·흡셀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실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蔡卜子 曉凡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間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달마는 신룡이 떠난 자리에서 입정에 들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㉜

(31)달마동굴의 내력

달마는 천천히 동굴 속으로 걸음을 떼어 놓았다. 발소리는 커다란 울림이 되어 동굴 안에 올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동굴의 데시지인 것 같기도 했고 우주의 소리인 듯 느껴지기도 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살갗을 뚫고 내면의 세계로 스며들었다. 달마는 일찍이 이런 천연의 동굴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치우천황이 득도한 동굴이라고 가르쳐 준 스승 반야다라의 계시가 새삼스럽게 가슴에서 소용돌이쳤다.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강렬한 빛이 굴 구석에서 '번쩍' 하더니 뜨거운 불길이 솟아올랐다. 굉음이 울리면서 온 산이 진동했다. 바위가 구르고 작은 돌이 흙먼지와 함께 하늘로 튀어 올랐다. 큰 나무들도 가지가 꺾이고 잎사귀가 떨어졌다.

달마는 황급히 몸을 낮추면서 벽 쪽으로 붙어 섰다. 그 순간 불길을 따라 금빛 찬란한 화룡(火龍)이 동굴 밖으로 비상했다. 휙- 하는 소리가 하늘을 가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앞산을 넘어 자취를 감췄다. 화룡이 지나간 자리엔 안개만 자욱했다. 현지는 이내 어둠으로 뒤덮였다.

스승 반야다라의 계시

치우천황이 득도한 동굴에 오랫동안 화룡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곳에 보리달마가 찾아들었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 소림사의 사적기(寺跡記)에 보면 오유봉에 있는 '치우동굴'이 '화룡동굴'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달마동굴'로 불리게 된 내력이 자세히 쓰여 있다. '달마동' 또는 '달마동굴'이란 이름은 달마가 소림사를 떠난 뒤에 붙여진 것이고 달마가 9년 면벽할 당시에는 '화룡동굴'이라 불렸다. 이 '화룡동굴'이란 이름은 달마가 동굴을 찾아든 고사와 이적(異蹟)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치우동굴'이었다.

'치우동굴'은 그때까지만 해도 풍상 속에 버려진 망각의 터였다. 아무도 그 곳에 '치우동굴'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치우천황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설로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었다. 바로 그 곳에, 수천년의 시공을 넘어 달마가 찾아든 것이다. 그 곳은 동쪽에서 싹튼 하나(一)의 진법(眞法)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기 위한 터전이었던 셈이다.

〈삼성기(三聖記)〉에는 치우천황이 배달 나라의 14대 환웅(桓雄)인 자오지(慈烏支)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치우천황에 대한 기록은 이밖에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록으로는 〈성호사설〉 〈규원사화〉 등을 꼽을 수 있고, 중국쪽 기록으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대표적이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치우를 엄연한 역사적 인물로 명기(明記)하고 있다.

치우가 중원의 역사에 등장한 연대는 단군왕검의 등극보다 훨씬 앞선다. 〈사기〉의 기록을 보면 치우와 황제가 탁록대전(涿鹿大戰)을 벌였다고 쓰여 있다. 역사 이래로 지나족(支那族) 즉 오늘날의 중국을 이루는 한족(漢族)들은 그들의 조상으로 황제를 받들고 있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황제를 비하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 **뜨거운 불길이 솟아올랐다**
> **굉음이 울리면서 온 산이 진동**
> **금빛 찬란한 화룡이 비상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선 치우천황이 잊혀진 지 오래다. 심지어는 단군왕검의 존재조차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뿌리를 잊은 민족의 비극과 비애는 새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것은 이른바 도(道)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맥(道脈)을 바로 알고 바른 도법(道法)을 배우지 않고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는 법이다.

〈삼성기〉를 보면 치우란 말이 '용'과 관련이 있다고 쓰여 있다. 당시의 속언(俗言)에서 치우는 '우레와 비를 크게 내려 산하를 갈아치운다(雲雨大作 山河改換之意也)'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용이 맡은 소임이기도 하거니와 치우란 말은 오늘날의 '치우다' 또는 '갈아치우다'의 말 뿌리가 된다고도 한다.

달마는 한동안 화룡이 날아간 방향을 응시했다. 절로 합장의 자세가 되었고 어느덧 몸과 마음은 하나가 돼 있었다. 달마는 날아간 화룡이 다름 아닌 신룡(神龍)임을 금새 알아차렸다. 그는 치우천황 이래 2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온 신룡이 이 터전을 자신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떠난 까닭을 새삼 곱씹어 보았다. 그는 이 곳에서 부처님의 정과(正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해 마지않았다.

법의로 두손이 가려져

달마는 합장한 채 멀리 허공을 바라보며 절을 했다. 치우천황과 부처님, 스승 반야다라와 신룡의 보살핌과 자비가 천지에 가득한 듯했다. 달마는 스승으로부터 받은 일자(一字)진언을 무수히 외운 다음 절을 마쳤다. 그리고 나서는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폈다. 신룡이 떠난 자리엔 아직도 서기(瑞氣)가 감돌았다. 좌선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달마는 다시 굴 밖으로 나와 소나무 가지와 풀뿌리, 칡덩굴을 엮어 빗자루를 만들었다. 팔을 걷어붙이고 굴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달마는 비록 헤진 법의지만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신룡이 떠난 그 자리에 가서 좌정했다. 두 눈은 살짝 내려 코끝을 보고, 코는 단전 자리를 보고, 단전은 마음에 하나 되게 하여 입정에 들었다.

오늘날 소림사의 '달마동굴'에 모셔진 달마상은 당시의 면벽수행하던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 곳의 달마상은 여느 불상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좌법이다. 대개의 불상이 결가부좌의 좌법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달마상은 궤좌법을 하고 있다. 궤좌법이란 무릎 꿇고 앉는 자세를 말하는데 정좌법(正坐法)이라고도 불린다. 우리 나라의 이른바 고불(古佛)의 좌법은 바로 달마의 궤좌법과 일치한다. 고구려의 벽화나 발해 시대의 석상을 보면 한결같이 궤좌법을 하고 있다. 이 좌법은 전통적으로 일좌법(一座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일좌법이란 '하나(一)의 진법'과의 관련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두 무릎을 꿇어 하늘과 내가 하나되게 하는 앉음새가 곧 일좌법이라는 얘기다.



◇보응 스님 作 달마도(무명에 수묵, 141×95cm, 백양사 소장).

달마동굴의 달마상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수인법(手印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불상의 수인법은 대개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인법만 보면 어떤 부처님인지 쉽게 분간할 수 있다. 그러나 달마상은 그런 수인법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법의(法衣)로 두 손이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달마의 수인법은 흔히 비전(秘傳)의 수인법이라고 일컬어진다. 밀교(密敎)에서 수인법이 중시되는 것처럼 달마선법에서도 수인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지어는 세 가지 비법의 하나라고 손꼽히기도 한다. 달마선법에서의 세 가지 비법의 첫째는 현빈(玄牝)의 일규(一竅) 즉 하나(一)의 구멍이고, 둘째는 밀주(密呪) 즉 하나(一)의 진언이다. 그리고 셋째는 비밀의 수인법 즉 하나(一)의 수인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一)의 수인법을 천부(天符)수인법이라 일컫기도 한다. 천부수인법의 전형(典型)은 신라의 화성(畵聖) 솔거가 그린 단군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수인이 두 소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단군의 수인법과 달마의 수인법은 하나(一)의 진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통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치우동굴'이 곧 '달마동굴'로 불리는 사연과도 닮은 꼴이다.

달마는 치우동굴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면벽좌선에 들어갔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앉은 자세로 일관했다. 면벽은 흔히 벽관(壁觀)이라고도 일컬어진다. 한데 면벽이나 벽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다. 면벽의 경우 달마가 벽을 바라보고 앉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풀이와 함께 달마가 벽을 등지고 앉은 것을 말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선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면벽에서 어디를 보고 앉아 있느냐는 아무런 논란거리가 못 된다. 참뜻의 면벽이란 결코 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등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벽관'이란 이런 점에서 면벽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벽관'이란 한 마디로 심성이 빛나고 깨끗하여 마치 구슬처럼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참선에 임함에 있어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입(理入) 그 자체가 벽관이랄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달마는 중생 누구나 자기 안에 동일한 진성(眞性)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객진(客塵)에 장애를 받는 까닭에 그것을 없애지 않고는 진성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것을 이루는 길이 바로 좌정하여 벽관하는 것이다. 벽관하면 궁극적으로 자신도 사라지고 남도 사라진다. 범(凡)과 성(聖)이 하나가 된다. 굳건히 벽관을 지속하면 하나(一)의 길(道)로 통하여 적연(寂然)한 무위(無爲)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것을 일러 '이입'이라고 하는 것이다.

달마의 벽관은 말도 잊고 생각도 끊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은 마음으론 전혀 얻는 바가 없는 무소득심(無所得心)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분별을 넘어선 '중도(中道)'와 무상(無相)의 '실상(實相)'을 증명하려는 것이 벽관인 셈이다. 일체의 성(聖)과 범(凡)에 대한 생각 자체를 쓸어 버리고 일체의 상대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곧 벽관이다. 달마가 금릉에서 무제 소연과 견해가 맞지 않았던 근본적인 분기점도 바로 벽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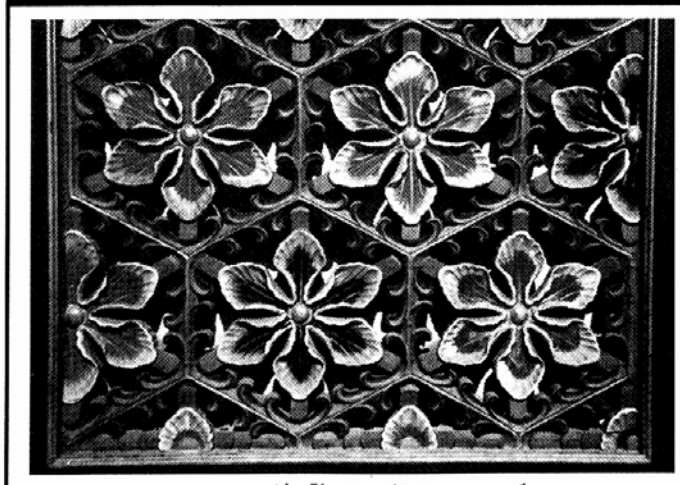
달마의 면벽좌선은 어느덧 시공을 초월하는 듯싶었다. 몇 날 며칠을 지샜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달마의 심성은 날로 초연(超然)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달마는 사람의 몸이었다. 비록 조사의 위치에서 남다른 수행과 도력을 지니고 있기는 했지만 몇 년을 하루같이 초연하여 사물 밖에 처하기는 어려웠다. 그에게 있어서도 불법에서 요구하는 만법개공(萬法皆空)의 완벽한 무아경지에 이르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낮없이 면벽좌선

이 날도 달마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고요한 마음으로 좌선하고 있었다. 그런데 까닭도 없이 온몸에 피로감이 엄습해 왔다. 반쯤 뜬 눈이 자꾸 감기면서 꾸벅이기 시작했다. 달마에게 있어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었다. 달마는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다. 온몸이 떨리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여태까지 해왔던 면벽좌선이 아무 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하는 강한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진정으로 벽관에 들었다면 어째서 피곤을 느끼고 수마(睡魔)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인가? 벽관으로 선정의 바른 가르침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 스스로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많은 승도를 설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만 리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와서 불법을 널리 펴고 선을 전하려는 본래의 목적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 동신전통목공



사 찰 문 전 문

대표 백 영 목 합장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번지 (직지사 검문소 위)

전 화 : (054) 432-1312/공 장 : (054) 432-8121

휴대폰 : 011-535-7000

주요 공사 사찰

직 지 사 . 봉 암 사
각 화 사 . 대 승 사
해 인 사 . 축 서 사
윤 필 암 . 김 용 사
법 주 사 . 운 문 사
봉 녕 사 . 용 문 사
서 광 사 (캐 나 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찾아오시는길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

알기쉬운 불교교리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여름반)
2.교육장소	동산불교회관 (시사일어사 옆)
3.개강일시	2001년 6월 13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 (반명함판 사진 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대한불교 조계종 동 산 반 야 회

자신 돌아보고 '업장소멸' 공덕 쌓기

23일부터 윤달…예수재 유래와 의미

"이생에서 쌓은 나의 업장은 전부 몇근이나 될까." 23일부터 음력 '윤4월'이 시작된다. 지난 98년 '윤5월'을 맞은 이후 3년만에 다시 윤달을 맞았다. 많은 불자들은 생전예수재를 지내고 3사 순례를 봉행하는 등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며 업장소멸을 기원한다.



◇전국 대다수 사찰에서는 23일부터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재'를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 98년 7월 동해 삼화사에서 열린 예수재 봉행 모습.

윤달은 왜 생길까

1년은 열두 달인데 비해 윤달은 음력에서 한 달이 더 붙어난 달이다. 다시말해 음력에서 윤달이 든 해엔 1년이 열두 달 외에 한 달을 더한 열 석 달이 된다. 윤달이 든 해를 윤년이라고 하는데 윤달은 그 드는 달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3월에 들면 '윤 3월'이라 하고 6월에 들면 '윤 6월', 8월에 들면 '윤 8월'이라 부른다. 그러면 윤달은 어떻게 결정될까. 윤달은 24절기와 관련이 있는데 음력 1개월에 절기와 중기가 두 개씩 들어가야 하나 그 중에 한 번 들어갔을 때를 일단 윤달 후보로 잡는다. 그리고 윤달 후보를 다시 검사해 24절기 중에서 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등 12개의 중기가 들어가지 않는 달을

3년마다 한달 덤으로 '재액 없는 달' 알려져

택해 윤달로 결정하는데 이같은 경우가 여러 달일 때는 가장 먼저 오는 달을 윤월로 정한다. 이렇게 윤달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는 약 365일이 걸리지만, 음력 열 두달은 3백54일로 11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양력과 음력의 차이 때문이다.

윤달풍속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윤달은 가외의 달, 덤달, 공달 이라고 해 재액이 없는 달로 친다. 따라서 이사, 산소이장, 혼례, 건축, 수의(囚衣) 재봉 등을 하는 일이 많았다. 〈동국세시기〉를 보면 "윤달 풍속에는 결혼하기 좋고, 수의 만드는 데도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광주 봉은사에서는 윤달이면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돈을 탑 위에 놓는데, 그 행위가 윤달이 다 가도록 끊이질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고 해 서울과 지방의 여러절에서 대개 이런 풍속이 있다"고 적혀 있다.

삼사순례는 왜 하나

불가에서 윤달에 예수재를 봉행한 것에 대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지만 동국세시기 등 문헌에 간간히 소개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로 추정된다. 이후 사찰에서는 윤달 세시풍속의 영향으로 삼사순례, 부모님 삼베수의 장만 등과 함께 업장소멸과 선업을 쌓는 윤달 행사로 정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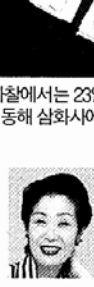
특히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는 생전에 미리, 죽어서 자신의 죄업을 심판할 10명의 염라대왕을 위해 재를 모시고 보시와 수행으로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을 발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런 예수재 의식은 그동안

이사·수의장만 등 많이 해 조계사 사경·참선 법회

소홀했던 자기수행과 이웃을 위한 보시행 등 공덕 쌓기를 도반들이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예수재를 봉행하는 스님들은 설명한다. 삼사순례 또한 재액이 없는 윤달에 3곳 이상의 사찰을 참배해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부처님전에 발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에 불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찰에서 예수재와 3사순례 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계사는 오는 6월9일까지 6회에 걸쳐 생전 예수재를 봉행, 이 기간중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 〈수생경〉 등을 독송하고 사경과 참선, 108배 참회 정진 등을 실시한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시행도 펼치고 회향날에는 고려시대 예수재 의식을 재현한 범패의식과 바라춤 시연, 취타대 행진 등도 여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벌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②

• 단전 호흡법 •



단전은 호흡의 근원이며, 동작의 근원이다.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은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호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호흡법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출생전 태아의 호흡방식

단전 통해 숨 들고 내쉬어

단전의 수축과 이완

1.두손을 단전에 놓고 반가부좌나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2.어깨에 긴장을 풀고 목을 세운다. 턱은 아래로 가게 한다. 긴장을 푼 상태로 단전에만 집중한다.

3.숨을 쉴 때 풍선을 불고 있다고 생각한다. 3분의 2정도 까지만 단전부위로 숨을 들이쉰다. 숨을 들이쉴 때 단전 부위가 약간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다. 숨을 내쉴 때는 마치 풍선에 공기가 빠지는 것 같이 단전부위가 납작해진다. 약간 불룩하고 납작해 지는 것을 느끼면서 단전에 집중한다.

4.더이상 숨을 내 쉴 수가 없을 때 단전을 앞으로 내밀어 단전부위로 숨을 들이쉰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에너지가 항문(천골) 뒤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다시 단전으로 내려오도록 한다.

5.다시 입을 통해 숨을 서서히 내쉬는 동시에 단전 하복부를 서서히 수축한다. 단전부위로 숨을 들어마신다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단전부위를 앞으로 내민다.

불교 컴퓨터게임 첫선

서유기 응용 '니르바나' 출시 오락하며 교리공부 저절로

사찰의 구조 등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 출시됐다. '니르바나'는 삼장법사가 불경을 구하러 천축에 가는 과정을 담은 '서유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컴퓨터 게임으로 불교를 주제로 한 컴퓨터 게임은 '니르바나'가 처음이다.

'니르바나'는 삼장법사가 여행도중에 만나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등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마왕 등을 무찌르기 위해 퀴즈문제, 슈팅게임, 뿅망치 게임 등 미니게임을 통과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 주인공 삼장법사가 해탈에 이르게 된다. 삼장법사는 문제



◇컴퓨터 게임 '니르바나'의 화면 모습.

를 풀면서 대웅전에서 법력을 키워나가기도 하고 미래의 부처를 모실 미륵전을 조금씩 건설해 나갈 수도 있다. 특히 이 게임에서는 삼장법사가 천상에서 바위에 깔려있는 손오공을 구하기 위해 불교교리에 대한 OX 퀴즈를 풀어야 한다. 또 저팔계를 불교에 귀의 시키기 위해서는 '찬불가 가사 맞추기 게임' 역시 통과 과정중의 하나다. (02)534-9441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보시행의 공덕 ㊦

지금도 병원 한 곳을 들어가려면 배타 정신이 강한 타 종교인들의 견제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봉사활동 하는 병원들도 처음에는 무척 어려움이 따랐었다. 처음 몇 달동안은 10여차례 이상 그곳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의논하고 설득했다. 앞으로 우리 봉사자들의 신심과 노력으로 대구 전역의 병원에 걸쳐 목욕봉사할 계획이다.

나는 목욕 보시팀에서 법사직을, 기도팀에서는 회장직을 맡고 있다. 번거롭게 어떤 모임에서 직함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불교 신행모임에서의 직함은 나에게 주어진 또하나의 소임이라 믿고 열심히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있다.

"불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기 보다는 타 종교와 화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열린 종교입니다"라고 자주 강조한다. 또 서양인들에게 불교가 인류 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철학과 사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는다. 특히 유명한 미국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등이 불교신자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종교가 다르다고 편을 나누어서는 절대 안된다. 다른 종교의 좋은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불자들도 불교의 좋은 점들을 일



그림 · 이준석

자비의 봉사활동 '포교 지름길'

내가 활동하고 있는 봉사 단체의 목욕팀과 기도팀에는 각각 60명 정도의 봉사 요원들이 있다. 평소 이들의 봉사활동 모습을 지켜 보면서 아낌없는 보시정신에 절로 고개 숙여질때가 많다.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이들에게 나는 항상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아울러 우리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보시자들이 생겨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타 종교에 비하면 우리 불자들은 불법을 널리 알리는데 너무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된다. 우리 불자들도 소극적으로 포교하지 말고, 이제는 불자란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하고 싶다.

나는 목욕봉사를 나가면 환자들에게 반인들에게 알리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침에 잠을 깨니 내가 간호한 몇 명의 환자들이 생각난다. 매일 아침 그랬듯이 그들을 위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조용히 기도 드린다. 그리고 그들의 쾌유를 비는 〈법화경〉 사경을 한다. 목욕 봉사 활동을 하며 겪었던 희비애락을 모두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처음 시작할때는 3년만 해야겠다고 생각 했지만 이제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 한 그들을 계속 찾아다니며 작은 힘이나마 의지가 돼 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힘든 고비가 닥칠때마다 도반이라 생각하며 함께 의지하고 서로 격려해 주었던 등료 봉사자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도재권(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심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圖補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国福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林西翁謹書

■ 주전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자기 중심 바퀴축에 의지해 살라

여여하게 살아가려면…

문 어떻게 하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요?

답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그냥 물 흘러가듯 하고, 뜬구름 흩어지듯 하고 그래서 '고(苦)가 없다' 고 하는데, 무엇을 잡고서 내가 이것이 어떠니 저것이 어떠니 할 것이 있겠습니까? 구름을 잡는 것과 같고 물 한 주먹 잡는 것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생각으로 고에서 허덕인다고 해야합니까. 한생각이 능숙하고 지혜롭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홀홀 털고 살아갈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화해서 지나가 버리고, 자기조차도 몸 안에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면서 공해서 돌아가고, 바깥에서도 공해서 돌아가고,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는데 거기 병불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고가 불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업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즐거움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배우가 영화를 찍어서 영화가 막이 내리면 맡았던 배역도 끝나듯이 인생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다만 오직 자기의 중심인 심봉을 의지하고 돌아가라." 고 하는 겁니다. 바람에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그렇게 인생살이가 돌아가는 것이니 가운데 중심을 쥐고, 즉 말하자면 바퀴가 돌아가듯이 심봉을 쥔다면, 심봉은 끄떡도 안하고 힘만 배출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바로 찾고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거기에는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못나고 잘나고, 여자고 남자고, 낮고 높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오직 내 심봉을 딱 쥐고서 그대로 흘러가듯이 돌아갑니다. 이 심봉을 의지한다면 바퀴가 이탈되지 않으니까요. 심봉이라는 건 반야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주처라고도 할 수 있고, 자아라고도 할 수 있고,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러니 다만 그 근본처를 의지하면서 오직 함이 없이 하면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한 찰나에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고 여여하게 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성불의 진정한 뜻 무엇인지요

문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초심자입니다. 절에 다니시는 모든 불자들이 항상 합장인사를 하며 '성불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성불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성불이 목표라면 어떠한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자기 마음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아무리 해결 해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신 똥누어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신 자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신 먹어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느 때 깨달은 스님이 계셨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도 스님같이 깨우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 상 들여오너라" 하고 시자에게 일러서 겸상을 차려 오게 해놓고 동생의 밥과 반찬을 모조리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너 배부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 오라버니가 다 잡수었는데 제 배가 어떻게 부릅니까?"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다. 네가 하지 않는 일을 어찌 내가 해줄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은 대신해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은 대신해 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듯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말로 일러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스스로서 내 안의 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결단코 알고,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내 안에 믿고 맡기면서 하나하나 체험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걸 말로 알려 주어서 성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고 생활에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면서 수없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이 하나로 돌아가면서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성불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성불이라는 것도 이름해서 성불이지,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어찌 성불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마는 가리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하고 말로만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성불을 뒤집으면 불성이 되듯이 불성이 본래 모두에게 있기에 누구나가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 다 제쳐놓고 내 안의 에너지 주장자를 진짜로 믿어서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 마음의 도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수행의 끝 어디입니까

문 수행의 끝은 무엇으로 증험 할 수 있습니까?

답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는 행선이요, 누워서 하면 와선이요, 서면 입선이요, 앉으면 좌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것도 참선이니까 말입니다. 지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데는 끝이 있다, 시작이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대로 돌아가니까 그대로 따라서, 바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게으르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아주 편리하게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제자가 은사더러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시끄럽고 복잡해서 산에 올라가서 토굴을 짓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니까 은사스님께서 "너 혼자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야 복잡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선뜻 대답하시고 나서 "너 혼자 하려면 첫째, 오장육부에 있는 생명들을 다 꺼내놓고 두 번 째, 남이 짠 옷감이니까 입지 말아야 하고 세 번 째, 남이 농사를 지은 거니까 먹지도 말아야 하고 네 번 째, 네 것이 아니니까 땅을 딛지도 말아야 하고 또 물을 마시지도 말아야 하고 불도 쓰지 말아야 하고, 바람도 쐬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게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니까 절대로 나무도 베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재주가 있으면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느 날 은사스님께서 "너 아침 공양을 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냥 무릎을 치면서 '하! 정말 내 몸 속에도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모두 복잡하다고만 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참회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너 아침 공양했느냐?"하고 물으니까 "식기 닦았습니다." 하더랍니다. 그건 뭐냐하면 벌써 밥 먹고 지나갔습니다 하는 소리나 똑 같습니다. 지나간 거를 물으니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나가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직 포착이 안 됐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얼마큼의 차이도 붙지 않고 나오게 되겠죠.

현재 내가 생각·말·행동 잘 하는 대로 내일 일 주어지니 비참하고 가난하고 고통속에 헤맬지라도 긍지 잊지말라



그림 · 최주현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 몸도 지구와 같이 모든 생명들을 한데 모아서 살고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다스리는 그 주인공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어 왔으니 바로 나의 주인이로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실행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

문 스님 은혜에 감사 드리며 공부중인 불자입니다. 일전에 스님께 아이와 저 자신의 문제로 문의를 드렸을 때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둘 아닌 주인공에 놓고 관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유산을 주장하던 집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돌려 지금은 생후 일 개월이 된 건강한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헤매기만 하던 제 자신의 마음이, 혼란한 중에도 항상 관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말에도 시간을 내지 못하여 따로 시간을 갖고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걷거나 앉거나 화장실에 가서도 마음을 관하는 것으로 공부를 대신 합니다. 좋은 글들은 따로 적어 지니고 다니며 틈틈이 열어 봅니다. 얼마 전 5조와 6조 스님의 대화 중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이라는 구절을 접하였는데, 눈물이 날 것 같고 뭔가 아련하긴 한데 답답함만 가득하여 다시 스님께 가르침의 말씀 청하옵니다.

답 마음은 머물지도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한마음으로. 쉴 사이 없이 쳇바퀴 돌아가듯 지구도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당신도 지금 머무는 바 없이 그냥 막 돌아가고 있어요. 고정됨이 없이 그냥 막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짊어지고 온 것도 없고 짊어지고 갈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바가 없이 지금 머물고, 머무는 바가 없이 또 머물고 이렇게 하니까 머무는 바가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공해서 돌아가니까 머무는 바가 없이 돌아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자기 발전소부터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부터 알면 날더러 물을 필요도 없이 자기 한 손가락에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행하는 도리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도 가질 게 없다는 것을 내 어찌 알았으랴, 또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어찌 알았으랴, 내가 참이라는 것을, 참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으랴, 모든 것을 내가 구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랴, 이런 뜻으로써 한데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내기 이전은 내 마음의 선장이고, 선장으로 섬기고, 마음 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서 몰록 놓을 수만 있다면, 몰록 놓되 그냥 몰록 놓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구정물을 새물로 만들어서 놓고, 그러니까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도 경(經)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 더디니까 아예,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 과정을 다 새삼스럽게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 생각 내기 이전이 자기 뿌리니까요. 그대로 믿고, 양변을 다 거기다 믿고 놓으면 그 가운데서 시원한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샘물이라는 것은 만법의 근본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며 또 생활인 것입니다.

'일체 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라고 선법가에 있죠? 일체 제불의 법이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이다, 일체 제불의 몸은 일체 중생의 몸이다, 일체 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 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선행하는 것도 악행 하는 것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고 노래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생활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확실히 해나가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놓으면 노력 안해도 됩니까

문 주인공에게 맡기고 놓으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믿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은 것입니까? 그런 자신감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본래의 나는 수억 년의 세상을 살아왔고 우주의 모든 것들과 닿아 있으니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만을 절대로 믿고 있다면 노력 없이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도 같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될 것이다' 하고 마음 푹 놓고 있는 것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부단히 노력한다면 될 것이다' 중 무엇이 옳은 것 인지요? 또, 그렇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요즈음 제가 힘들어하는 학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자꾸 남들과 저를 비교하며 남들을 시기하고 있지만 정작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실제로 열심히 해지지가 않습니다. 막연히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긴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속은 텅 비고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너무나 철두철미해서 아니하고는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저께가 과거고 조금 전이 과거고, 이 시간 후가 미래고 내일도 미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생각을 잘하는 대로, 행동을 잘하는 대로, 말을 잘하는 대로 내일 일이 주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 속에서 헤맨다 하더라도 그 긍지만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맷돌의 심봉을 제대로 꽂지 않았으면 물건을 넣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방향이 딴 데로 틀어집니다. 마구 그냥 쏟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갈아지며, 전기와 전깃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라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마음 내기 이전의 내 마음 선장이 올바로 투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나가는 생각이, 욕심껏 그렇게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3%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비중이 크니까 그리로 돌아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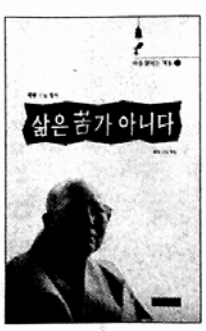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두지 말고 진짜 크게 먹으려면 진짜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 살리고 있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요 관리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전체 몸뚱이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 또한 둘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 쓰기에 달려있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규정적으로 돼 있는 그 의식들이 바로 화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주게 해야 업보, 인과, 윤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무너져서 내 마음 하나로다 돌아가게끔 되게 돼야 이게 딴 데로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 그 자체의 근본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하고 물러서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맷돌에 심봉을 꼭 끼워 놓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다 갈려서 나오듯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거기 들어가서 갈려 나옵니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 재생이 돼서 나오구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불바퀴와도 같고 용광로와도 같고 또는 자가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포함돼서 돌아가고 있습

☞ 20면으로 계속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번뇌망상 끊으려 말고 그냥 놓아라

☞ 19면에서 계속

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장하다 어떤 게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지 귀중하다고 하는 말을 항상 해드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 마음 이 자체가 그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데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 마디,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선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자체가 아주 간단하지만, 말은 간단하지만 행은 간단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아주 단호히,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행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 오신통도 놓아야 하는지

문 스님께서는 왜 오신통도 놓아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오신통을 했다 하더라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신통을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신통을 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해탈을 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해탈을 구하려고 아니 해도, 부처를 구하려고 아니 해도 저절로 구해집니다. 욕심이 앞서면 바로 눈이 캄캄해집니다. 욕심이 앞서면 문을 찾아서 나고 들어야 하고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진짜 사랑 아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문 아닌 문이 있으니, 전체가 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뿌리에다 놓고 관하라고 했습니다. 뿌리에다 놓고 관하되, 함이 없이 하는 관이 만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한 군데서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을 관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아는 것도 놓으라고 했거든요. 즉 말하자면,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게 있잖아요? 또, 남이 어떻게 오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 하는 그런 것, 잘될 건가 못될 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이런 걸 아는 것이 숙명통입니다. 그것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신통력을 다 놓아야 그 신통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오신통에서 벗어나면 그냥 오신력이 됩니다. 그냥 무심으로써 되는 거죠. 그럼 무심을 놓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통 털어서, 사생에 대해서 이 모든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놨을 때는 오신통에서도 벗어나는데, 거기에서도 놔서 벗어나는데 그 무심에서도 또 놔야 되거든요. 그 무심조차도 놔야하는 것에서 사무 사유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한데 합쳐보면 저런 별성이라든지 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이 그냥 전부 나오는 겁니다, 전부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를 하고 있고, 뭐가 되어 있고, 뭐가 어떡하고 있고 이런 게 전부 법망으로 인해서 그냥 쫙 통신이 오는 거죠. 이 통신이 오고 하는 것도 요렇게 거울을 갖다 놓고 보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것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놓는 게 세 가지입니다. 계단 없는 세 계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방대하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그것도 놓는 겁니다, 무심에다 놓는 거죠. 그거를 놓지 않으면, 그 모두를 속속들이 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가다가 중지해 버리는 게 되고, 잘못하면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부분을 알고 아, 이거 족하다 이러고 놓지 않는다면,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먹을 수 있지, 딴 데서는 그 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딴 세계 대통령이 됐어도 그것도 마저 놔라 이겁니다. 그건 왜? 우주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우주 대통령마저도 놔야 그게 고정됨이 없이 전부 삼천대천세계로 이른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신통력에 매이면 그건 신통을 못하고, 아무리 구름을 타고 날고 제 아무리 신통력을 부린다 해도 그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놓는다는 이 방법이 무척 무서운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놓는다는 게 첫번으로 아주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그저 부처가 됐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나는 이렇게 잘한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여기에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되지, 생활을 이만하면 해가지' 하는 그런 머무름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둔다면 그 한계 지워진 그릇에서 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통하게도 신통력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겁니다. 신통력을 가지고 신통하게 해 나가시는 분도 신통하고, 또 신통하게 해 나간다고 보는 사람도 신통하고, 그러니 두 신통은 바로 신통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가까워서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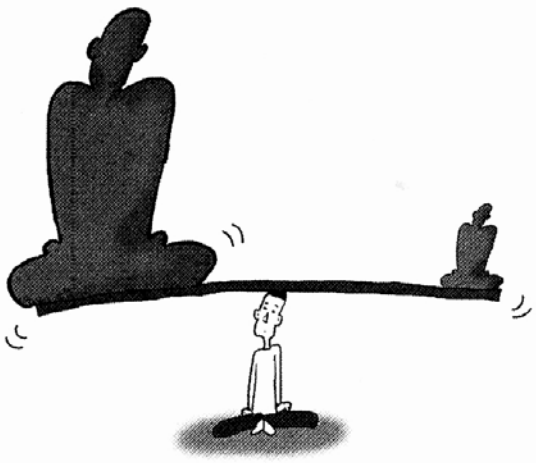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삼계속에서 몸 · 마음 안 움직여야 좌선

자불에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 살라

주인공은 의지와 다릅니까

문 주인공에 관한 글을 읽어도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내 모습을 보니 스님께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꾸만 글을 읽다보면 '이건 자신의 의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될 때는 종종 내 자신에게 최면 같은 거라 할 수 있는 의지상태로 밀고 나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별거 아니야, 분명히 된다" 하는 식으로 입력을 계속하는 거죠. 스님! 이 주인공 공부는 그런 나의 의지하고는 완연히 다른 것 같은데요? 가르침 바랍니다.

답 털구멍 하나가 만약에 자불이라면 모든 걸, 이 세상을 다 넣어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털구멍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하서, 그저 생기면 여기다 넣고 생기면 여기다 넣는다면 불을 게 없고 집착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멸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다 없는 거죠.

그냥 모두 한 털구멍에 다 넣어버리는 거와 같이 바로 자기 자불에, 자불이 주인공이니까 그냥 주인공에 다 놔버리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에 걸렸다고 의사들이 그런다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모두들. 바깥으로 끄달리는 거죠, 그게. 의사한테 그냥 100%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사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반은 분담을 해서 의사 반, 나의 마음 반이 돼야 됩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 싹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의사도 그 자부처의 인연으로 만난 거니까 다른 손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주인공은 뭐 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름 불러도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색경을 보면 자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색경을 보지 않고 자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못 믿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自神)'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신! 자신이 쭉 형성돼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그렇게 삼신할머니라고 붙였으니까 그렇지 자불이에요. 자불이 그렇게 길러서 어느 때까지, 백일 때까지 그 과정을 모르게 딱 정돈해 놓고는 그때서부터는 바깥에 있는 모든 거를 배우게끔 만들죠. 만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수없이 그렇게 겪어오면서 그 자불(自佛)이 자기를 형성시키고 또 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간까지 올려놓았는데도 이제 와서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친근하게 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자기의 근본, 자불이죠. 자불! 그 자불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송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의 나무는 당신의 뿌리를 믿고 '너 뿌리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어. 뿌리만이 가지와 잎새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어.' 하고선 모든 걸 거기다가 던져놓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출가 않고도 선방갈 수 있나요

문 스님 법문은 불교TV나 컴퓨터 영상법문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마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스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에 진한 존경심과 함께 정진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생깁니다. 저는 저녁에 회사를 마치고 참선 방에 가서 하루 두 시간씩 공부를 하고 가족들과 같이 집에 옵니다. 선방에서 공부한 지는 5년 정도 되어도 크게 나아감이 없어서 요즘은 출가를 해서 오직 화두에만 전념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나 제가 장남이고, 그리고 출가를 해도 행자 생활 등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선방에 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사회 생활을 하지 않고 공부를 5년 동안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선을 해서 그런지 속가에서 사는 현실이 너무 무의미하고 누구와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저와 여동생은 선을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스님, 제 소원이라면 우리 부모님을 제가 직접 천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출가를 하지 않고도 선방에는 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현명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답 우주 천지의 근본은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사는 인간의 마음에 가설되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도 종교도 사랑도 미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데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신부터 믿고 일체를 맡겨 놓고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제자나 유발 제자들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이자 방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과 유마힐거사가 몸과 이름은 각각이지만 오고 가는 사이도 없이 마음은 한마음, 바로 한 주장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병이 나게 해서 보살들을 보내게 했던 것도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방편이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유마힐 거사의 병문안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사리불은 유마힐 거사의 병 문안 가는데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를, "제가 숲 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유마힐이 찾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도 온갖 행동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안에도 바깥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좌선하는 이라야만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병 문안을 가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사는 것이 고정되지 않으니 안에도 바깥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경을 읽어보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아마 뜻으로는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니라 했는데, 가만히 보면 번뇌망상을 끊어야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끄달려 돌아가니, 망상을 끊겠다고 애를 쓰는 자체가 또한 망상인데 그게 어디 끊어지겠습니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마음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묶여진 게 없습니다. 나쁘고 좋은 것 모두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한 고로 끊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만이 오직 좌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곧 해탈 길로 들어가며 열반에 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좌선하는 이라야만이 부처님이 인가하실 것이다라고 유마힐 거사가 말을 하였다면서 병문안 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그러니 계율을 지킨다 범한다는 말 없이도, 내가 참선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구분이 없이 한 발짝도 헛되게 떼 놓지 않고, 말 한마디 헛되게 떨어뜨리지 않고, 한생각도 평등한 마음 아님 없는 그러한 행을 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9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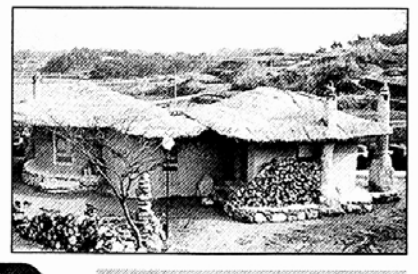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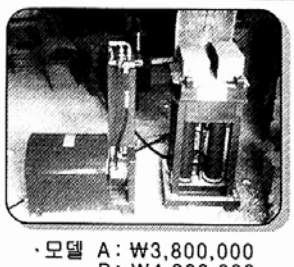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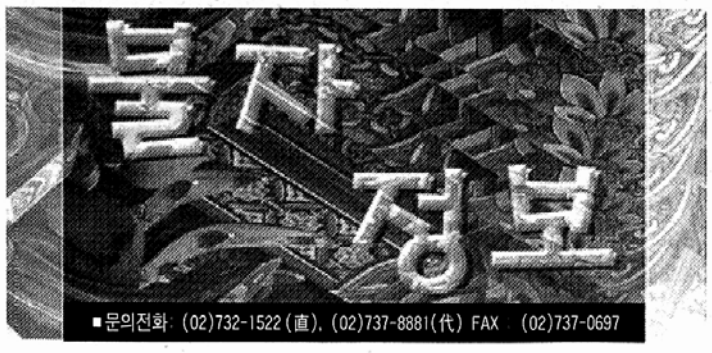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1년 6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01년 6월 11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순 구리로 만든 행운의 동(銅) 달마도

귀의 삼보하옵니다.
성주조형예술원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행운의 동 달마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장기간에 걸려 개발한 연구작품입니다.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액자 전면을 동으로 처리하여 만든 '행운의 동(銅) 달마도'는 나쁜 기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가정 및 사무실에 걸어 놓으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 재질 100% 구리
▷ 크기 가로 550cm × 세로 880cm
▷ 가격 120,000원
가격 30,000원 ◁
재질 100% 구리 ◁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 중! 가로 275cm × 세로 400cm ◁
성주조형예술원 031-311-3389 017-232-2858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123-1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락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법왕사 행자(男)모집
◈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서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고졸이상의 40세 미만 (단, 고졸이하는 검정고시 교육후 자격 부여됨)
◈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 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함 ◎21세 전후 환영
문 의 : ☎ 053)766-3747, 9088
인터넷 : www.bubw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한방 다이어트로 살과의 전쟁 쉽게 끝낸다
모든 문제성 비만 고민 주저말고 어서 전화주십시요.
① 과립형으로 된 초간편 한방 다이어트로 해결해드립니다.
② 여기저기 아프고 체질적으로 살이찌십니까?
③ 오가피와 한방다이어트로 해결해 드립니다
080-700-5700
02)444-4194

벽조목(霹棗木) 뿌리
◎ 수령 약 600년 탁장용으로 수가공 함
◎ 토굴 불사에 악간의 도움을 주시면 양도코저 함
◎ 진귀한 영험있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054-383-8553
011-813-3679 지장암

의정부 **운불련**
개인 콜 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공양주보살님,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 60세 미만
02)877-7514

포교당 안내
• 평수 : 40평 방 3개 최고급 시설
• 가액 : 천만원 (사정상 급매)
02)2618-0912

여 종무원 구함
▷ 나주 불화사
061)337-3440

신심이 많은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충청도
011)9412-926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서해 바닷가 사찰
▷ 종무소 총무보살 구함
(컴퓨터 사용 가능한 30~50세)
▷ 기도 봉사하며 수행 할 보살 구함
(운전 가능한 30~35세)
041)673-1888

공양주보살 구합니다
▷ 공주시
60대 초반, 월40만원
041)841-7904
017)357-7904
017)261-7905

운전기사 구함
신심이 돈독한 40세이상 거사님
062)261-1529
011)9621-8700

붓 다 마 켓
www.BuddhaMarket.com
인터넷 불교 용품점
도매(B2B) × 소매(B2C)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5-12
051)583-7939

- 포교당 안내 -
• 위치:부산 사상구
• 평수:60평 3층 건물 3층
• 가액 : 2천만, 월 35만원
- 암자 자리 안내 -
• 위치:경주시 산내
• 평수:875평 건물 2동 85평
• 가액 : 1억 9천 오백만원
051)208-9966
011)551-171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가창면
• 법당 : 40평(목조)
• 대지 : 3천평(1,500평중)
• 요사채 : 40평
• 전세 5,000만원 교환가능
• 가액 : 답사 후 결정
교통편리
016) 618-7609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박산 도량
• 부지 : 830평
• 건물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씩 각각 3채 산신각 종각 미륵부처님 지장전
• 가액 : 상담 후 결정
• 특징 : 기차역이 걸어서 5분거리 터미널 걸어서 3분거리 마당까지 차가 들어옴
011)753-0768

스님,행자 초빙
큰스님 지도하에 수행 기도 하실 출가 희망자, 기도스님 모심, 창건 사찰
경남 밀양 얼음 골
055)356-1394
055)356-5968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찬불가를 부르고 싶으신 분을 위하여 일정 스님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 일시 : 6월 1일(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40 (신라예식장 2층)
· 연락처 : 062) 225-6611
직접통화 (일정스님) 017) 254-8437

▷ 기도 스님 모십니다 (관음 기도 도량)
▷ 평생 같이 사실 공양주 모십니다
▷ 기도, 수양, 공부하실 분 (월 50만원, 숙식제공)
011)855-1116
055)552-4542

스님이 필요한 사찰을 찾습니다. 주지겸 이판사판에 밝은 스님이 필요한 사찰주께서는 연락바랍니다.
011)883-0054
055)864-7344

녹자 판매
지리산 화개야생녹차(햇차)
※ 공장도가 판매
※ 국산 발효차 판매
※ 한통도 주문 可
055) 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화개)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전철역에서 5분거리 사찰 뒤 산
• 대지 : 73평,
• 건물 : 가건물 2동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6천
011)877-9009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홍성군
• 부지 : 대지 650평
• 전 250평
• 건물 50평(인법당)
• 가액 : 9500만원
016)742-2122

암자안내
• 위치 : 김천시에서 거창가는 쪽
• 부지 : 500평
• 부처님 봉안
• 건물 2동(법당 1, 요사채)
• 가액 : 6천만원
054)434-3392

토 굴 안 내
◎ 경북 군위 인각사 부근
◎ 대지 170평 황토집 2채
◎ 인법당 노천석불 모두 수리
◎ 가액 3200만원 조성원가 이하 땅은 공짜 마을 인접 비구니스님적합
◎ 특징 : 안근 통일 신라 대가람터 여름피서지 신도확보 용의
054-383-8553/011-813-36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240평
• 건물 : 50평(신축), 삼존불(석자반),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입법당, 방 3, 화장실 2개, 창고 1, 마당화장실 3, 현대식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차완비, 정남향명당, 전망좋은 뒤는 산, 주위 땅 싸게 매입 가능
• 가액 : 9천5백 (답사 후 절충가능)
011) 501-1640

사찰및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금산 IC 5분거리
• 대지 90평, 건물 30평 인법당(신축양옥)
• 가액 : 8000만원
018)430-4519

포교원 안내
• 스님 일신상 사정으로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 대전 동구 홍도동
• 부지 : 삼존불 신중후불탱화 3층 일체시설 다 있음
• 가액 : 전세 2,00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3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011)294-052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 2천
• 위치 : 용인 • 법당 : 24평 • 요사 : 67평 • 부지 : 67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충주 • 법당 : 17평 • 요사 : 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억 9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 찰 급 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438평(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법당 31평 (목조3프,5프,금단청필)
• 요사: 80평(방10칸,주방2칸,거실)
• 명부전: 10평 (단청필)
• 기타: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71/018)689-0455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아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 평수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2개 화장실 2개 창고, 시설 A급, 주차시설 완비, 식기류 일체 무상 제공
• 가액 : 보증금 1200만 월 20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52)294-3537
011)9315-1200

사찰 안내
• 가액 : 2억 3천(가격조정가능)
• 임야,대지 : 5천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1동(20평)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061)434-7724
019)660-6954
서산사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삼존불, 신중탱화, 실상탱화 40평, 산신탱화, 방 2개, 부엌 1개
• 가액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약간 포함)
018)416-5489

사 찰 안 내
• 위 치 : 성남시 분당소재 절터
• 부 지 : 930평
• 특 징 :
· 산으로 쌓여 있는 절터임
· 분당 서현역에서 10분거리
· 승용차 진입가능 · 대출가능
• 양도가 : 6억 5천
• 위 치 : 부산시 온천장 금정산 밑
• 대 지 : 4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5평
※ 뒤는 산이며 차량진입가능 부산최고의 정진도량 임
• 양도가 : 7억 (대출가능)
한국최고의 사찰건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임지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00평 (문중 땅)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산신각 7평 • 가액 : 1억 6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부지안내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합리 임야,대지,전 등 7637평
사찰부지최적 주택 2동 등 건물 315평 있음
시가 12만 매가 7만 5억3천 입금
02)521-3651
011)9678-250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632-19
• 건평 : 30평(목조한옥,요사채)
• 대지 : 67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53)475-7504
011)819-7504
정법사(기존사찰운영)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동 545 팔봉산 순환도로 대구은행 연수원 건너편 대로변에서 300m 지점
• 건평 32평(방3, 법당 1)
• 대지 : 100평
• 가액 : 8,000만원(가격절충 可)
054)975-7933
011)9596-0130
성불사(기존사찰스님직접운영)

포교원(급)안내
• 법당 : 15평
• 요사채, 방3개(각각 4평씩)
• 삼존불 지장불 관음108불
• 보증금 :無 연 300백만원
• 가액 : 2천만원
052)221-2292
011)544-2191
울산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요사채 : 20평, 인접임야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대지 : 105평
• 요사 : 20평
• 법당 : 18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1)9545-7444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서문 도심포교원(12년전통)
• 4층 건물 3층 70평 종
• 법당 35평 큰방 4개 기타 현대식 시설 법당은 최고시설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 452-8374
031) 252-2796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부평 • 평수 : 40평
• 특징 : 법당, 삼존불 일체설 완비 에어컨 있음 주방 주지실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만원 권리금 상담 후 절충
032)512-5088
011)732-8616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2층 42평, 즉시법회가능
• 전세 : 2,0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429-922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1800평)
• 동강 내리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이 되어있고 천탑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답사후절충
018)533-7780

사찰안내
• 위치 : 광주 시내 중심가
• 1층 유치원, 2층 법당 60평
• 요사채 2채, 대지 320평
• 특징 : 등립산 중턱에 있는 사찰
• 가액 : 약 8억 (절충가능)
011)633-8450
062)368-8450

임 법 당
• 위치 : 경북 칠곡 팔공산하
• 구조 : 방 3, 욕실, 화장실, 창고 (기름, 연탄 겸용 보일러)
• 세금 : 보증금 無 1년 150만
• 탱화일체, 연, 서적, 생활도구, 불기
• 가액 : 일천만원(승용차무료보시포함)
054)976-2248
(오전 11시이후 전화요)
※ 행자모집 ※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 (충주시내 번화가)
• 평수 : 77평
• 건물 : 법당 24평, 약사여래 부처님 사무실 2개, 주방 화장실 1개 숙식가능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000만원
043)856-8856
011)485-8856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체,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 : 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여주
• 대지 : 500평, 답 : 1,150평,
• 대웅전 : 30평
• 지장전 : 20평, 요사채 : 40평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1)지장기도 영험도량 2) 자연 경관 수려 3)경내석조불 및 조경등 여법하게 장엄하였음
시칠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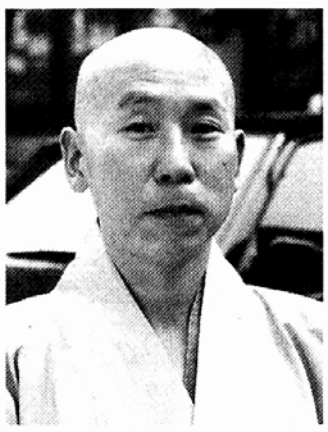
40대 비구스님 조용한 암자 관리하여 드립니다.
▷ 명확한 책임능통
018)567-3217

사찰 안내
• 대지 : 92평 • 건평 : 90평
• 요사채 : 70평 • 법당 : 20평
• 방 6개, 주방 3개, 거실 3, 욕실2, 법당 단청했음미륵부처님 모셨음,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 3억 5천 만나서 결정
영엄한 기도 도량
031)952-7905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사찰을 문화쉼터로 개방"

공주사암련 장곡스님



복지 · 환경등 전문포교 앞장

계룡산 무분별개발 저지 성과

"개별 사찰이 청소년 · 문화 · 환경분야 등 특색에 맞는 포교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이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정신적 문화적 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제 고도(古都)인 공주시에는 마곡사 갑사 동학사 등 유서깊은 사찰이 소재한 탓인지 13만여 시민 상당수가 불자인 불교 도시다. 현재는 불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부권에서 불교세를 자랑하는 곳이다. 91년 창립된 공주시사암연합회 회장인 장곡스님(갑사 주지)은 "조계종 전법도량인 백제불교회관을 대전시내에 건립하는 등 최근 활발한 지역포교로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중이다"면서, "30여개의 회원 사찰들이 저마다 특징있는 포교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가 복지분야를, 원효사 및 불광한의원이 어린이 · 환자 포교를, 갑사와 동학사가 문화 · 환경문제를, 야생화가 핀 생태사찰로 유명한 영평사가 청교련 공주지부를 맡는 등 지역포교의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갑사와 동학사는 계룡산 온천 개발 및 자연사박물관 건립 백지화를 이끌어 내 지역사회의 신망이 높다.

장곡스님은 몇 년전부터 갑사를 시민 · 환경 · 문화단체에 개방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문을 연 백제불교회관에 정부종합청사불자회, 충남도청불자회, 대전경찰청 불자회, 대전언론인불자회, 대전교사불자회, 대불청, 대불련 등 30여개 신행단체가 함께 법회와 사무를 보게 된 것도 갑사에서 맺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 94년 공주불교회관을 건립하고 백제문화제 및 유등제 개최, 영규대사 묘소 성역화 작업 등을 펼치며 활발한 지역포교를 펼쳐 온 공주사암련은 장기 불황으로 인해 불교교양대 운영이 중단되고 회원사찰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도 겪고 있다.

장곡스님은 "회원 사찰간의 유대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각 사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아름다운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 유서깊은 백제문화의 고향, 순박한 인심 등 좋은 포교여건을 갖춘 공주불교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공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북·일 합토 '통일도자기'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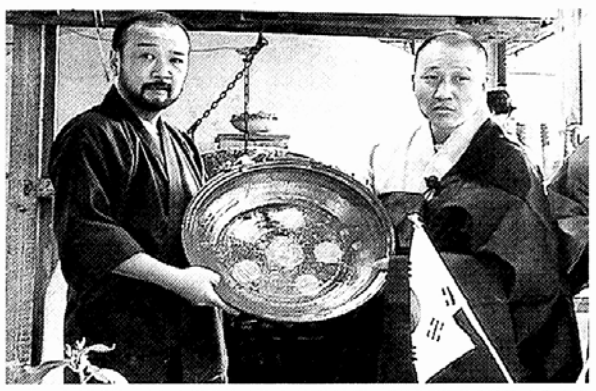
대성사 기념식…전세계 지도자 · 남북불교계에 전달

남한과 북한, 일본(히로시마)의 흙을 섞어 빚은 '통일기원 도자기'가 완성됐다.

지난 7일 일본 오카야마현에 있는 대성사에서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와 일본의 대성사(주지 후쿠덴지 다이에이)가 공동으로 추진한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한 도자기 제작'이 완료돼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 날 기념식에는 실천승가회 대표로 참석한 효림 일문 만정스님과 일본 진언종 최고원로의원 후쿠덴지 가이도(福田寺 戒道)스님, 히로시마의 박승무 총영사 부부와 후원사인 일본 '율산금고'의 지점장 마에하라(前原福昭)씨 등이 참석했으며 NHK, 아사히 신문, 서일본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번에 완성된 '통일기원 도자기'는 지난 2월 26일 파주 보광사(주지 일문) 채토식에서 담아 온 흙과 북한의 흙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아픈 상징으로 남아 있는 히로시마의 흙을 한 데 섞어 일본 대성사 주지 후쿠덴지 다이에이(福田寺 大英)스님이 직접 도자기를 빚어 가마에 들어간 후 보름 만에 완성된 것.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 도자기는 이달 중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내지며, 특히 남북의 정상과 남북 불교계에도 한 점씩 전달될 예정이다.



◇효림스님(오른쪽)과 후쿠덴지스님이 일본 대성사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보낼 통일도자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실천승가회와 대성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 도자기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각국의 정상들과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더 이상 하나의 민족끼리, 이웃끼리 반목하고 질시하는 아픈 현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남한에서 다시금 남북의 정상이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김재경 기자

핵폐기장 갈등 '불심 중재'

강진사암련 공청회 열어 사태 수습



강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현)가 방사성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찬 · 반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화합을 유도해 화제다.

강진사암련은 12일 강진군민회관 회의실에서 찬성 · 반대측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성 핵 폐기물 유치 찬 · 반 공개토론 공청회'(사진)를 개최해 방사성 폐기물의 강진 유치 반대로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간 강진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1조5천여억원 규모의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둘러싸고 경제논리를 앞세운 찬성측과 환경논리를 앞세운 반대측이 팽팽히 맞서 폭력사태로까지 번질 조짐마저 보였다. 전국 어느곳 보다 개신교세가 강한 지역에서 불교계가 지역현안에 대한 중재역할을 맡으며,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개토론추진위원장 혜일스님(백련사 주지)은 "교회 100개, 사찰 16개라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지역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끈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 · 민 모두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지역포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재경 기자

선암사 강원 "중흥"

후원회 만들어 교육혁신

태고총림 선암사는 강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동참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선암사는 우선 올 여름부터 2명의 강사를 새로 초빙해서 내외전(內外典) 강의를 보강하고 특강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태고종 총무원도 현재 선암사 강원에 적을 두고 동방불교대학을 병행 수학하고자 하는 학인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강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사와 후원회원, 일반회원 등으로 구성될 후원회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토대로 명실상부한 태고종립 강원으로서의 위상을 세워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도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허 선암사 주지는 "후원회 구성에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61)754-5247.

이경숙 기자

자비의 산사음악회

혜원정사 26일…수익금 소년가장 돕기

부산 혜원정사(주지 효명)가 소년소녀가장 돕기 열린음악회를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6일 혜원정사 마당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열린음악회의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사용하게 되어 음악회의 감동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기쁨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

이날 열린음악회는 한병창씨의 사회로 김홍국, 고병희, 배따라기, 박정수, 박상운, 불교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해 '바람부는 산사' '유리창엔 비'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호랑나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게 된다.

효명스님은 "주민, 가족간의 화합과 사랑을 다지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며 "좋은 법문도 좋지만 음악을 통한 감동으로 인간 본연의 따뜻한 사랑을 되찾아 그 사랑이 소년소녀가장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음악회를 열게 된 뜻을 밝혔다. (051)866-7772 부산=천미희 기자



5 · 18 21주기 합동천도재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호)는 17일 광주 망월동 신묘역에서 문빈정사 주지 석장, 무각사 주지 광민, 법륜사 주지 월인, 천명사 주지 지명, 신광사 주지 경주 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 · 18민주항쟁 21주기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성호스님은 "5 · 18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대우 및 5 · 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종단소식

태고종

합동득도 98명 승적 취득

총무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태고사에서 제24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수계자 98명(사미 86명, 사미니 12명)에게 승적을 발급했다. 이번 교육은 참회정진, 참선수련, 태고사 참배, 강의,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태고종은 매년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하는 행자들에 대한 승적 발급 기준을 강화시켜 오는 2005년까지 종립학교(동방불교대학 · 선암사 승가대학)를 졸업하는 수계자에 한해서 승적을 주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선각종

5 · 18 맞아 헌혈행사



총무원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선각종, 5 · 18민중항쟁 구속자회와 공동으로 15일 광주 광천터미널 광장에서 5 · 18 정신계승 제 6회 헌혈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사진) 5 · 18당시 진압군이었던 11공수 장병 40명과 31사단 장병 300명이 헌혈에 동참한 이날 행사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 고재유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미타종

천룡정사 관음상 점안

경북종무원이 소재한 풍기 천룡정사(주지 지덕)는 20일 前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을 증명법사로 해수관세음보살상(27자) 점안식을 봉행했다. (054)638-1355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현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백련사 '재가자 무문관 수련' 현장

3~7일간 폐문 묵언·참선 정진


◇백련사 종무원이 무문관 뒷쪽에 난 음식물 출입구에 점심 공양을 넣고 있다.

한국불교 최고의 수행법으로 구참 수좌들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혹독한 '무문관 수행'. 문을 걸어 잠근 채 일체 외부와 단절하고 벽만을 향한 채 오로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 화두를 타파해 가는 치열한 자기와의 한 판 승부인 무문관 수행을 재가자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무문관 선방인 백련선원(조실 천운스님)을 낙성한 전남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가 재가자를 대상으로 단기 무문관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6월 2일까지 재가자 무문관이 개설된 백련선원에는 오직 바람소리만이 간혹 들리고 있을 정도로 고요했다. 백련선원에는 재가자들이 5명씩 5일 혹은 7일 동안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묵언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요란한 세상사를 잠시 접고 산새 소리만 들리는 산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재가자들의 치열한 정진이 벽을 넘어 생생하게 느껴져 왔다.

현재 공식적인 무문관 선원은 갑사 대자암 삼매당, 백담사 무금선원, 제주 남국선원을 포함한 네 곳. 토굴에 개설된 개인 무문관까지 합치면 3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백련사가 무문관을 개설하

40평 건물 5개 독방

'선승 닮기' 구도행

면서 수좌들의 동·하안거 결제철을 피해 재가자 무문관을 개설한 것은 말로만 듣던 무문관 수행을 재가자들이 체험토록해 발심의 계기로 삼기 위한 것. 법무사 출신의 박찬홍(72) 거사 등 오랜 참선수행을 해온 재가자들이 성공적으로 7일간의 백련선원 정진을 마치는등 재가자들의 수행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역시 7일간의 무문관 수행을 회향한 원만심(72) 보살은 "수선회에서 쌓은 정진력으로 무문관 수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면서, "단기 무문관 수행은 직업을 가진, 바쁜 재가자들에게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백련선원은 건평 40평에 5개의 독방이 갖추어져 있으며, 욕실과 철저한 방음시설 등을 갖춰 오랜 기간의 무문관 수행에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식사는 아침 점심이 제공되며, 저녁은 과일과 떡으로 대신한다. 백련사는 입방비를 받지 않는 대신, 참선수행 경험과 신심 등 수행요건을 갖춘 재가자들을 입방토록 해 수행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백련사 주지 혜일스님은 "백련사 무문관에 5명의 스님이 방부를 들여 윤4월 보름(6월6일)부터 3개월간의 결제에 들어가기 전, 재가자를 대상으로 단기 무문관 수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재가자들도 무문관 수행을 체험해 더욱 발심해 수행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61)432-0837

강진=김재경 기자

김태복장군 관련 국방부 성의없는 회신

상고철회 · 관련자 문책 조계종 요구에 무응답

국방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김태복 장군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성의없는 회신을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민원 회신서에서 "국방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 불교계를 기만하거나 특정 종교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김태복 장군 사건은 개인적 비리행위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이고, 그 결과는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는 "4월 19일 총무원장 스님이 보낸 공문에는 국방부의 상고철회, 관련자 책임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방부가 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불교계에 장난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번 사건을 개인비리로 인식하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사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제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포교사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7개 불교단체들은 1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김태복장군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5월중에 구성키로 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두식 기자

조계사 화성 망실토지 되찾았다

고법, 정부항소 기각

조계사가 경기도 화성의 옛 태고사 소유였던 망실토지를 최근 되찾았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25-1번지에 소재한 341㎡의 토지에 대해 정부가 조계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던 항소가 지난 15일 기각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지난해 8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땅은 1936년부터 1944년 사이 각 지방 사찰에서 태고사에 증여됐던 것으로, 6.25 전쟁과 행정구역 변경, 종단 내부 변화 속에서 60여 년 동안 관리되지 못하고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9년 재정경제부 임의소유로 등록됐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망실토지에 대한 조사 및 소유권 확인작업을 벌여온 조계사는 일제시대 총독부관보 기록을 찾아내 이 토지가 조계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밝혀냈다.

한명우 기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100명 장기기증 신청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100여명이 일제히 장기기증을 신청해 화제다.

지난 9일부터 3일간 생명나눔실천회와 대학연합동아리인 'life share'가 동국대에서 벌인 '장기기증 캠페인'에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단체로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특히 97학번 40명 전원은 골수기증까지 서약했다.

이번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단체 기증은 'life share'의 45명 회원중 10명이 이 학과 학생인데다, 회장도 경찰행정학과 학생(장현석 · 4년)이 맡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장현석 군은 "아직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미진하지만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인식이 바뀔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며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문화학과 등 신설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는 10일 2002학년도 정원조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2001학년도 대비 140명을 증원하고 불교문화학, 창업경영학, 아동학, 건축설계학, 산업디자인학 등 5개 학과를 신설했다. 또 대학원에는 외교통상학과와 영어영문학과를 신설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사가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서울노인복지센터 개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고 조계사가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18일 오전 복지관 3층 중앙공원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사회부장 양산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해 고건 서울시장과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 정흥진 종로구청장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참석했다.

탑골공원 인근 종로구 경운동 (구) 통계청 자리에 세워진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총건평 2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별관으로 건립됐으며 진료실, 공동작업실, 자원봉사실, 체력단련실, 이 · 미용실, 온돌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서예 · 바둑 · 댄스 · 영화관람 등 각종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하루 2천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새로운 노인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및 가족 프로그램 설치, 노인자치기자단 구성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영락사 시민선방 개원

대구 영락사(주지 구공)는 16일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 '시민 참선 도량' 개원식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영락사는 개원과 함께 오전 4-6시, 8-10시, 오후 2-4시, 7-9시 등 하루 4차례에 걸쳐 시민들에게 참선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매주 일요일 한차례씩 기초교리 강좌도 가질 계획이다. (053)784-9290 김재경 기자

스님이 국고보조금 23억 횡령

범어사 대책위 구성 "관련자들 엄중 문책"

부산 범어사 재무국장 석호스님이 문화재 보수비 등 국고 보조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불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96년부터 범어사 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70억 여원 가운데 23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자취를 감추었던 범어사 재무 석호스님이 17일 자진출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호스님은 문화재 시설 보수, 신축공사에서 목재구입비나 공사금액 등을 허위로 작성,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석호스님의 허위서류에 맞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준 부산 금정구청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범어사는 15일, 16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사건 관련 운영위원회 및 종무협의회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위원회(위원장 중원)를 구성했다. 중원스님, 정만스님, 원정 스님 등 10명의 스님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불자들 및 관계기관에게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범어사 내 소장 스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승가모임은 15일 범어사 내원암에서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범어사 자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련암 대하스님을 중심으로 15명의 젊은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승가모임은 서명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주지 성오스님을 비롯, 재무, 총무, 규정, 교무, 포교, 기획, 사서 등 소임자들이 일괄 사퇴할 것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산문총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국사 말사 턴

3인조 강도 붙잡혀

경북 경산경찰서는 14일 심야에 흉기를 들고 사찰에 침입, 탱화와 시주함 등을 털어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박모(26.무직.경북 경주시 건천읍)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경북 경주시 서면 천촌리 소재 불국사의 말사인 주사암 요사채에 흉기를 들고 침입, 현금 170여만원이 들어있던 시주함과 벽에 걸린 탱화 5점 등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앙코르 유적군서 석불 103기 발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군에서 13세기 석불 103기가 발굴됐다고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발굴작업에 참가한 일본 조치(上智)대 앙코르 유적조사팀은 "유적 참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 옆에서 대부분 머리가 잘려나간 상태로 이들 불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프놈펜 국립박물관 측은 감정을 통해 "이들 불상은 크메르 미술의 걸작품으로 모두 국보급 수준"이라고 밝혔다.

불상들은 13세기 초 자야바르만 7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전사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바이욘' 유적과 같은 양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높이가 30cm밖에 안 되는 작은 것에서부터 1.2m 높이에 이르는 것도 있다.

권형진 기자

天蓼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55-7555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진흙서도 피우는 극락

감성으로 보는 절

<8>보살도의 꽃-홍련화



어떤 집에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다. 깊게 잠 들었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깬 주인집 아줌마는, 집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는 도둑을 보곤 엉겁결에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 바람에 태연히 제집 뒤지듯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도둑이 깜짝 놀랐다. "아이구, 깜짝이야! 왜 소릴 지르고 지랄이야, 미친년. 죽고 싶어?" 주인집 아줌마는 그만 겁에 질려 소리지른 일을 후회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숨소리도 못 내고 도둑이 빨리 작업을 끝내고 무사히(?) 돌아가길 기다릴 뿐이었다. 도둑은 여유롭게 작업을 마치고 호기를 부리며 유유히 사라졌다.

요즘은 세상이 옛날과 참 많이 달라졌다. 옛날엔 도둑질하다 들키면 잡힐까봐 도망을 갔는데, 지금은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도 겁을 먹기는커녕, 집 주인이 겁 먹는, 참 뻔뻔스런 세상이 됐다. 옛날엔 배고파서 마지못해 도둑질을 했지만,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모으려고 큰 도둑질을

'나'와 '너' 따로 봐
세상은 고해와 같아

고통 함께 나눌때
원융한 세계 열려

하고도 아주 호기를 부리는 세상이다. 참 묘한 세상이다. 이것이 다 시대 탓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중생의 허망한 탐욕 때문이 아닐까?

얼마전 어떤 분과 통화하던 중 이런 말을 들었다. 어느 날 집에, 몇 개월 되 보이지 않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드나 들었다.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그 분은, 그 강아지에게 치즈도 주며 맘껏 놀게 했다. 강아지는 갖은 재롱을 부리며, 때론 놀어지게 잠도 자다 저녁이면 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옆집 진돗개에게 놀러 갔다가 그만 물려 죽고 말았단다. 그래서 방금 묏 산에 묻어주고 왔단다. 그 진돗개는 그 전에도 서너 마리나 동족(?)을 물어 죽이고도 태연하다고 분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영역을 지키려는 진돗개의 본능에 충실한 무의식적 행위였겠지만, 그것이 어디 그 진돗개에게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타아(他我)를 죽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가 아닐까? 그러기에 불교에서 이 땅을 예토라 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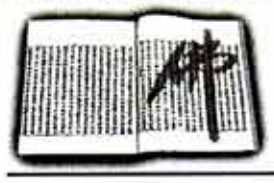
오래전에 나는, 기독교의 어떤 기도원에 며칠동안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좀 따지는, 아주 논리적인 사고에 젖어 있던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기도원 같은 비합리적(?)인 곳에 들어 간다는게 좀 거북살스런 일이었지만, 경험(?)삼아, 또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관찰(?)삼아 들어갔는데, 나는 그만 놀라고 말았다. 그리고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크게 깨닫게 되었다. 아, 이것이 바로 아비규환의 세상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이구나. 저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나를 발견하곤 정말 가슴이 터지는 아픔 속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한두 달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내고 처자식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애원하는 저 가냘픈 인생! 기도의 효험(?)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걸 따지며 이 실존적 현실을 객관화시키는, 내 바위덩이처럼 굳은 미망한 자아는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비웃을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건가? 저것이 바로 '나'의 실상임을 나는 업경대처럼 깨달았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 속엔 하느님도, 부처님도, 종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세상은 '아픔'의 세상이다. '괴로움'의 세상이다. 왜? '나'와 '너'를 따로 나누기 때문이다. 내가 배 부르니까 '너'의 굶주림이 따로 있고, 내가 행복하니까 '너'의 불행이 '강 건너 불'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해가 된다. 어치피 실상이 없는 존재인데, 리무진을 타고 무덤에 간다 해도 죽음 앞에 선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허망한 '나'를 붙들고 '너'를 남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예토가 된다. 세상은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무이상(無二相)이라 하는가? 그것이 초용한 삶이요, 곧 법성이라 했다. 극락세계가 정토인 것은 '너'와 '나'가 따로 아닌, 하나의 세계인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절마다 영지(影池) 아니면 연지(蓮池)가 있다. '나'를 비춰 주는 물 속에 부처님은 웃고 계시다. 예토 속에서 부처님은 정토의 세계를 꽃 피우고 계시다. 그리고 고해가 곧 열반인 것을 일러 주시고, 그러므로 부처가 곧 자비인 것을 또한 가르켜 주신다. 이 예토 속에서 내가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보살도를 행할 때, 이 세상은 곧 극락정토가 되는 것임을 나는 홍련화 속에서 깨닫는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持戒와 지혜가 특히 중요

한글대장경의 세계

장아함경

21.범근경(梵動經)
부처님이 죽림에 계실 때 선념범지는 3보를 비방했으나 그의 제자 범달마는 3보를 칭찬했다. 이를 두고 여러 비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 졌는데 부처님은 3보를 훼방한다고 하여 분심을 내서도 안 되고 3보를 칭찬한다고 하여 환희 하여도 안 된다고 가르쳤다.

22.종덕경(種德經)
종성, 풍송, 단정, 지계, 지혜를 구족한 종덕(種德)이 부처님 공덕을 찬탄할 때 부처님은 5법을 구족한 이를 바라문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 지계와 지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용히 앉아 도를 생각하고
덕은 덮고 허물을 드러내며
부처님 찾아 마음을 깨치라

23.구라단두경(究羅檀頭經)
부처님이 구살라국 시사바 숲에 계실 때 학덕을 겸비한 구라단두 바라문이 자신의 11법 구족을 칭송하는 제자들의 말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다. 이에 부처님은 대사법(大祀法)의 과보 보다는 수승한 귀계(歸戒) 자심(慈心) 출가의 공덕에 대해 설명했다.

24.견고경(堅固經)
부처님이 나난타성의 바바리암차 숲에 계실 때 견고 장자가 비구들이 보는 앞에서 신족을 나타낼 것을 부처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요한 곳에 조용히 앉아 도를 생각하고 덕을 덮고 허물을 드러낼 것을 가르쳤다.

25.나형범지경(裸形梵志經)
부처님이 위약국 금반녹림에 계실 때 나형범지가섭이 부처님께 고행자들을 꾸짖느냐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고행에도 선악의 두 갈래가 있으나 다만 출요(出要)가 아님을 가르친다.

26.삼명경(三明經)
부처님이 구살라국 이차 숲에 계실 때 삼명 바라문 가운데 비가라 바라문의 제자와 다리차 바라문의 제자가 자기들의 도가 진정하여 출요를 얻고 범천도에 이른다고 논쟁을 벌이다 부처님에게 결론을 묻는다.

27.사문과경(沙門果經)
부처님이 왕사성의 아바원에 계실 때 아사세왕은 오늘 밤은 보름달이 밝으니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우사 대신에게 묻는다. 우사는 육사외도(六師外道)를 찾아 마음의 개오를 구함이 좋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왕은 수명동자에게 부처님을 찾아 마음의 개오를 찾으라고 권한다.

28.포타바루경(布婆樓經)
부처님이 사위국 범지 숲에 당도했을 때 포타바루 바라문이 상생상멸론(想生想滅論)을 비롯해 유상 무상론, 유변론 무변론 등 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 같은 철학 문제는 정각을 얻는 법이 아니며 오직 사성제만이 법의에 맞는 범행임을 강조한다.

29.로차경(露遮經)
부처님이 구살라국 시사비 숲에 계실 때 로차 바라문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가다가 얼마 안 가서 악견을 일으켰다. 부처님은 그를 위해 삼사(三師)와 사사문과(四沙門果)를 말씀 하셨다.

30.세기경(世記經)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 물체세간의 발생성립 진전변화와 증발귀결 및 구성조직에 대하여 불교의 우주관을 설파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80-33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전통문화전문

海印佛教美術院



해인불교미술원은
장인정신으로
불국토를이룩하겠습니다

■ 전통탱화전문 ■ 시왕 조각품채색 ■ 개금

서울시 중구 묵정동 18-27 대학 문화원 빌딩
代 02)2265-0108

순직 가방과 모자만을 생산해 온 35년 전통의 성림에서
스님과 불자님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규격 330×280×140 모델명 S-2001 가격 36,000
규격 360×220×140 모델명 S-2002 가격 35,000
규격 340×270×105 모델명 S-2003 가격 36,000
규격 290×220×100 모델명 S-2004 가격 18,000
규격 300×420×150 모델명 S-2005 가격 43,000
싸이즈 57.5cm 모델명 S-2006 가격 17,000
싸이즈 57.5cm 모델명 S-2007 가격 17,000
싸이즈 조절 가능 있음 모델명 S-2008 가격 17,000

제품의 장점 및 특징
1. 완전 방수가 됩니다. 2. 수납공간이 편리합니다. (성림만의 독특한 수납공간 보유)
3. 가볍습니다. 4. 튼튼합니다. 5. 저렴한 가격입니다. 6. 항시 A/s가 가능합니다.
※ 거북 모양의 지퍼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입니다. 이용시 불편한 점은 연락주십시오. 단체 주문도 받습니다

서울 취급점 길상원 02)722-4435 이화불교사 02)720-1700 광명사 02)732-4792

성림산업 서울시 은평구 불광 2동 259-58 대표 : 송중순
TEL : 02) 385-7150 / 02) 353-7048 FAX : 02) 382-4006 H.P : 019-386-6863